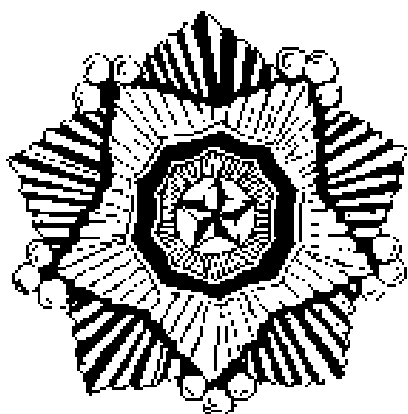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10

주체 92 (200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2(2003)년 제10호

(루계 제 672 호)

◇◇◇◇◇◇◇◇◇◇◇◇

차례

◇◇◇◇◇◇◇◇◇◇◇◇

당에 대한 생각	4
위대한 령도와 주체의 인간학의 새 면모	5
명언해설	7
10 월의 만수대에서	8
열여덟 그 나이	8
눈부신 해돋이	9
사랑하는 내 조국의 수도여	16
우리 당의 모습	17
영원히 당기발따라	17
눈물 흘린 표충비	18
어머니	21
시대의 명곡을 낳은 정교한 시	22
친근하고 위대한 령도자	24
철령은 앞에 있다!	25
오성산마루에 수리개날으네	25
나의 시어머니	26

소원으로 무거워진 땅	33
그리움의 저녁	34
세포에 대한 생각(외 1 편).....	34
손을 든다.....	35
초소에서 보내는 편지	35
시대와 여성영웅	36
《두 곁상에 앉아있다》	37
길동무들	38
나는 쇠물에 정들었네	51
아름다운 골짜기	51
기다리는 교정	52
공채 아바이	54
주소없는 고향.....	61
백모녀	63
강반의 달밤	64
밝은 달아.....	74
나의 안해에 대한 추억(1).....	75
구월산아	80

당에 대한 생각

박현철

밤은 깊어...

하나 둘 불꺼지며

수도의 창가마다 어둠은 깃들고

하늘에 유난히도 북두칠성 빛나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

-창문가에 불 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디일까...

책상우에 하얀 종이를 펼치고

당에 대한 송가를 써나가는 마음속에

당에 대한 생각을 다시 또 일으키는

노래속의 노래여!

내 잠시 달리던 붓을 멈추고

먼 밤하늘가 최전선을 바라보니

장군님 높이 드신

필력은 선군의 그 기치속에

우리 당 기발의 나뭇김소리도 들려오누나

우리 삶을 보살피던

그 불 밝은 집무실 창가는

이밤 굽이굽이 전선길을 달리고 있으니

우리 요람 지켜주는 어머니의 눈빛인가

장군님의 야전차 걸음걸음 따라서며

내 운명의 그 불빛을 노래에 담노라

아, 천번을 생각하고

만번을 다시 고쳐생각해봐도

수령님 창건하신 우리 당의 모습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그 모습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그이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어머니 우리 당 조선로동당이여!

더 달리 지어부를

그런 노래가 내 심장엔 없어라

고난의 천리 만리를 오면서도

오직 하나 정으로 믿음으로 따르것은

사생결단 철령과 오성산의 칼벼랑을 오르던

장군님의 성에불린 한겨울의 그 야전차

그토록 힘겨운 시련의 고비고비

그토록 어려운 사선의 굽이굽이

인민과 고락을 나누고 생사를 함께 하며

인민의 앞길 밝힌 그 불빛이

바로 당이고 조국이 아니었던가...

정녕 당이여

준엄한 혁명의 험로역경을 걸으면서도

그대의 사랑과 은정

그대의 존엄과 영예

변함없이 인민의 마음속에

한점 티도 없이 간직되어있는것은

오직 인민위해

결사의 폭풍을 맞받아 헤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그 로고, 그 헌신때문이었리라

그래서 인민이 더 따르는 당이여!

그때문에 인민이 목숨처럼 받드는 당이여!

그래서 그대를 생각하는 인민의 맘속에

저 노래 심장의 메아리를 불러오나니

아, 우리 당이 있는 곳은 선군의 최전선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

위대한 령도와 주체의 인간학의 새 면모

오늘 우리 문학은 주체의 인간학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고 있다.

사상과 령도의 거장이시며 주체문학의 광휘로운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주시대의 문학은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는 새로운 사상을 내놓으시고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문학의 창조와 건설에서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며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신 고귀한 업적은 주체문학의 강화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형의 문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새형의 문학이다.》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의의있는 인간문제로 보고 작품에 내세우며 거기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로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을 해명한데 기초하시여 우리 문학은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는 새로운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기본사명을 밝혀주시었다.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한다는데 있다. 문학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는것은 결국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영화예술론》**과 **《주체문학론》**을 비롯하여 많은 로작들에서 주체의 인간학의 본질과 사명, 근본특징과 미학실천적방도들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문학작품창작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통하여 우리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인간학의 본성과 사명에 맞게 수령형상창조를 주체의 인간학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시였으며 이를 당문에정책의 기본으로 정확화하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장구한 인류문예사상 류례없는 수령형상문학의 일대전성기를

이룩하시었다. 이것은 주체의 인간학의 면모를 갖춘 우리 문학의 가장 본질적이고 빛나는 모습이며 위대한 문학의 영재가 이룩한 불멸의 업적이다.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상교양적기능, 생활인식적기능, 문화정서교양적기능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사상교양의 기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문학은 당의 수중에 장악되어있는 사상적무기이며 사람들의 사상교양, 사상개조에 복무하는 힘있는 수단이라고 하시면서 문학의 사상교양적기능을 높여야 그것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문학이 사상교양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장엄한 현실과 현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를 작품에 진실하게 묘사하자고 하여도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주체혁명위업의 발전과정과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 오늘의 자랑스런 성과와 래일의 밝은 전망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수 없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확히 그려낼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이 당과 수령의 령도 밑에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발전과정과 약동하는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여 인민대중을 주체위업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자면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옳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시었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특히 우리 문학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것이 그 사상교양적기능을 높이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통찰하시고 문학작품마다에서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군대가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사상이 격조높이 울려나오도록 하시었다. 우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깊이 있고 민감하게 반영될수 있는 주체방향과 생활내용, 작품의 종자와 형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창작과정에서 제기되

는 실천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어 우리 문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서적으로 안받침하는 사상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하시었다.

주체58(196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창작된 장편소설 《생명수》가 어지돈관개공사에 대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의 농촌수리화정책의 빛나는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보여줄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의 의도에 맞게 종자를 바로잡아주시고 정책적으로 대를 바로 세워나가도록 창작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신 결과이다. 장군님께서 이 작품의 창작과정에 작품의 종자가 정책적요구에 맞게 옳게 심어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형상의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실패를 료해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오직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하는데로 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들이 집중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생명수》는 황금으로 연재를 쌓는 한이 있어도 봉산별농민들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는 작품의 핵이 심어지고 하들도 임금도 주지 못한 생명수를 우리 수령님께서 주셨다는 작품이 제기한 문제를 격조높이 노래한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시대의 걸작으로 완성되게 되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설사상과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을 감동깊게 보여줄수 있는것과 장편소설 《새봄》이 토지혁명을 수행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잘 살리며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결합에 대한 사상을 명확하고 진실하게 그린 시대의 명작으로 된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문학작품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하며 그에 맞게 모든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기본생리로 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이 주체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생활인식적기능을 높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고 문학작품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문학은 인간생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준다. 우리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통하여 1930년대의 우리 나라 사회현실을 실지 체험한것처럼 알게 되며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되는것은 문학의 생활인식적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의 생활인식적기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일찌기 엥겔스는 발자크의 《인간희극》을 두고 프랑스사회의 역사를 집약하고 있는 이 작품은 경제학적인 세부라는 의미에서조차 이 시기의 력사학자, 경제학자, 통계학자를 다 합친 모든 전문가들의 저서에서보다 더 많은것을 밝혔다고 썼는데 이것은 문학의 인식적기능에 대한 좋은 레증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그리

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보여주며 복잡한 인간생활을 그 본래의 모습그대로 묘사함으로써 그 인식적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생활묘사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예방침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문학작품들은 제철소 로동계급의 생활을 그린 작품에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나래치는 철의 도시의 생활전경이 그대로 펼쳐져 사람들이 제철소에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제철소에 사는 로동계급과 조금도 다른없는 생활감정에서 그것을 산 체험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하고 있으며(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철의 신념》) 농촌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에서는 농촌의 고유한 토색적인 정서와 풍습, 농촌특유의 생활모습 등을 생동한 현실로 체험하게 된다.(장편소설 《새봄》)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의 문화정서적기능을 높여 주체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었다.

문학은 사람들에게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생활인식의 힘있는 무기로 될뿐아니라 문화정서교양의 좋은 수단으로 된다.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며 건전한 사상을 주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서적으로 키우는데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문화정서교양은 주체시대의 미감에 맞는 혁명적생활감정과 민족정서를 키우는 사업이며 문학은 바로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정서를 안겨주며 그들의 문화성과 인간성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우리의 문학형상이 이를 훌륭히 구현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문학작품들은 딱딱한 정치적인 술어나 구호같은것을 라렬하는것을 철저히 경계하며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구체적인 화폭으로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에서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긍정하고 추악하고 저렬한것을 부정하는 생활감정과 정서를 키워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작품에 인간학적요구가 훌륭히 구현되게 지도하시었다.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옳게 보고 그려야 한다. 문학은 인간형상을 창조하는 예술이며 인간형상은 문학의 얼굴이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리는가 하는데 따라 문학의 면모가 규정되며 그 사상예술적 가치가 결정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에 대한 탁월한 정도의 나날 문학창작에서 인간학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일부 작가들이 사람을 여전히 사회적관계의 총체로만 내세우고 그의 성격에 체현되어 있는 시대적 요구와 계급의 본질, 개인적면모가 규정되며 특징을 드러내는데만 머무르면서 작품들에 나오는 인물을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지만 새로운 인간성격으로 부각하지 못하고 형상들이 엇비슷하게 만드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데 대하여 밝혀 주시었다. 특히 주체63(1974)년 12월 6일 고전적으로작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비롯하여 문학창작에 대한 많은 지도를 통하여 작가들로 하여금 사람을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원칙에서 창조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문학이 지난 시기의 작품에서 나오는 인간형상보다 높은 경지에 이른 새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은 혁명적수령관을 성격의 핵으로 하여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에 충성다하는 정신,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정신, 자기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정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정신,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는 정신을 소유한 인간들이다. 그리고 어떤 정황속에서도 사람의 존엄과 자주적인 요구를

끝까지 고수하고 늘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 개성들이다. 특히 오늘 선군시대의 성격은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 영웅적희생정신을 소유한 인간,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새로운 성격으로 승화된 산 개성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옳게 그리도록 지도하여주시었다. 여기에서 특히 세계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깊이있게 보여주어 세계를 숙명적으로가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며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는 형상을 진실하게 그럴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문제사상과 이론이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문학은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의 견지에서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그림으로써 형상을 통하여 사람의 힘이 더욱 커지고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지는것을 예술적으로 깊이 해명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 문학은 위대한 향도의 해발을 받으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보여줄수 있는 주체의 인간학의 면모를 갖추으로써 그 어느 시대 문학도 이룩할수 없었던 문학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었다.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문예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인류지성의 정화인 주체의 인간학에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탁월한 정도로 우리 문학을 그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신것은 인류문예사상사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업적이다.

명언해설

《일심단결은 우리 당의 혁명철학이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일심단결이 우리 당의 좌우명이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첫째가는 대사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일심단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실 때부터 시종일관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고 계신다. 일심단결은 하나의 중심, 하나의 지도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단결이며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심에 기초한 도덕의리적단결이다. 우리 당은 일심단결의 당이며 우리 나라는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주체혁명위업은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 때에만 빛나게 계승완성될수 있다.

10 월의 만수대에서

김명철

10월의 만수대
수령님께 삼가 꽃다발을 드리고
대기념비 군상들을 돌아보니
《타도제국주의》
붉은기에 새겨져 빛나는 저 글발

걸음을 멈추고
뜨거운 눈길로 글발을 쓰다듬는다
내 태어나기 서른해전에 벌써
수령님 이 구호 높이 드셨던
하늘가 멀리로 이 마음 보낸다

그러면 내 정녕
력사가 떠받드는 그날의 그 집에서
젊으신 수령님을 뵈옵고 있는듯
안겨온다 《ㄷ. ㄷ》의 강령을 받아안고
혁명열에 들끓던 선렬들의 숨결이

내 수령님의 회고록을 읽으며
몇번이고 어루쓸던 수수한 샛자리
거기서 우리 당이 처음으로 태동했고
화전의 가을밤 타고르던 등잔불
그 빛이 내 조국의 려명으로 되었나니

아, 그날의 리념이
현실로 아름답게 꽃피는 땅에서
후더워지는 가슴으로 내 생각하건대

《ㄷ. ㄷ》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오늘이 있을수 있으랴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원수들이
핵탄을 휘두르며 날뛰는 지금
벌써 일흔일곱해전 그 10월 17일
필승의 무기를 우리에게 마련해주신
수령님이 고마워 복받치는 격정이어!-

《ㄷ. ㄷ》로 찾은 사회주의 내 나라
인민이 살기 좋은 이 제도를 지키자고
우리 장군님 높이 추켜드셨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상징인
선군의 총대를!

수령님을 받들어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온 저분들처럼
장군님을 옹위하여
우리 군민 사생결단 굳게 뭉쳐 싸워갈 때
침략의 아성은 무너지고 말리니

아, 10월의 만수대
수령님 거연히 서계시는 언덕에서
나는 지금 심장으로 웨친다
조국이어! 길이 부강번영하라!-
《ㄷ. ㄷ》의 기발과 더불어 영원히...

열여덟 그 나이

곽명철

누구나 부러워 한다
영웅의 열여덟 그 나이를
그 나이를 훨씬 지난 반백의 사람들도
그 나이에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도
그 나이를 앞에 둔 아이들도

오, 조국에 바친 심장의 그 무게를 새겨주는
열여덟
조국과 청춘의 그 의미를 늘 깨우쳐주는
열여덟

리수복이 아니었다면
이 열여덟나이
다름이 있었으랴
우리 레사롭게 맞고 보내는

그런 평범한 나이와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행복속에 더 셀수도 있었을 그 나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주저없이 열여덟에 멈춰세우고
영생의 삶을 안은 영웅전사여

결코 어리다고 내려다만 볼수 없는
열여덟 그 나이
한생 바삐 살아도 못다 오를
아득한 높이의 그 나이로 바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당과 조국앞에 떳떳이 세여볼
내 위훈의 나이는 지금 몇인가

눈부신 해돋이

리한호

인민예술가 박진호는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수가 없었다. 여느때 같으면 눕기 바쁘게 껏잠에

푹아떨어졌을 그였으나 복신킨한 잠자리조차 도 자

갈판처럼 불편스러웠다.

포르 포르릉... 방울새의 우짖음같은 부름종소리가 울린다. 집안의 귀염둥이이며 껏인 딸이 온 모양이다.

안해의 조심스러운 발자국소리, 문열리는 소리... 이제 기쁨을 금치 못하는 목소리가 울릴것이다.

《아버지 오셨나요?》

아니다. 그냥 잠잠하다. 필경 안해가 입술에 손가

락을 끈추 세웠으리라. 안해와 딸이 수군거리던 건넌방은 쏴쏴하고 무거운 침묵에 잠긴것 같다. 이런 일은 전례없는것이였다.

일단 미술작품창작에 들어서면 끝을 보고서야 집에

들어오던 박진호였다. 성공의 희열로 쏴어진듯 얼굴

이 환해져 집에 들어서는 날은 곧 가정의 명절이다.

망울을 터치려는 껏처럼 싱싱하고 예쁘게 번져가는 딸은 이제는 대학졸업반인데도 철부지소녀처럼 담쑥 매달리며 《아버지, 축하해요》 하고는 아버지를 독차지해버리고 참새처럼 재잘거린다. 어떤 평을 받았나요, 작품제목은 뭐나요... 그쯤 되면 안해는 질투하듯 딸을 밋지 않은 눈길로 할기여본다. 신고개에 접어든 안해였지만 처녀시절의 아릿다움과 무용수의 날씬한 몸매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였다. 마침내 한마디 하고야 만다.

《애, 아버지 힘드시겠다.》

하고는 가볍고 툄동적인 거동으로 부엌에 들어가서

어느새 박진호가 좋아하는 떡국을 준비한다. 콘로에 불을 살리고는 생신킨 껏고추를 사러 가느라 조용히 문밖을 나신다. 그러면 딸이 부엌을 차지한다. 뜨끈한 떡국에 검푸릿하게 독이 오른 껏고추를 된장에 껏어 우짖 껏물 때의 맵고도 짜릿한 감칠맛이란 세상 제일의 진미였다. 《어-맵다.》 하며 땀방울을 툄툄 흘리며 입을 허 벌리면 안해의 선이 고운 얼굴에 방그레 미소가 아지랑이처럼 피어나고 딸은 《아버지는 정말 고추주의

자야.》 하면서 껏껏댄다. 계절에 관계없이 식탁에 껏고추를 놓아주는 안해의 지성이며 집안을 웃음소리로 껏 채우곤 하는 딸, 드물기는 하지만 군복을 입고 최전원에서 복무하는 아들한테서 편지까지 올 때면 이것이 생활의 락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며 열밤, 스무밤을 새우다싶이 하면서 창작에 열중하느라 쏴였던 피곤도 가뭇없이 사라지곤 한다.

생활은 리해의 공간, 습관의 매질인듯 싶다. 신접살림때부터 가정은 뒤전에 밀어놓고 오직 창작밖에 모르는 남편을 야속하게 생각하며 작고 선명한 입술이 뽀로통해지던 안해도 이제는 한다하는 《심의원》이 되였다. 무용밖에 모르던 그가 구도요, 명암이요, 중간색이요 하며 속삭이듯 말할 때에는 제법 씨박인 소리들이 나온다. 그리고 작품이 성공했다면 더없이 기뻐한다. 반듯한 이마에, 그윽한 눈매에, 상큼한 코며 선명한 입술... 그 어디에나 기쁨이 피여오른다.

그런 행복의 순간들이 수십년세월에 력점처럼 찍혀졌다. 그 개개의 점들이 이제는 세월과 더불어 길다란 선을 이루었다. 그 선은 인생행로, 행복과 영광의 행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1년째 력점을 찍지 못하였다. 제자리걸음... 모지름을 썼으나 역시 실패였다. 그래 현지로 다시 가려고 집에 들렸던 참이다. 그는 문턱안에 발을 들여놓으며 시답지 않게 말했었다.

《식사는 하고 왔소. 출장준비를 해주오.》

순간 안해의 얼굴에 피어나려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윽하던 검은 눈동자가 바르르 떨렸다.

박진호는 심장의 아픔을 느꼈다. 지그시 껏무는것같은 그 진통... 지금 그 진통은 침대에 누웠어도 멈추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딸한테까지 비겼을 그림자와 함께 더 가슴을 굶는다.

(박진호, 너도 이제는 조락기에 들어섰는가?)

×

1년전의 어느날 김정일 동지께서 박진호네가 창작한 집체작그림을 보아주실 때였다. 박진호는 저으기 긴장되는 속에서도 은근히 자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3년간을 백두산에서 살면서 600여상의 습작을 하고 컴퓨터로 구도와 세부, 색조와 명암을 가늠해보면서 묘사대상을 조형예술적으로 통일시켜 마침내 작품을 완성할수 있었다. 그러한 집체작이었으니 웅당한 기대감을 가질만도 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손을 가슴에 엇걸으시고

그림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다가 돌아서시었다.

《그림이 괜찮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술가들이 백두산해돋이를 많이 그렸지만 아직 이만한 수준에 이른것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대담하게 도식에서 벗어난것입니다. 백두산전체를 그리지 않으면서도 여운있게 그린것이라던가, 시적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줄기가 굽직한것이라던가, 화면에 담긴 뜻도 깊습니다.

백두산이 생겨난것은 아득히 오래전의 일이지만 혁명의 성산으로 불리워지게 된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시어 항일대전의 총성을 울린 때부터입니다. 조선의 아침도 백두산에서 밝아옵니다. 주체시대의 려명도 백두산에서 밝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르며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를 제일 사랑합니다.

새 세기를 맞이하며 인민군대창작가들이 백두산해돋이를 집체작으로 그린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역시 인민군대가 다릅니다.》

박진호는 가슴이 뻘뻘해지며 설레었다. 옆에 서있는 총정치국의 엄국철장령의 기쁜 얼굴도 불그레하게 상기되었다. 집체작에 누구보다도 원심을 기울인 그였다. 창작실에 자주 나와 고무를 주고 자기의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터놓곤 하였다. 그가 어쩌나 사색을 많이 했는지 한마디한마디가 다 가치있는것들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시금 그림에 시선을 주시었다. 가까이 다가서기도 하고 몇걸음 물러서기도 하시었다. 이윽고 알릴듯말듯 고개를 저으시었다.

《한가지 아쉬운것이 있습니다. 백두산마루에서 해돋이를 보는 느낌이 부족합니다. 달리 말하면 진짜 해돋이를 보는것 같지 않단말입니다.》

순간 박진호는 숨을 들이키며 고개를 꼭 숙였다.

《허허... 내가 너무 혹평하는게 아닙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박진호를 바라보시었다.

《아닙니다. 지적을 받고 보니 작품이 미완성이란것이 대뜸 알립니다. 곧 백두산에 다시 가겠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역시 박진호동무다운데가 있습니다. 현실속에서 몸을 꼭 잡그어야 걸작이 나옵니다. <강선의 저녁노을>을 국보작품으로 그린 정영만동무도 그렇고 세계의 이름난 풍경화 화가들도 현실속에서 시대정신을 감수하면서 창작하였기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민군대창작가들이 현실속에서 오래동안 습작을 하고 고심을 해서 창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못했는가? 그것은 백두산해돋이가 그만큼 장관이기때문입니다. 말로나 글로써 다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황홀합니다. 그러니 그림으로써도 형상하기가 험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뗐으면 끝을 봐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언제나 불가능을 몰라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키가 구척같은 엄국철에게 얼굴을 돌리시었다.

《엄국철동무, 우리도 집체작의 한 성원이 됩시다. 우선 특별비행기에 창작가들을 태워 보내도록 합시다.》

《특별비행기를 말입니까.》

엄국철이 눈을 좁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허허, 특별비행기라는게 별거요. 정기항로가 아닐뿐이지. 백두산해돋이를 그리러 가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

박진호는 가슴이 찢어질듯했다. 눈굽으로는 뜨거운것이 불쑥 솟구쳤다...

특별비행기까지 타고 백두산에 이른 창작가들의 열정은 화산처럼 타올랐다. 그런데다 엄국철장령이 같이 와서 장군봉의 한 지점을 찍어 주었다.

《여기서 해돋이를 보시오. 이 자리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해돋이를 보신곳이요.》

《아, 그렇습니까.》

창작가들이 일시에 모여들어 그곳에서 해돋는 쪽을 관망하였다. 가까이에는 억세고 담대한 기상이 비껴있는 향도봉이 위엄차게 솟아있고 멀리로는 백두대산줄기가 편편히 뻗어있다. 향도봉은 그 산줄기들을 따라 질풍노도와 같이 내닫는 천만전사들을 지휘하는 전방지휘소를 방불케 하였다.

검무릿했던 하늘의 한끝이 회보라색으로 변하더니 공격의 화살표인듯 붉은 선이 쪽 그어졌다. 그것은 점점 굵어지면서 지구의 천정까지 진홍색으로 물들여놓는다. 그레놓고서야 태양이 열광을 뽐으며 솟구쳐 올랐다.

(아!)

박진호는 저도 모르게 감탄을 터뜨렸다. 태양은 바로 향도봉우로 솟구치고 있었다. 그것이 우연한 일치이겠는가.

뇌리가 창작적흥분으로 진동하였다. 누구나 흥분속에 붓을 달리고 사진기의 셔타를 눌러댔다.

그사이 엄국철장령은 백두산탐험대에 가서 연구사를 데려왔다.

《박진호동무, 해돋이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참고가 될거요.》

박진호는 그가 그토록 원심을 써주는것이 고마웠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겠소. 불가능을 몰라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명심하요.》

그는 손을 꼭 잡아주고 떠나갔다.

연구사의 이야기에 또 뜻깊은것이 다분하였다.

…인간은 해돋이를 희망과 행복,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계 7대기적》의 하나로 불리우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청동거상을 해돋이를 제일 먼저 볼수 있는 자기 나라의 동쪽끝 로도스섬에 세웠다. 프랑스의 베르사이유궁전을 보면 침실이 해뜨는 쪽에 있으며 아시아의 한 민족은 설날에 산으로 올라 솟는 해를 보는것으로써 복을 기대한다.

우리 선조들은 더하였다. 원시조도 솟아오르는 밝은 성왕 박달임금(단군)이라 칭했고 나라도 해 솟는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 이름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유명썩한 해돋이풍경이 많았다. 통천의 충석정해돋이, 양양의 락산사해돋이…

그러나 그 어느 해돋이도 백두산해돋이에는 할바가 못된다.

예이제 세계 여러 나라 촬영진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든다는 오스트랄리아 마슬린에서 태평양해돋이까지 구경했다는 한 탐험가는 이렇게 실로 하였다.

《백두산의 신비로운 경계가 행성에 유일한것처럼 백두산해돋이도 마찬가지이다. 동서의 어느 고명한 시인도 그대로 시에 담을수 없고 그 어느 유명한 화가도 그대로 그림에 옮길수 없는 제일 장관이 백두산해돋이이다. 그러할진대 백두산해돋이를 보기전에는 이세상 참해돋이를 보았다고 감히 말하지 마시라.》

연구사는 이야기끝에 강조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백두산해돋이는 그 멋이 절경이여서만 이름 높은것이 아니라 담고 있는 뜻이 하도 높아 천하 으뜸의 장관이지요.

백두산해돋이는 명실공히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불러오신 조선의 해돋이가 아닙니까.》

그의 절절한 말은 창작가들의 흥분을 한층 격양시켰다.

박진호는 이번엔 꼭 작품이 성공되리라는 자신심이 북받쳤다. 장군님께서 보신 자리에서 해돋이를 보았으니 확고한 지지점을 찾은셈이요, 연구사의 말에서 인민의 념원까지 가슴 뜨겁게 받아안았으니 창작가들이 심신을 다바쳐 최대의 기교를 발휘할것이 아닌가.

낮과 밤이 어떻게 바뀌고 흘렀는지…

드디어 두번째 집제작이 완성되었다. …누리를 불태우며 태양이 솟는다. 힘있게 굽이쳐간 구름들조차도 노을빛에 물들어 불길처럼 보인다. 억세고 열렬한, 백두의 위엄찬 기상과 시대정신이 비친 숭엄한 해돋이 장면이었다.

(이번에는…)

자신심을 가지고 장군님께 그림을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넓은 홀에 전시된 그림을 퍼그나

오래도록 감상하시였다.

《그림이 더 짙어였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다는것이 알립니다. 창작가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두팔을 앞으로 걸으시고 그림을 오래도록 보시였다. 정적…

이윽고 그이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고 돌아서시였다.

《박진호동무, 아직 장군봉마루에서 해돋이를 보는 느낌이 덜 듭니다. 우리 요구는 그림이 아니라 백두산해돋이를 직접 보는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라는것입니다.》

박진호는 이번에도 그림이 미완성이라는 생각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좌절감보다 장군님의 기대에, 높으신 경지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죄스러워졌다.

(아, 나는 배은망덕한 놈이다.)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손목굵기만한 기둥이 오막살이를 버티고 서발막대기를 휘둘러도 걸려드는것 하나도 없는 쪼찌게 가난한 집, 대대로 목숨을 겨우 이어가는 소작농의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박진호였다.

여섯살때였던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이웃집의 학생이 크레용으로 그리는 그림을 신기하게 보게 되었다. 크레용이라는것을 알게 된것도 펄 후의 일이지만 그때는 빨간색이며 파란색따위가 새모양을 만들고 나무모양을 만드는게 신비스러웠고 호기심은 가랑이에 불달리듯 했다.

(나도 해봤으면, 아버지보고 저 빨간이랑 파란이랑 사달라고 할가…)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어리석은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쓸쓸했다. 그 애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의 봄을 안고 오시자 가뭇없이 사라졌다.

학교가 어서 오라 불렀다. 그림그리는 시간도 있었다. 크레용도 생겼다. 그림 또 그림… 그는 그림에 어린녘을 고스란히 바쳤다. 소학교시절 미국놈을 쳐부시는 인민군대땅크를 그린것이 《소년신문》에 실렸다.

《꼬마미술가 박진호》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

아버지뒤편을 이어 인민군군인이 되어서도 그는 그림을 놓지 않았다. 《병사미술가 박진호》로 누구나 사랑해주었다.

생활은 진리를 자래우는 토양이라고 했던가.

참다운 생활, 누리는 행복… 이 모든것이 수령복때문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수령의 믿음과 사랑이 클수록 매혹과 숭배로 가슴은 더더욱 불타고 수령형상이 미술가의 첫째가는 사명이라는 생활의 진리를 심장속에 새겨넣게 되었다.

(내 한생을 백두산장군들의 형상에 바치리라!)

그나날 박진호는 인민예술가로 자라났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그토록 믿음을 주시고 기대를 가지시는 《백두산해돋이》를 이번에도 완성하지 못했으니 이보다 더한 배은망덕이 또 어디 있으랴. 과연 내가 무슨 인민예술가인가...

김정일 동지의 부드러운 음성이 나직이 울렸다. 《박진호동무, 대학졸업작품이 <초소에 오신 수령님>이었지요?》

박진호는 저으기 놀랐다. 수십년전에 대학졸업작품이자 수령형상으로서 첫 작품인것을 그이께서 기억하고계시다니...

《그렇습니다. 장군님.》

김정일 동지께서는 눈시울을 좁히고 추억에 잠기시며 말씀하시였다.

《지금도 그때 그림을 보면서 느낀 강렬한 감정이 생생합니다. 초소근무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는 자애로운 수령님의 모습, 몹시 추운 겨울이지만 나무에 얹혀있는 눈도 따스하게 느껴졌습시다. 수령님과 병사들의 교감도 잘 되였습니다. 털장갑세부가 인상깊었습니다. 그 때 어떻게 되어 그 세부를 찾을수 있었습니까?》

아득히 흘러간 세월은 망각을 가져온다지만 창작적흥분을 강렬히 일으켰던 일은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장군님, 저는 그때 한달나마 병사들과 같이 초소근무를 썼습니다. 그 나날에 병사들이 털장갑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는것을 보게 되였습니다.

근무를 설 때는 정히 끼고 근무를 서지 않을 때에는 함에 정성스레 보관했습니다. 그 까닭을 물으니 털장갑을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셨다, 그것을 끼면 혹한속에서도 손이 시린줄 모른다, 마치 어버이수령님께서 따뜻이 손잡아주고 계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그 심정을 그대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시고 손가락을 끝추 드시였다.

《바로 그래서 작품이 성공할수 있었습니다. 털장갑은 작은 세부이지만 수령님과 병사들과의 교감을 아주 생동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촉매적역할을 했습니다.

<백두산해돋이> 그림도 세부를 잘 형상해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백두산마루에서 해돋이를 보는 느낌을 주자면 부석같은 세부도 잘 형상해야 합니다.

말이나 글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것이 백두산해돋이의 장관입니다. 그런데 관록있는 미술가들이 달라붙었지만 아직 원만하지 못한것을 보면 역시 그림으로도 백두산해돋이의 장관을 형상한다는것이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전번에 언급한대로 인민군대는 불가능을 몰라야 합니다. 예로부터 걸작은 모진 고충속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과정에 탄생하였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창조과정이란 사색과 탐구과정, 새것의 탄생을 필연

으로 합니다. 창조! 이것이 우리의 활동방식입니다. 이것은 새 세기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미술에서도 선군시대의 주인공인 인민군대가 앞장서야 합니다.

박진호동무나 엄국철동무도 내 마음을 잘 알리라합니다.

자, 신심을 잃지 말고 선군시대의 걸작을 완성합시다.》

그이의 음성은 신심에 넘치고 박력있게 울리였다.

엄국철장령은 박진호를 자기 승용차에 무작정 타라고 하였다.

《박진호동무, 장군님께서 동무들을 얼마나 믿고 계시오. 난 오늘 정말 많은것을 배웠소. 바늘구멍으로 봐도 태양은 눈부시단말이요. 비록 그이께서는 미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새 세기의 조선을 보는것 같았소. 이미 보이고 있는것도 허다하오.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21세기에 손색이 없을 현대화된것을 건설하도록 이끄시지 않소...

그이께서는 21세기를 환히 밝히실 태양이시오. 다만 우리들이 태양의 눈부신 빛발을 감수할줄 몰라서 안타깝단말이요. 도약해야 하오. 도약!》

그는 박진호의 집앞에서 승용차를 세웠다.

《오늘밤은 꼭 자오. 도약하는 꿈을 꾸면서 하.》

그의 말은 의미심장하였다.

도약, 도약...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예지의 눈부신 빛발을 보내주고 계신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것을 일깨워주셨던가.

그러나 엄국철장령의 말처럼 우리들이 눈부신 빛발을 감수할줄 모른다.

바로 여기에 안타까움이, 몸부림이, 자신에 대한 타매, 잠들수 없는 번민이 있었다.

부석을 잘 살리면 백두산마루에 서있는 현실감을 돌굴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나 태양을 진짜처럼 형상하기란 풀수 없는 방정식과 맞다들린것처럼 난해스럽다.

신은 형태를 준다면 색은 생명을 준다. 태양은 둥글다. 태양의 색은 무엇인가?

색은 붉고 푸른 그리고 누런, 이렇게 3원색이다. 그것들의 조화로 간색이, 그와 같은 편색으로 수십, 수백가지의 색을 창조하는것이 미술가의 기교일진대 열과 빛이 속성인 태양을 과연 색으로 형상할수 있을까. 프리즘을 지난 해빛은 명료한 7색이다. 그리고보면 해빛도 색이다. 그렇다고 7색을 조화시켜도 빛을 형상할수 없다. 그만큼 해빛은 신묘하다. 도약은 그 신묘함을 완전히 자기것으로 파악했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질적변화가 아니겠는가. 논리적사유만 하지 말자, 형상에서의 비약과 독특한 그 무엇이 없을까? 잡힐듯

하면서도 자꾸만 멀어지는 그 무엇...

그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잠도 오지 않았고 잘수도 없었다. 사색의 바다에 잠겼다...

×

벌써 여러날이 흘렀다.

그러나 **김정일** 동지께서는 쉬임없이 걸으시었다. 백두산밀영, 사자봉밀영, 청봉속영지, 삼지연대기념비...

백두산지구 항일전구지역을 다 돌아보실 계획이었다. 걸으실수록 수령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시었다.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수령님께서는 눈보라, 비바람속을 헤치시며 적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리시고 모진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시며 피어린 길을 헤쳐가시었으니 얼마나 힘드셨으랴.

김정일 동지께서는 새벽이 다 되었으나 잠이 오지 않으시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그이께서는 밖으로 나오시었다. 차갑고 뭉뚱 바람이 옷깃을 들추고 스며든다. 재빛하늘에서는 못별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다. 저멀리 백두산쪽의 하늘을 바라보던 그이께서는 문득 떠오르는것이 있어 걸음을 멈추시었다.

(지금 백두산에 박진호네들이 가있지...)

어느새 마음은 그들에게로 달리시었다. 그동안 얼마나 탐구를 했을까? 아직까지도 도식의 흔적이 있고 대담한 착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었다. 박진호만 봐도 정력과 실력에 있어 남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재능있고 관록있는 미술가였다. 조선화의 전통적인 물결기법을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알뿐아니라 창작에서 대담하다. 집약과 함축으로 령점을 찍을 줄 아는 그는 간결하면서도 표현적인 화면구성과 강한 색대조, 운동성이 강조된 열정적인 필치, 든든한 형태묘사를 하는 것으로 특기가 있다. 그는 기마상을 잘 그리는것으로도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하여 그는 미술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백두산해돋이》 창작에서는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있다. 하지만 그를 믿고 싶으시었다. 무엇보다 불타는 열정이 소중하시었다. 새것의 창조는 정열에 정비례하는것이다.

이 새벽 그들과 함께 창조의 세계에 잠겨들고 싶으신 충동이, 해돋이도 함께 보시고 싶은 충동이 서서히 가슴속에서 불타오르시었다. 조용히 다녀오자...

야전차로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누군가 서있는것을 보시었다. 후리후리한 키...

《엄국철동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문 왜 자지 않습니다.》

엄국철은 머뭇거릴뿐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득 짊어지는것이 있었다.

지금 엄국철은 스스로 호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것이리라, 전선시찰의 길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의 그런 모습...

가슴이 후터워오시었다. 동시에 난처해지시었다. 이제는 조용히 떠나실수도 없고 그를 쉬게 할수도 없다는 생각...

《엄국철동무, 백두산에 다녀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말입니까?》

엄국철은 무척 놀라 눈을 슬벅거렸다.

《박진호동무네를 만나보자는겁니다.》

《!》

엄국철은 바쁘시고 피로가 쌓일대로 쌓였을 그이께서 다름아닌 창작가들때문에 백두산에 오르시겠다고 하시니 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장군님. 래일도 혁명전적지시찰을 계속하셔야겠는데 후에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지만 오늘은 어쩐지 그들 생각이 자꾸 나누만. 그 사이 내가 생각한것도 튕겨주고 싶구...》

《장군님,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허허. 전해주는게 교감이 제대로 될가? 그러지 말고 우리 조용히 다녀옵시다. 집체작에 우리의 몫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이께서는 몸소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으시었다.

《동문 잠간이라도 눈을 불이오.》

이어 그이께서는 쾌속으로 차를 몰아가시었다. 획획-아름드리나무들이 스치듯 흘러간다.

《장군님, 너무 과속하십니다.》

《허허, 고항길도 마음놓고 달리지 못하겠습니까. 보아하니 동문 잠들것 같지 못합니다. 우리 이야기나 나눕시다.》

우리 혁명은 백두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조선의 정신은 바로 백두산의 정신입니다.

인민군대에서 백두산혁명전적지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해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군인들을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민군대가 참관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을 놓치고 있습니다.》

엄국철은 자못 긴장되어 두손을 모아쥐며 귀를 강구었다.

《이번에 료해한데 의하면 백두산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답사하는 사람들이 백두산해돋이를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두산해돋이>를 창작하는것이 의의가 큼니다.》

엄국철은 심원한 그 말씀에 머리가 숙여졌다. 그이께서 백두산해돋이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가...

야전차는 무두봉을 지나 달리고 있었다. 백두산의 웅자가 새벽빛속에 숨엄하게 안겨온다.

×

무변광대한 백두대지의 한쪽이 검푸릿해지자부터 박진호는 서둘러대었다.

《록화기가 사진기보다 못했소. 김준오동무가 찍은 부석세부는 생동한데 록화기는 초점이 맞지 않은 감이 있었소.》

《오늘은 넘려마십시오. 지금까지야 태양과 구름… 이를테면 하늘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종소. 결과를 보고 총화합시다. 강정구동무.》

곧 키가 꺾두룩한 강정구가 다가왔다.

《동문 나와 함께 태양에 집중하지요.》

《알았습니다.》

이어 그는 작달막한 키에 눈이 영민하게 번쩍이는 박창준에게 《구름을 놓치지 마오.》하고 신적하였다.

바로 그때 두줄기의 강렬한 전조등불빛이 어둠을 휘저어대며 다가왔다.

(혹 엄국철동지가?)

박진호는 부지중 전조등불빛을 마중하여 반달음을 놓았다. 백광이 그의 몸을 스쳐지났다.

야전차는 바로 박진호의 앞에서 멎었다. 소리없이 차문이 열리더니 우렁우렁하고 박력있는 음성이 울렸다.

《박진호동무!》

아, 뜻밖에도 장군님께서 오신것이다. 박진호는 한순간 몸이 굳어졌다. 그러나 심장은 후두둑 놀뛰며 흥벽을 쳤다. 환희와 감격이 가슴을 꼭 채웠다.

《수고합니다. 해돋이를 함께 보러 왔소.》

《장군님!...》

그다음 목이 꺾 메여 인사의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

《장군님!》

창작가들이 그이를 성벽처럼 둘러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의 손을 차례로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감격에 젖은 눈들이 새벽빛에 번쩍이고 어깨들이 오르내렸다.

《손들이 얼었구만. 봄이라지만 백두산의 새벽은 겨울이지...》

그이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며 회보라빛으로 색조화를 일으키는 동쪽변두리를 굽어보시었다.

《날씨가 좋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이 탁 트이구, 오늘이야말로 해돋이의 절경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전번에 내가 본 해돋이순간의 날씨도 오늘처럼 쾌청했습니다.》

순간 박진호는 뇌리에 섬광이 번쩍이었다. 구름한점 없는 하늘! 해돋이의 극치!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름을 형상세부로, 공간처리세부로 생각

하지 않았던가. 방금도 구름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도식이 아니었던가...

《아, 시작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 감탄조로 말씀하시었다.

회보라색속에서 진홍색보석같은것이 불끈하더니 붉은 줄을 쭉 긋는다. 그것이 확대되면서 하늘과 땅, 밀림의 바다, 천지를 붉게 채색한다. 그러나 아직 태양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긴장된 몇초가 흘렀을 때 눈부신 빛발이 확 비쳐졌다. 그 빛의 형체는 불쑥불쑥 솟구치며 더욱 눈부신 열광을 내뿜는다.

박진호는 가슴 벅찬, 뭐라고 형언할수 없는 환희에 휩싸였다.

아, 눈부시기만한 저 태양! 천하를 녹여버릴듯한 열정, 오직 붉은색으로만 물들이는 순결, 세상 만물을 다 끌어당기는 매혹...

김정일동지께서 격정을 터치시었다.

《백두산의 해돋이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내가 본 해돋이가 바로 저것입니다. 해돋이를 보면 우리 수령님이 생각납니다. 자주시대를 밝힌 수령님은 인류에게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인간 태양이십니다.》

저길 보시오.》

그이께서는 팔을 쭉 펴시여 백두대지를 가리키시었다.

《저 대지, 밀림의 바다는 **김일성**광장을 지나며 수령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치는 우리 혁명무력의 열병대오를, 인민들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그랬다. 태양은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수령님 그대로이신 **김정일**동지이시었다!

박진호는 그이를 났을 잃고 우러렸다. 번쩍이는 안광, 열정의 미소... 빛발은 그이께서 발산하고 있었다. 그이는 눈부셨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소어린 눈길로 창작가들을 둘러보시었다.

《다시 백두산해돋이를 보니 말이나 글로써 그리고 그림으로도 형상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시기의 이름난 시인 김황원이 부벽루에 올라 평양의 절경이 하도 아름다워 시를 지으려고 붓을 들었으나 몇자 쓰고는 글줄이 막혀 자기의 무능을 한탄하며 붓을 꺾어버렸다는데 하물며 천하제일장관인 백두산해돋이를 그대로 그린다는것이 어복하겠습니까. 동무들의 고충이 심분 이해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려시기도 아닙니다. 김황원이는 붓을 꺾었다지만 우리는 더 자신있게 틀어쥐여야 합니다.

이미 말했지만 불가능을 몰라야 합니다. 풍경화에서도 우리는 세계의 앞자리에 서야 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

했습니다. 로씨야에 파도를 잘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생을 바다에서 살며 진지한 탐구를 했습니다. 지어 그는 파도를 그리는 법칙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 만수대창작사의 화가들에게 그를 롱가해보라고 했더니 파도를 훌륭하게 그렸습니다. 결심하면 된다는 진리입니다. 하물며 인민군대의 한다하는 창작가들인 동무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백두산해돋이>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이께서는 력점을 찍으시고 손세를 빠르게 쓰시며 열정을 터치시었다.

《나는 미술분야에서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미술종류의 개척이 절실하다는것을 주장합니다. 말이나 글로, 붓으로 할수 없는것을 컴퓨터로 할수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박진호동무가 적지 않은 나이에 컴퓨터를 정통했다는것을 들었을 때 정열과 시대적요구에 민감한데 대해서 탄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보니 컴퓨터를 창조의 보조적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것 같습니다. 허허.》

그이께서는 웃으시였으나 박진호는 자신을 모질게 타매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뇌리에는 맹렬한 불꽃이, 창작적령감이 번쩍이였다. 고상한 예술형상이란 심원한 리성과 번개같은 감성의 교차속에 창조되는것이다.

문득 엄국철장령이 태양의 눈부심을 감수할줄 모른다고 질책하던 말이 떠오른다.

(아,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이 새벽에 백두산에 오르신것도 그때분이 아니라. 빗발을 안고 오신분!)

눈물이 콧 솟구친다.

박진호는 한없는 경도감을 안고 **김정일** 동지를 우러렸다. 앞이 어룡거릴뿐 보이지 않는다. 눈물 때문일까? 그러나 그는 보고 있었다. 눈부시여 태양은 선뜻 마주볼수 없지만 태양이 어디 있는가를 알수 있는것처럼!

×

태양은 눈부심이다! 눈부심은 빛이다! 빛은 빛으로 그려야 한다!

박진호는 컴퓨터와 마주 앉아 최신화상처리프로그래밍으로 태양을 형상하느라 시간 가는줄 몰랐다. 몸은 비록 평양의 창작실에 왔지만 지금도 백두산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해돋이를 볼 때의 그 흥분, 그 위치에 있는 심정이였다. 비행기에서 내려 곧장 창작실로 달려온지도 한달! 하지만 그는 시간도 백두산에서 맞던 해돋이순간, 그 시간에 살고있었다.

그사이 강정구며 박창준, 김준오들이 화면을 보며 《성공입니다!》하고 감탄을 터뜨린 일도 있었으나 박진호는 머리를 저었다. 완전무결해야

한다! 진짜 백두산해돋이처럼!

《여전하구만.》 하는 석심한 엄국철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벌떡 일어서던 박진호는 《아!》 하며 비명을 터뜨렸다.

《아니 왜 그러오?》

엄국철이 황급히 부축해 주었다.

《다리에 쥐가...》

《가만 있소.》

장령은 오금을 꺾고 앉아 손바닥으로 장판지의 힘살부위를 힘껏 문질렀다. 몹시 아파 얼굴을 찌프렸다.

《2분간만 참소. 동문 오늘이 일요일이란것도 모르지. 너무 무리하거든.》

장군님께서 걱정하시오. 백두산에 갔다 온후 한달이 되도록 소식이 없는걸 보면 박진호동무네가 이번에 잡도리를 단단히 한것 같다고,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야겠다고 나에게 가보라고 하셨소.》

《!》

불몽치 같은것이 울컥 치민다.

《자, 이제 풀렸을거요.》

다리를 움직여보니 찢은듯 아픔은 사라졌다.

박진호는 신통해서 고개를 기웃했다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좀 봐주십시오.》

《허, 동문 그저 그림이군.》

하면서도 엄국철은 컴퓨터를 주의깊게 보았다. 수북한 눈섭이 구뿔거리고 결단이 느껴지는 입술이 움쭉하였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입술이 들렸다.

《내 생각에는 한결 원숙해졌다고 보오. 구름을 없애니 얼마나 시원하오. 창창한 미래를 밝히는 태양의 솟음이 더 의미있게 느껴지는군. 태양의 형태를 둥글게 주지 않고 빛으로만 형상한것도 좋소. 그런데 말이요. 하늘이 아직 어두운것 같소. 밝게 했으면 어떨가?》

《그러면 대조가 약해져서 태양이...》

《대조? 미술적으로는 그렇단말이지. 하지만 집계적으로 토론해보오. 어쨌든 오늘은 쉬오.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그때에야 박진호는 다시금 오늘이 일요일이라는것을 상기하였다.

《쉬겠습니다.》

엄국철은 그제야 마음이 놓여 고개를 끄덕였다.

《집사람과 함께 가오. 지금 그가 특식을 해가지고 와서 창작가들을 대접하고 있소. 미모도 마음도 하나같은 녀성이더군. 내 이리로 보내겠으니 기다리오, 딸이 아버지를 무척 보고파한다는것도 생각해야지.》

그가 간후 인차 안해가 조용히 들어섰다.

《수고했소.》

안해는 수집어하면서 슬며시 화면에 눈길을 준다.

《어떻소?》

안해는 검고 그윽한 눈을 깜빡거리다가 작고 선명한 입술을 조심히 열었다.

《하늘이 더 밝았으면 해요.》

(영?!)

박진호는 신통히 엄국철장령이 하던 말과 일치한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근거는?》

《태양은 맑은 날일수록 더 눈부시지 않아요. 쳐다볼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진리다. 진리는 원래 단순하다. 그러나 심원하다.

《고맙소.》

《아이참.》

안해는 처녀시절처럼 수집어하며 얼굴을 붉혔다.

×

...무한대로 들리운 창창한 하늘, 붉게 물든 백두대지, 창검마냥 우뚝 솟은 천연바위, 골짜기에 박인 눈, 천지로 넘쳐드는 안개파도, 홍보석처럼 빛을 반사하는 부석...

눈부신 태양이 솟아오른다.

가슴이 탁 트이며 시적경정이 북받친다. 붉은 기를 펄펄 날리며 백두산정으로 치달르는 인민군 군인들은 작품의 주제사상을 유감없이 부각시키고 있다. 그들이 웨치는 환호성도 금시 들려오는 듯...

그림에 심취되시었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해돋이 순간에 백두산마루에 서있는것 같은 느낌이 드시었다.

《화홀경입니다. 정말 생동합니다. 하늘이 탁 트

인것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태양도 눈부신 빛발로 원숙하게 형상하였습니다. 생동합니다. 근경에 그려진 부석은 손을 내밀면 잡힐것 같습니다. 서리에 노을이 반사되는 순간을 잘 포착했습니다. 마치 금돌처럼 번쩍거립니다. 세부들이 좋고 조형예술적으로 완전히 조화되었습니다. 작품은 성공되었습니다. 걸작입니다! 새것이 탄생하였습니다. 역시 인민군대가 다릅니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미술분야에서도 인민군대가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기쁨니다. 창작가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박진호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과연 저 그림이 어떻게 창작되었기에 창작가들이 평가를 받는단 말인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만족하시여 다음말씀을 이으신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민군대창작가들이 통장훈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도약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진호동무.》

눈물이 뿌연게 앞을 가린다. 도약, 그것은 미술적인것을 초월한 인간도약이었다.

박진호는 끝없는 송구스러움과 행복의 무아경에 잠겨 그이를 우러렀다.

환히 웃고계시는 그이, 해빛같은 미소... 태양의 빛도 무색할 따스함과 애무, 믿음과 기대, 기쁨... 태양의 빛이 7색이라 하지만 우리의 인간태양은 그 7색을 초월한 빛을 뿌리고 있는것이 아니라.

문득 그림이 미완성이라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파도쳤다. 아무리 화필이 재치있다면, 이 세상 최첨단기술을 다 도입한다면 천하절세의 위인, 백두산장군의 위대한 형상을 화폭에 담을수 있겠가? 백두산장군이 느끼는 백두산해돋이의 멋이며 정서와 뜻을 다 그릴수 있리라. 다만 눈부시다는 것밖에는 달리 표현할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가사

사랑하는 내 조국의 수도여

전 진

령장의 사열을 받은 크나큰 기쁨안고
백승의 근위병들이 평양거리 지난다
반갑구나 사랑하는 내 조국의 수도여
총잡고 너를 지킨 수호자의 인사받으라

눈앞에 그려만 봐도 용맹의 힘이 솟아
언제나 이 심장속에 너를 안고 살았네

어디 보자 자랑많은 사회주의수도여
총잡고 너를 지킨 수호자의 긍지넘친다

원수벌 빛나는 기발 진두에 휘날리며
불굴의 영웅도시를 위훈으로 빛내리
번영하라 영광넘친 강성대국수도여
총잡고 너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 살리라

우리 당의 모습

신문경

대건설의 불꽃튀는 조국을 안고
밤을 지새우며 내 요람 지켜주던 당중앙불빛
그 빛발로 내 눈동자에 새겨진 당은
따뜻하고 자애로운 어머니 모습이였다

그날엔 내 미처 모르고 살았구나
어머니 우리 당의 정깊은 미소속에 비낀
힘과 의지
그 따스한 사랑을 품어주는
신념과 열정을

오, 내 어찌 다 알수 있었으랴 당이여
내 머리맡을 더웁혀주던
그 따사로운 손길로
야전차의 차창에 성예를 녹이며
전선길의 최선두에 선 그대의 마음을

내 어린날 전해들던
당중앙집무실의 그 쪽잠마저
바람부는 전선길에서 드셔야 했으니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와 함께
당의 중대사들이 전선길에 있었나니

세일수 없노라 정녕코

가사

한 인간의 운명을 두고도
온밤을 지새우던 당이여
민족의 운명을 안은 생사판가리 길에
그대 지새운 밤 그 몇천밤인지

불같은 사랑을 안고 전선길에서
이 땅의 눈과 비를 다 맞는 당이여
그래서 무심히 보던 아이들의 웃음마저도
그대 로고로 눈물겹게 마음에 젖어들고
전선길의 그 심혈이 뼈저리게 안겨와
걸음걸음 그대 안녕지켜 참못들거니

이 세상 천만자루 붓을 다 모아도
그대 위업 다 그려낼수 없는 당이여
가장 뜨겁고 자애 깊은 모습우에
가장 굳세고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진 조선로동당이여

그 모습을 끝없이 마음속에 그리며
이 땅을 가꾸리라
아름답게
굳건하게
로동당시대를 내 조국에 새기리라

영원히 당기발따라

김 속

백두의 뉘를 안고 붉게도 타는
우리 당기발은 성스러워라
이 기폭에 충성을 맹세한 전사
시련의 그날에도 한길만 왔네
아 영원히 당기발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밝게 비치는
우리 당기발은 은혜로워라
이 기폭에 운명을 맡긴 인민은

천만복 누리며 새날에 사네
아 영원히 당기발따라

향도의 해발이 찬란히 비낀
우리 당기발은 위대하여라
이 기발아래서 나의 조선은
천만년 강국으로 번영하리라
아 영원히 당기발따라

눈물 흘린 표충비

사명대사(1544~1610)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서산대사와 함께 승려들로 의병대를 조직하고 승병의 부총섭이 되어 왜놈들을 몰아내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특히 능숙한 외교활동으로 왜놈들의 흉계를 짓부시고 굴복시키는데서 이름을 떨친 애국적인 의승이다.

표충비는 이 사명대사의 공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왕조말기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의 홍제사에 오석이라는 석재를 다듬어 세운 비라고 한다. 일명 사명대사비라고 하는 표충비에는 오래전부터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한출현상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인데 돌을 다듬어세운 표충비가 가끔 땀을 흘리곤 한다는 것이다.

이 표충비가 처음 한출현상을 나타낸것은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때였다.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구호를 들고 일떠선 애국적인 농민군을 봉건정부가 파견한 군대들이 무참하게 진압하였을 때 한출현상이 나타났는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때 표충비가 흘린 땀이 자그만치 일곱말 서되나 되었다고 한다.

그다음 한출현상이 나타난것은 을사년의 치욕과 경술년의 《한일합병》때였고 해방후 괴뢰도당의 《5. 10단선》과 《3. 15부정선거》때에도 있었다고 한다. 가깝게는 《12. 12숙군쿠테타》때에도 있었고 주체86(1997)년 3월 한보사태와 비자금사건으로 남조선에서 정국이 위기로 치닫고 있을 때에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땅속에 묻힌 사명대사가 참을수 없어 분노를 터뜨리는데서 오는 땀이라고 한다.

표충비가 땀이 아니라 눈물을 흘린적이 있는데 그런 일은 두번밖에 없었다고 한다.

처음은 을유년인 주체34(1945)년 8월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이고 다음은 무자년인 주체37(1948)년 9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고 공화국을 선포하신 때라고 한다. 그때 사명대사의 넋이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표충비의 한출과 무출(눈물을 흘리는것)현상은 신통히도 나라의 길흉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나곤 하였다. 그래서 역대 통치자들은 표충비의 한출현상을 몹시 두려워 하였다.

해방전 표충비의 한출현상을 몹시 꺼린 일제는 이를 막기 위해 진등산의 정기가 흘러와 뭉친 곳

에 자리잡은 표충비의 뒤에 수많은 철근을 박아 비의 《기》를 차단하고 그우에 공장들과 일본인 관사, 지서들을 설치하고 련못까지 메워버렸다.

그랬건만 표충비는 그후에도 계속 땀을 흘리고 비주변에 살던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자식을 본자가 없었다고 한다.

지금 있는 무안리파출소건물도 그때 지은 지서라고 한다.

이 파출소에는 병운이라고 하는 경찰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 표충비를 감시할 임무를 맡고 있었다.

여기에는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어느 경찰관학교를 졸업하고 이 파출소에 배치된 병운은 첫날부터 소장에게 굽신거리고 발라맞추고 꼭돈을 찢러주어 환심을 샀다. 그것은 자기에게 쉬운 일이 차례지게 하려는 속심이 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소장은 마음이 엉큼한지라 그에게 제일 힘든 이 표충비의 감시를 맡기었다. 그러면서도 소장은 능청스럽게 이런 말을 하였다.

《병운군을 생각해서 내 특별히 표충비를 맡기네.》

《예? 표충비라니요?》

그때까지 표충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던 그는 의아해서 이렇게 되물었다.

소장은 표충비에 대해 대강 설명하고나서 《별로 군이 할 일이 없네. 다리없고 말 못하는 돌비석이 어디로 달아나길 하겠나, 말썽을 부리겠나. 그저 심심풀이로 하루 한번씩 올라가보면 될걸세.》 하고 말하였다.

병운은 소장을 매우 고맙게 여기었다. 돈을 보고는 부처님도 웃는다더니 역시 퇴물의 힘은 막강한것이어서 그에 녹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며 자기의 꾀바른 처사를 두고 흐뭇해하였다.

턱이 뾰족하고 몸이 갱빳한 그는 어릴 때부터 건달이어서 놀기를 좋아하였고 돈의 힘과 맛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느님은 무엇이고 신령님은 대체 무엇이나? 돈이면 못하는 일이 없는데 성경은 무엇이고 레배는 또 무엇인가고 생각하는 병운이었다. 그의 이 무신론적인 견해는 사상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건달과 부패타락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건달기를 묘하게 숨길줄 알았다. 위낙 머리는 좋지 않는데 남을 속이고 자기를 위

장하는데는 이골이 난 속물이었다. 그런데 이런 병운이가 소장에게 감쪽같이 속히우고 말았다.

사실 무안리파출소는 이 표충비때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파출소의 요시찰명단 제일 첫자리에는 바로 이 표충비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의식도 없고 생명도 없는 돌덩이에 불과한 표충비가 사람과 나란히 한명단에 그것도 제일 웃자리에 올라 있다는것은 참으로 가관이다.

병운은 처음엔 소장의 말을 사실로 믿고 좋아하였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파출소의 속대를 알게 되자 게두덜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엽질러놓은 물그릇이요, 쏜화살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병운은 눈이 오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춘하추동 하루에도 몇번씩 홍제사 표충비에 가서 정신나간 놈처럼 멍하니 그것을 들여다보곤 하였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표충비에 한출현상이 나타나면 땀을 흘린 량과 시간은 물론 그 땀의 화학적성분까지 분석하여 상급에 보고하는 동시에 리내주민들의 동향까지 내탐하여야 하였다. 그러니 말 못하는 표충비에서 쉬운줄 알고 선뜻 말아나섰던 병운은 어느 하루도 발편잠을 잘수 없었던 것이다.

피뢰당국에서는 《국가》위기나 동란과 때를 같이하여 한출현상이 나타나곤 하니 늘 이 표충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더우기 요즈음에 와서 한보사태, 비자금사건, 삼풍백화점붕괴와 성수대교붕락 등 련이어 세상이 깜짝 놀랄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표충비에 한출현상이 나타나곤 하여 담당경찰관뿐아니라 온 파출소가 홍제사절간에 가서 살다싶이 하였다.

주체86(1997)년 10월 어느날 밤 병운은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홍제사절간으로 올라갔다. 소장한테서 된육을 먹은지라 주야로 표충비감시를 하였다. 마당에 들어서니 표충비쪽에서 바람결에 향내가 실려왔다. 누가 와서 또 제를 올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그는 바빠 달려갔다.

멀리서 얼핏 보니 어둠속에서도 무안면 고라리에 있는 덕명사의 녀승이라는것이 알렸다.

이 녀승은 매달 한주일씩 표충비에 와서 향을 사르고 제를 올리곤 하여 병운에게는 퍼그나 눈에 익은 모습이였다. 이런 사람은 이 녀승뿐아니라 다른이도 몇이있었다. 밀양시 무안면주민들은 사명대사를 자기 고장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어 때때로 표충비앞에서는 손님들이 찾아와 향을 태우고 술을 따르면서 제를 지내는 모습을 볼수 있는것이다. 이 고장의 축제인 아랑제와 룡호놀이도 다 표충비앞에서 점화식을 가진 다음에 시작한다고 한다.

병운은 발자국소리를 죽이고 발뽕발뽕 녀승의 뒤로 다가갔다. 녀승이 제를 올리며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알아두는것이 민심동향을 내탐하는데서는 중요한 자료였다.

은실같은 유정한 달빛이 누리를 밝게 비치는 깊은 밤, 표충비앞에 단아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녀승이 가락맞게 두드리는 목탁소리는 조용한 절에 그윽한 정서를 자아냈다.

병운은 표충비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러나 녀승은 아는지 모르는지 백팔념주를 매만지며 무엇이라고 주문을 외우다가는 목탁을 두드리곤 하였다.

순간 병운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표충비안에서 푸른빛이 환하게 흘러나오는것이였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그 빛은 표충비가 내는 빛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흘러온 정기가 반사되어 내는 빛이라는것이 력연하게 알렸다.

그는 부산스레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였다. 그바람에 인기척을 느꼈는지 녀승은 조용히 눈을 뜨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아닌 밤중에 녀자의 거동을, 그것도 불타의 진리를 다른다는 뜻이 깊은 녀승의 행동을 몰래 훑쳐본다는것이 무안쩍었던지 병운은 모르쇠를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던 그는 또한번 놀랐다.

북쪽에서부터 은하수가 남으로 쭉 흘러내렸는데 그것이 표충비우에서는 아래로 활동처럼 휘여져내린것이였다. 더 신기한것은 바로 거기서 별찌 하나가 빛을 뿌리며 무안리 중천으로 떨어져내리는것이였다.

녀승도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참으로 침착하였다. 조금도 서두르거나 당황해하는 기색이란 없었다. 고상하고 위엄이 풍기는 녀승앞에서 병운은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그는 녀승이 그 무엇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다 들어줄것 같은 위압감에 사로잡혔다.

이때 은방울 굴리는듯한 녀승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저 표충비를 들여다보세요. 맑은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예?!》

병운은 비를 들여다보았다. 비 전체에 물기가 어려 달빛이 번들거리였다.

《또 한출이 시작되었구나!》

그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였다.

《저것은 한출이 아니라 루출입니다. 사명대사의 뉘이 노하여 흘리는 땀이 아니라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눈물이라구요?》

병운은 녀승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서당 개도 삼년이면 풍월을 짓는다고 표충비를 담당한 지도 어언 10년이 넘었으니 그에게도 제판의 일가견이 있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는 아이처럼 녀승의 그 맑은 눈빛 앞에서는 마음이 웅송그러져서 한마디 웅대도 할 수가 없어 고분고분 그 녀자의 말을 따랐다.

그 녀자의 말은 하늘에서 울리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리었다. 아니 하늘의 계시를 받고 천사가 내려와 자기에게 알리는것처럼 생각되었다.

《표충비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녀승의 목소리가 희뵤히 밝아오는 새벽대기속에 울리었다.

병운은 무릎을 꿇고 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비에 맺힌 물방울은 볼수록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물방울들은 점점 커지다가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비석에 새겨진 글자의 깊은 홈으로는 조금도 흘러들지 않고 오직 내려 쓴 글자사이로만 흘렀다. 이전의 한출현상과는 전혀 달랐다. 아침해빛이 비치자 물방울들은 반짝반짝 빛을 뿌리며 서로 합쳐져서는 신통히도 꽃망울모양으로 되었다. 그러다가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듯 한량없이 팔팔 끓을 이루며 흘러내렸다. 정말 감격에 겨워 표충비가 우는것만 같았다.

《이것은 사명대사님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녀승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대사님이 기뻐하시는것입니까?》

병운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나라에 큰 경사가 생긴것만은 분명해요.》

《경사가 생겼다고요?》

병운은 도무지 녀승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병을 꺼내들었다. 표충비에 맺힌 물방울을 받아 분석하고싶었던 것이다.

자그마한 약병같은 병은 이런 때에 쓰려고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상비품이었다.

루출은 두번밖에 없었다는데 무슨 경사가 났을까? 늘 나쁜 일만 생기는 이 땅에 경사가 생겼다니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병에 물이 가득차오르자 그것을 가지고 그 는 자리를 떴다.

밀양시 보건소를 통해 경남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표충비에서 흘러내린 물을 분석하여보았다.

그것은 땀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순수한 물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염분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리소찌무라는 살균제까지 있었다. 그러니 분명히 눈물이었다. 땀이라면 염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칼리움 그리고 암모니아, 젖산, 칼슘, 마그네시움과 함께 크레아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야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것이 없었다.

병운은 표충비의 루출현상을 분석표와 함께 상급에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그날부터 복닥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청은 물론 《안기부》와 알지 못할 여러 기관들에서 장차관들이 직접 나타나 파출소 소장을 불러들이고 병운이를 불러들이었다. 그러더니 이 모든 사실을 절대비밀에 붙이라고 하였다. 표충비감시대장에도 루출량을 극히 줄여서 기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진실은 절대로 숨길수 없는 법이다. 며칠 지나 모든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바로 그날 나라에 경사가 생겼던것이다. 경사도 이만저만한 경사가 아니라 민족의 대경사, 인류의 대경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소식-특별보도가 발표된것이였다.

사람들은 표충비의 루출현상을 전해들으며 사명대사의 령험이 깃든 비가 분명하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이런 신기한 현상은 표충비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라북도 모악산에 있는 금산사의 미륵전 불상에서도 있었고 왜놈들과 싸우다가 순국한 홍일초의병대의 공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서해의 소난지도섬에 세운 비석에서도 똑같은 루출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눈물은 웃음보다 기쁨을 잘 표현한다. 감정이 격동되었을 때, 크나큰 기쁨으로 하여 흥분을 억제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 표충비도 이런 기쁨의 눈물을 흘린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당총비서 추대는 산천초목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크나큰 기쁨이였고 경사였으며 조선의 영광이였다.

김우경

어머니

김 철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졌건만
지금도 아이적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면 숨질듯
잠결에도 그 품을 더듬어 찾으면
정겨운 시선은
밤깊도록 내 얼굴에 머물러 있고
살뜰한 손길은
날이 밝도록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나니
이 어머니 정말
나를 낳아 젖먹여준 그 어머니가...

내 조용히 눈길을 들어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쳐다보노라
그러면... 아니구나!
이 어머니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땅우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안아키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나를 굽어보나니

그 시선 한번 강토에 비끼면
황량하던 폐허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고
거인의 그 손길 창공을 가리키면
전설속의 천리마 네굽을 안고나는
아, 이런 어머니를 내 지금껏
아이적목소리로 불러왔던가
이런 어머니의 크나큰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 있었던가

송구스러워라 이 어머니를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다는것은
그러나 어이하리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여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거니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인류력사 백만년에 수억만의 어머니들이
그리도 애달프게 기원하던 아침이
오직 그대의 예지 그대의 신념
그대 필승불패의 향도를 따라
이 땅우에 찬연히 밝아왔나니

응석과 어리광만으로야 어찌
그대 사려깊은 눈빛을 마주볼수 있으랴
당이어 어머니시여
그대 현명한 스승의 시선
그대 로숙한 사령관의 안광이
저 멀리 내다보는 미래의 언덕으로
내 걸으리라-
그대 나를 위하여 마음 기울인
그 모든 낮과 밤을 다 안고 걸으리라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 숭엄하고 존엄높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그대의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흠여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시대의 명곡을 낳은 정교한 시

김순림

우리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위대한 향도의 해발을 받으며 태어난 가사 《오직 한마음》(백인준작)과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김두일작)는 시대의 명곡을 낳게 한 명가사이다.

시대를 선도하고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인 노래가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투쟁이 있는곳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곳에는 혁명적광만이 차넘치고 전투적열정이 끓어번진다.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는 오늘 선군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결사호전의 전투장마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고 있으며 선군시대의 진군을 고무하면서 온 사회에 혁명적분위기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의 노래가 선군시대의 힘있는 나팔소리로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하려면 먼저 명가사가 나와야 한다. 가사는 결코 가요음악의 종속물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가사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는 시문학의 한 분야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예술적풍격을 완벽하게 갖추고있어야 한다.》

가사가 정교한 시로 되려면 독창적으로 찾아진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 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만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가요 《오직 한마음》과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선군시대의 군대와 인민을 붉은기수호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비상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있는것은 위대한 향도의 해발이 밝혀주는 명가사창작의 원리를 구현하여 가사들이 독자적인 사상예술적풍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선군시대의 진군을 노래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는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명가사로 창작된 작품들의 사상예술적풍격을 되새기는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본다.

△ 가사 《오직 한마음》

가사가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려면 정서가 있어야 한다.

가사 《오직 한마음》은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시고 래일의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당과 수

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감정을 오직 한마음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일반화된 생활정서에 담아 당과 수령을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과 의지를 생동한 시형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지난날 가난과 천대속에 헤매이던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내세워주시고 가장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하여주신 아버지수령님과 당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체험으로 무르녹은 정서에 담아 노래하고 있다.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김일성원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목숨도 바쳐가리 오직 한마음

래일의 우리 행복 그 누가 지키라
로동당이 지키네 수령님이 살피시네
김일성원수님이 우리 앞길 밝히시니
영원히 변치 않을 오직 한마음

시인은 나라를 해방해주시고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당과 수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폐부로 절절히 느끼면서 여기서 시적계기를 잡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목숨도 바쳐가려는 충성의 한마음을 정서깊게 노래하면서 오직 한마음 수령님을 따라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구가하고 있다.

가사에서 노래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충성의 한마음은 우리 시대의 전인민적감정이다.

시인은 이처럼 우리 인민이 생활과 체험으로 간직하고 있는 시대의 지향과 념원에서 종자를 찾아쥐고 정서적으로 꽃피움으로써 가사가 시대의 서정을 뜨겁게 노래하는 정교한 시로 되게 하였다.

특히 가사는 3절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운것 없이 다 해내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을 뜨겁게 노래함으로써 시대앞에 웨치는 사상정서적주장을 더욱 뚜렷이 부각하고 있다.

세상에 두려운것 하나도 없네

산이라도 옮기고 바다라도 막으리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언제나 힘이 솟네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언제나 힘이 솟고 세상에 두려운것이 하나도 없다는 든든한 배심, 수령을 높이 모신 궁지와 자부심은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오며 공고화된 우리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시고 래일의 우리행복 지켜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가르침만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보다 행복한 래일이 온다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의 의지이고 신념이고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이며 가사의 사상정서적주장이다.

가사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통속적이며 간결한 형식속에 생동하게 구현함으로써 가사를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풍격을 갖춘 명작으로 되게 하였다.

△ 가사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가사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김두일 작)는 소박하고 진실한 생활적인 언어로 당과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군대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사상예술적으로 특색있는 훌륭한 작품의 하나이다.

가사는 풍요한 가을의 농장벌에서 느끼는 병사의 다감한 심리세계를 깊이 파고들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정서깊은 시형상으로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하늘엔 따사론 해빛넘치고
땅우엔 금나락 설레이네
농장벌 지나던 병사는
벼이삭 물결치는 소리를 듣네
아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
병사의 가슴에도 파도쳐오네

금과만경이 파도치며 끝없이 설레이는 농장벌을 지나던 병사-서정적주인공은 벼이삭 물결치는 소리에 가슴벅차오르는 충격을 받고 발걸음을 멈춘다.

기쁨과 행복, 끝없는 랑만으로 가득차 물결치는 전야의 한복판에 선 병사에게는 벼이삭 물결치는 소리가 단순히 자연의 설렘소리로만 감수되지 않았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아래 언제나 넘쳐나는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로 병사의 가슴에 세차게 파도쳐오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따사론 해빛이 넘치는 전야,

금나락설레이는 농장벌을 지나던 병사가 것처럼 심장을 짜릿하게 하는 충격에 겨워 발걸음을 멈추고 물결치는 벼이삭의 설렘에 귀기울이는것인가.

가사는 이에 대하여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개방해주면서 생활적으로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네벌김 매주고 떠날 때
푸른잎 흔들던 농장벌
수령님은덕에 황금이 되어
탐스런 포기마다 속삭여주네
아 이 땅에 수령님 베풀어주신
그 사랑 못잊어 설레이다네

군대는 인민을 돕고 인민은 군대를 끝없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미풍이 활짝 꽃피나는 흥겨운 모내기전투에 달려나와 애기모를 정성들여 옮겨주고 네벌김까지 다 매고농장벌을 떠날 때에는 푸른 잎 정답게 흔들며 바래주던 벼포기들이 오늘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황금이삭이 되어 그 사랑, 그 은혜를 못잊어 저러히도 설레이고 있지 않는가.

가사는 이와 같이 자연의 설렘소리를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주신 그 사랑 못잊어 설레이는》소리로 체험하는 병사의 내적심리세계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덕에 의하여 이처럼 풍요한 가을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 행복이 이루어질수 있었다는 사상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시인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탐구된 시적발견이 있다.

농장벌의 황금나락이 물결치며 설레이는 소리를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로 감수하고 그것이 농장벌을 지나던 병사의 가슴에도 파도쳐온다고 노래한것이야말로 생활에 대한 깊은 사색과 진지한 탐구없이는 찾아낼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시적발견인것이다.

가사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적체험은 기쁨과 행복감에 대한 감수로만 끝나지 않는다.

풍요한 농장벌에서 느끼는 병사의 심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체제의 빛깔이 있음으로 하여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더욱더 커간다는 데 대한 불같은 확신이며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혁명전사된 높은 궁지와 자랑의 표현인것이다. 이로부터 가사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만풍년든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선 병사의 충성심이 격조높이 노래되었다.

금나락 설레는 들판에서
병사는 감격의 노래부르네

이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한
만풍년 수령님은 안아오셨네
아 황금의 파도여 더욱 설레라
병사는 너를 지켜 충성다하리

시인은 우리 나라 농장벌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풍요한 가을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으로 하여 남달리 누리는 우리 인민의 행복과 기쁨,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살며 투쟁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병사의 정서적체험 세계를 통하여 시적으로 일반화하여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사에서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로 노래한 시적형상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국의 발전하는 모습으로 승화되어 안겨오는것이다.

여기에 또한 독창적인 시적발견을 시대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시적으로 형상한 이 가사의 사상 예술적성고가 있는것이다.

또한 가사는 소박하고 진실한 생활적인 언어표현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밝고 풍만한 정서와 생동한 표상을 안겨주는 시형상으로 특색이 있다.

가사의 시어들이 소박하면서도 형상적으로 잘 다듬어져있으며 여러가지 표현수법들이 효과있게 활용되고 있다.

가사의 1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소박하고 진실하면서도 구수한 언어표현들로 가득차 있는가.

가사의 첫 두줄에서 만물에 삶을 주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태양의 은혜로움을 《파사론》 해빛이라는 생활적이며 함축된 언어로, 황금의 파도가 물결치는 모습을 《금나락 설레이네》의 감칠맛있는 언어형상으로 훌륭히 표현하고 있다.

특히 가사에서 표현된 《하늘엔 파사론 해빛넘치고》는 자연의 태양에 비겨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높으신 은덕을 간결하고도 생활적인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을뿐아니라 《땅우엔 금나락 설레이네》라는 표현과 대조되면서 은혜로운 태양의 빛을 받아 황금나락이 기쁨으로 물결치며 설레이수 있었다는것을 시적으로 훌륭히 부각해 주고 있다.

가사는 대조법과 의인화, 상징법 등 다양한 표현수법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시의 사상감정을 전반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으며 시의 전반에 풍부한 정서적흐름을 잘 보장하고 있다.

가사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는 사상을 지내 로출시키지 말고 가사를 정서가 있게 형상적으로 쓸데 대한 독창적인 시가창작리론에 기초하여 창작된 훌륭한 성과작이다.

위대한 문학예술의 영재, 향도의 태양아래 싹트고 자라난 명가사는 명곡을 낳게 한 사상예술적기초로 되어 명작을 탄생시켰다.

우리는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 명가사를 창작하던 그때의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백두산선군령장을 우러러 선군시대를 노래하는 명가사를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위업을 노래로 힘있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

친근하고 위대한 령도자

부르나 찬드라 샤르마

김정일, 당신은
친근하고 위대한 령도자
인류의 걸출한 수령
주체조선의 최고령도자
경례를 받으시라
인사를 받으시라

당신은 반제투사
조선의 향도성, 조선의 수호자
자유와 자주권의 옹호자
세계적권위를 지니신 탁월한 수령
경례를 받으시라
인사를 받으시라

당신은 조선의 심장

사회주의의 령도자
당신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에 경의를 표하노라
장구한 혁명투쟁에 경의를 표하노라

당신은 시대의 광명성
주체의 진로를 밝혀주시는분
사회주의는 우리의 목표
주체는 우리의 진로

당신은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
사회주의의 기상
세계를 움직이시는 주체사상의 화신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노라

(네팔)

철령은 앞에 있다!

오재신

봄이면
바위즈렁 낭끝에 진달래 불불고
겨울이면
박달나무 얼어터지는 철령
나는 지금 너의 마루우에 섰다

굽이굽이 아흔아홉굽이
그 어느 바위터슬에 간직했느냐
설레이는 수림의 바다
그 어느 갈피에 새겨두었느냐
우리 장군님 헤쳐가신 준엄한 전선길
선군령도의 그 거룩한 자욱자욱을

눈보라 사납던 날에도
내 사는 내 집은 따스해
불구름 가까이 밀려들던 날에도
내 머리우에 하늘은 푸르러
내 다는 몰랐나니

너 말해다오
그 불구름 그 광풍이
어떻게 선군장검의 칼날에 맞아
흩어져 날려가고
어떻게 그 장검의 서슬푸른 빛발이
낭끝에도 진달래를 피운 봄의 훈향으로
이 땅에 넘쳐 흘렀는지

내 호흡하는 이 맑은 대기속에
꼭 차흐르는
선군의 거세찬 숨결이
어떻게 승리의 거봉으로 너를 안아세웠는지

백두대산줄기
그 수천수만봉이들을 거느리고
그날의 사생결단의 의지로 번개치며
대적을 맞받아 한칼에 베인
선군령장의 기상 오, 철령이여

허리에 구름발을 휘감고
하늘을 찌른 네 마루에 올랐건만
내 올라야 할 그 철령은
아직도 앞에 있는듯

우리 장군님 이 시각에도
이 나라 높고낮은 고지와 봉우리들을
철령! 네 높이로 안아세우시며
선군령도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 계시거니

내 천번을 오른들
만번을 다시 오른들
우리 장군님 받들어올리시는
너의 그 마루우에 다 오를수 있으랴

내 이제야
너의 기슭에 첫 걸음을 뒀었나니
내 한생 오르고 올라야 할
그 아득한 높이에
너는 솟아있다

침략의 불구름 몰아내며
우리 장군님 계시는 곳
아아, 철령은 앞에 있다!

가사

오성산마루에 수리개날으네

박인파

굽이굽이 아득한 오성산마루우에
억센 나래 펼치고 수리개날으네
내 조국의 최전연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병사의 궁지안고 수리개날으네

장군님 자욱어린 오성산 칼벼랑에
억센 깃을 다듬은 수리개날으네
주신 사랑 용맹되어 두려움을 모르는

병사의 기상안고 수리개날으네

선군의 메부리 오성산 산발우로
폭풍을 맞받아 수리개날으네
장군님 모신 조국 불새되어 지켜갈
병사의 신념안고 수리개날으네
아 선군의 하늘가에 수리개날으네

나의 시어머니

장기성

정옥현은 당원이 되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간고한 시기에도 가정부인이지만 기증기운전공으로 만근을 하였고 최첨단 기계설비제작에서 조립작업반장인 남편과 함께 크게 기여한 그의 성실성과 책임성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처녀시절부터 것처럼 소망하던 당원의 영예를 지닌 것이었다.

그에게 당원증을 수여하며 연합당위원회 책임 비서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동무의 시어머니 김순임동지처럼 당생활을 하시오.》

순간 옥현의 온몸이 확 달아오르며 눈물이 나왔다.(아, 나의 시어머니!)

1

《애아법이 왜 이렇게 늦냐?》

시어머니 김순임이 걱정조로 묻는다.

《글쎄요. 아직까지 직장에 있지는 않겠는데요.》

옥현이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와 남편 전일범은 한직장에서 일했다. 전일범은 조립작업반장이고 옥현은 기증기운전공이었다.

《퇴근할 때 무슨 말 없었니?》

《예, 별말 없었어요.》

《...》

《...》

달빛에 벽시계 시침은 보이지 않아도 열두시가 거의 되었음직 했다.

그때야야 귀에 익은 문기척소리가 났다.

옥현이 등잔불을 살리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아들을 나무랐다.

《왜 집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나.》

《안됐어요. 퇴근길에 수산협동 선장을 하는 명수를 만났는데 배기관이 고장났다고 걱정을 하길래 고쳐주다니니...》

《그래 저녁은 먹었냐?》

《못먹었어요. 잠깐 봐주면 될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구만요. 배에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선장과 둘이 수리하다니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저의 집으로 가자고 끄는걸 그만 두었어요.》

오랜 조립공인 일범은 무슨 기계든 그 속대를 환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고장수리를 부락하는데가 많았다.

옥현이 이미 차려놓았던 밥상을 들여왔다.

길쭉구일사귀에 강냉이가루가 약처럼 섞인 밥

벅에 근대무침 한접시, 파랭국이 전부였다. 옥현은 남편에게 그런 밥상을 들여다주는 것이 차마 못할 짓을 하는 것만 같아 인차 눈길을 돌리었다.

일범은 밥타발을 하는 법이 없었다. 엄혹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지금 공급소에서 식량을 거의나 타지 못하지만 자신은 작업반장이다보니 직장에 노상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안해마저 직장에 나가니 이 정도로 끼니를 예우는 것도 70로인인 어머니의 수고의 덕인 것이었다.

옥현은 벌써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별이를 해서라도 식량을 해결하며 늙은 시어머니를 쉬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승인하지 않아 그대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어머니, 선장 명수가 말이에요. 이제부터 낙지잡이 철인데 내가 휴가를 받고 저희 배에 올라 낙지잡이를 해서 식량값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어쩔가요!?》

《...》

어머니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응대가 없었다. 옥현은 귀가 번쩍 트이는 소리여서 어머니가 동의해주기를 내심 바랐다. 그런데 한동안 지나서 하는 어머니의 말은 동문서답이었다.

《공장에서 아직까지 만들어본적 없는 새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지?》

《...》

이번에는 아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어딘가 긴장해진 표정으로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옥현은 시어머니의 그 말이 공장이 새로 과제 받은 최첨단기계설비생산을 두고 하는 소리임을 대뜸 알수 있었다. 그러니 현대과학과 기술의 종합체라고 할수 있는, 공장의 그 누구도 한번 본적이 없는 어려운 기계설비생산준비를 하는 때에 조립작업반장이라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는 핀잔인 셈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그래선 안돼.》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표정은 근엄한 듯 했다.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즉시 자기의 의향을 철회했다. 한번 아니 하면 그만인 어머니의 성미를 너무도 잘 아는 아들인 것이었다.

옥현의 입에서는 부지중 호- 하는 한숨이 나왔다. 갑자기 방안의 공기가 희박해진 듯 싶었다.

남편이 밥상을 물리기 바쁘게 옥현은 그것을 들고 어두운 부엌으로 내려갔다.

《애아범, 내 많이 생각해보고 하는 소린데 우리 집을 시내 변두리의 단층집으로 가는것이 어쩔까? 그러면 내가 염소도 치고 토끼, 돼지도 길러 식량보탬을 할수 있겠기에 그런다.》

시어머니의 이 소리를 등뒤로 들으며 옥현은 하마트면 밥상을 떨굴번 하였다. 속에서 불만이 확 치밀었다.

(무슨 당치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담. 이 좋은 다층살림집을 두고 단층집으로 가다니. 아이들 학교길이 멀어 지는건 어떻게 하고... 일흔살늬은이가 집집승은 또 어떻게 기른다고...)

옥현은 가슴이 활랑거리었다. 남편도 뜻밖이어서인지 선뜻 대답을 못했다.

2

옥현은 시집을 와서 10여년간 언제 한번 시어머니 의사에 맞서본적이 없었지만 이번 집문제만은 그대로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그는 아침출근길에 남편에게 단층집으로는 절대로 갈수 없다고 자기의 입장을 밝혔다.

일범은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어머니가 왜 그런 생각까지 했겠소. 나와 당신이 공장일에 전념하게 하고 아이들 배를 굶지 않게 하자는게 아니겠소.》 하는것이였다.

《물론 그래서이지만 안돼요. 그건 어머니를 쓰러뜨리는 짓이 되고 말지요.》

《...》

이때 같은 작업반동무들이 뒤따라 와 둘의 대화는 중단되고 말았다. 옥현은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시도를 저지시키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남편 전일범은 어머니를 혈육으로뿐 아니라 로당원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있었다. 어머니 김순임은 해방직후에 입당한 처녀당원으로 조국해방전쟁전부터 군관의 안해였으며 특류영예군인이 된 남편(2년전에 사망)을 부양하면서도 공장일을 계속하여 부직장장사업까지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것이였다. 그는 언제나 원칙적이였고 그러면서도 또한 사려가 깊었다. 전일범은 그런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면서 어머니의 의사는 모두 다 옳은것이라는 인식에 습관된 터였다.

옥현은 문득 아이들을 추동하여 시어머니의 마음을 흔드는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열살짜리 아들 은진이와 일곱살짜리 딸 은별이를 낳아 컸던것만 옥현이가 했을뿐 도맡아 키운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래서인지 두 애는 어머니보다 할머니를 더 따랐고 할머니 또한 그애들을 끔찍이 사랑하였다.

옥현은 점심시간에 학교를 찾아가 애들을 만나 할머니와의 《사업》준비를 시키였다.

저녁이였다. 옥현이 부엌에서 설것이를 할 때 딸 은별이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우리가 변두리 단층집으로 이사간다는게 정말이에요?》

《건 어디서 들었니?》

《어머니가 단층집에 가살면 좋다고 했는데 난 싫어요. 내가 학급반장인데 집이 멀어져 지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가지 말자요.》

《나도 그래요. 이 집이 좋은데 뭇 하려 비오면 길에 질적질적한 그런 곳에 가 살겠나요.》 은진이 협공하는 소리였다.

두 애는 어머니가 시킨대로 겨끔내기로 할머니에게 설복공세를 들이댔다. 옥현은 부엌거둬새를 끝냈지만 방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마음을 조이며 귀를 도사렸다. 이제 시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할까? 아이들이 내가 단층집에 가 살면 좋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뜸 아이들을 내세운 이 며느리의 속심을 간파했을것이다. 인생 칠십이면 귀신속도 안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됐다. 이제 그만 조잘거리려라.》

시어머니 대신 남편 전일범이 아이들을 자제시켰다.

《애에미야, 부엌일 끝냈으면 들어오렴.》 하는 시어머니의 소리에 옥현은 가슴이 선했했다. 옥현이 방에 들어와 앉자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오늘 지난시기 겪은 한가지 사실을 말해주겠다. 애아범은 이미 들어 알고 있지만 한번 더 들어들라.》

옥현은 긴장해졌다. 이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들을 통해 전달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대답으로 되겠기때문이었다.

《그때 우리는 황해도 토산에 살았었다. 은진이가 할아버지는 운수중대장으로 싸움터에 나갔으니 나혼자 어린 세자식을 데리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랐다.》

지금 평양에 사는 만이는 그때 다섯살, 영천고모는 한살, 그 사이에 세살짜리 딸이 있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온성의 시부모네 집인데 수천리 먼길이였다. 한살짜리는 등에 업고 세살짜리는 가슴에 안고 다섯살짜리 만이는 걸리웠다. 다섯살짜리의 보폭에 맞추는 걸음이니 하루에 얼마나 가겠니. 다섯살짜리 만이가 처음에는 들놀이라도 가는 기분으로 얼마간 걷더니 영 걸을 녀를 못하였다. 후퇴하는 낮모를 사람들이 하도 가궁하여 한동안씩 안아다주더구나. 나는 업고 안은 두아이를 얼마간 가서 길가에 내려놓고 다시돌파서 가서 다섯살짜리를 업어오곤 했다. 그렇게 걷다나니 하루에 시오리를 축내는것이 고작이였다. 나도 발바닥이 부르르치고 맥이 없어 걸음이 나가지 않더구나. 그래 하는수없이 10여일 걸어

곡산군 문양리어방에 이르러 한집에 사정을 하여 세살짜리 딸애를 맡기지 않을수 없었다. 전후에 그애를 찾으러 가니 그 집은 미국놈폭격에 맞아 집터도 남지 않았더라. 가지고 떠난 식량도 며칠 못가 떨어져 우리는 노상 굶다싶이 하며 걸었다. 인민군대들이 아이들을 업어주고 자동차에 태워 주고 먹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길가에서 굶어 죽고 일어죽었을것이다. 미제공중비적들의 폭격도 수십번 겪었고 동해바다를 길을 걸을 때는 놈들의 함포사격도 수없이 받았다. 그래도 나와 아이들은 한결음한결음 사지판을 걸어 두달만에 온성에 가닿았다. 나뿐아니라 수많은 부녀자들이 그렇게 간난신고하며 어려운 길을 걸었다. 무슨 힘이 그 간고한 길을 가고 또 가게 했겠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그 한가지 생각이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했다.

지금 우리 살림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그때에 비기겠니. 모두가 장군님정치를 잘 받들면 오들의 곤난을 이겨내고 잘살 날이 꼭 온다. 그런데 난 이제 늙어 공장일을 할수 없으니 은진이 아버지, 어머니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면 늙은 내가 가정사를 다 맡을수 있게 산을킨 단층집으로 가자는게다.》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이 먼저 반응을 했다.

《할머니, 단층집으로 가자요. 내가 아침에 지금보다 한시간 빨리 일어나면 돼요.》

은별이가 하는 소리였다.

《전 학교공부가 끝나면 놀지를 않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일손을 돕겠습니다.》

언제나 누이동생보다는 한박자 뜬 은진이가 뒤따라 호응하는 말이었다.

옥현은 시어머니가 따져물지 않아도 자기가 대답할차례라는것을 자각했다. 시어머니의 곡진한 그 심정에 가슴이 후터워나고 미국놈들때문에 세살짜리 딸을 잃은 영원히 아물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에 눈물이 났지만 고통에 번번히 잡숫지 못해 몸이 절반으로 줄아들고 잠들면 자주 신음소리를 내는 시어머니 건강을 해치는 일이 아닐가 하는 우려를 금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달리 대답할수는 없었다.

《어머니, 이사를 갑시다!》

3

공장에서 돌아온 옥현이 저녁을 지어놓고 돼지머리를 끓여준지 오래건만 염소 세마리를 끌고 산으로 올랐다는 시어머니는 돌아올줄 몰랐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그는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자 걱정끝에 불길한 예감이 불쑥 들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어느 골짜기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저도 모르게 호- 한숨이 나갔다.

남편은 이즈음 직장에서 숙식을 해가며 새 기계생산준비에 여념이 없고 오늘따라 아이들도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아직 돌아오지 않아 옥현은 홀로 속을 썩여야 했다.

한동안 지나서야 왼쪽골짜기에서 염소울음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려왔다. 옥현은 그쪽으로 내달았다. 이미 날이 어두워 오솔길이 잘 보이지 않은데다 움푹 패인 곳과 돌부리들이 있어 몇번이나 어꾸러졌다. 눈앞에 희끗희끗한 염소들을 앞세운 시어머니의 거뭇한 모습이 나타나자 옥현은 눈물이 불쑥 났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옥현의 음성은 물기에 젖어 울렸다. 시어머니는 한어깨에 큼직한 짜리바구니를 메고 등에는 풀마대를 지고 있었다.

《해지기전에 내려오려했는데 먹을만한 산나물들이 눈에 띄우더라니...》

옥현은 시어머니가 지었던 풀마대와 나물바구니를 넘겨받았다. 묵직했다.

(아, 늙은이를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옥현은 자기가 주부역할을 못해 늙은이를 고생시킨다는 자책에 가슴이 무죽해났다. 집을 이사하여 보름나마 시어머니는 쉬임없이 일손을 놀렸다. 이사오자마자 재봉기와 옷가지들을 팔아 현 재 젖을 짜는 어미염소와 새끼 암염소 두마리 그리고 새끼돼지와 중토끼 다섯마리를 샀다. 이미 살던 집에서 쓰던 집짐승우리가 그 이상은 수용할수 없어 장차 새끼낳이를 할 때는 우리를 더 확장할 타산도 세웠다.

그는 신새벽에 일어나 염소젖을 짜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머느리에게 넘겨주고는 가까이 있는 수확한 남새밭과 산자드락에 나가 사료용 풀을 뜯어왔다. 아침식사후에는 염소고삐를 쥐고 산골짜기로 들어가 온종일 방목을 시키면서 산나물과 사료풀들을 뜯곤 했다. 그러느라니 늙은이가 오죽 피로하겠는가. 시어머니가 걱정될 때마다 옥현은 자기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그일을 넘겨받는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승인하지 않을것이 뻔하여 옥현은 입밖엔 내지를 못하고 속으로 공공 앓기만 하는것이였다.

시어머니의 생일 70돐을 하루 앞둔 날이였다.

생일상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고난의 행군》이 끝난후에는 기꺼이 받겠다고 하였다. 때문에 타곳에 살고 있는 자식들은 한명도 오지 말라고, 만약 오게되면 그날 진종일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겠다고 딱잘라 단호히 언명하는 편지를 자필로 보내어 평양에사는 딸이네 집에서는 옷한벌과 당과류, 고기통줄임, 고급술을 인편에 보

내왔지만 그리 멀지 않은 영천의 딸과 사위가 오후차로 도착하여 염소를 끌고 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날 늦은 저녁에 옥현이가 우려하던 일이 끝내 생기고야 말았다. 어머니가 여느날보다 늦어져 언제인가처럼 또다시 불안에 잠겨 옥현은 마중을 떠났다. 영천시누이가 따라섰다. 그들이 얼마간 가고 있는데 산쪽에서 웬 사나이가 누군가를 업고 씨근거리며 오고있었다. 업힌 사람의 팔이 맥없이 아래로 드리워 흔들거렸다.

옥현은 가슴이 덜컥 했다. 사나이에게 업혀오는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룩감이 확 드는것이였다.

옥현은 냅다 뛰어갔다. 시누이도 열결에 따라달렸다.

《아, 어머니-!》

옥현은 부르짖으며 시어머니를 안아내렸다.

《아이구,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시누이가 애끓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잡아 흔뻘었다.

《집의 어머니요?》

사나이는 부리부리한 눈을 번뜩이며 격분해서 소리쳤다.

《늙은이를 천대하면 하늘이 벼락을 쳐요. 우리 사회에 당신네 같은 자식이 또 어데 있겠소. 내가 마침 산을 돌아보고 내려오다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비키오. 자식 없는 늙은인셈 치고 내가 병원에 업고가 입원시키겠소.》

옥현은 사나이가 아무리 곡해하고 욕질해도 대답할말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고령의 로인이 산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지 않았는가.

영천시누이는 이미 옥현이한테서 어머니의 주장과 극성에 대한 속타는 소리를 들었던지라 울케를 닦할수도 없어 눈물만 흘렸다.

사나이의 큰 소리에 놀라서인지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그는 의식이 회복되자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가 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나이와 며느리, 딸을 번갈아보더니 드디어 알아보고 겨우 들리는 소리로 말을했다.

《산을 내려오다 돌을 잘못 밟아 넘어지면서 갑툭했었던것 같구나. 애어미야, 염소와 풀마대를 어서 가서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사나이에게 눈길을 돌려 《고맙네.》하고 사의를 표했다.

그 사나이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늙은이를 이렇게 혹사시켜서는 안된다고 몇마디 더 꾸짖고는 풀마대와 매놓은 염소가 있는 어방을 대주고는 자리를 떴다. 옥현은 시어머니를 영천시누이에게 업혀 집으로 보내고 염소와 풀마대를 가지러 산으로 올랐다. 건잡을수 없이 설음이 복받

쳐올라 그는 헉헉 흐느껴울었다. 시어머니가 줄도하였던 곳까지 가서 풀마대를 지고 염소 세마리의 고삐를 모아쥐고 내리면서 그는 단호한 결심을 했다.

래일부터 직장일을 그만둘테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반대해도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다. 그냥 있다가는 시어머니를 잃고 만다.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계속 해야 집식구들을 먹여살릴수 있으니 내가 집에 들어와야 한다. 남편 하나만 공장일에 전력하게 해도 지금은 큰것이다.

옥현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며칠사이 집일을 도맡아 하면서 젊은 자기도 녹초가 되군 하는 이 일을 70나이 로인이 어떻게 감당해냈을가 하고 놀랍게 생각하곤 했다. 옥현은 시어머니가 퇴원하면 영천시누이가 모셔다 한두달 폭쉬우며 그 기간에 자기는 직장을 그만두는 수속을 하는것으로 시누이와 토의하고 지금은 휴가로 집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아무리 어려울때에도 병원에서만은 환자들에게 식사를 공급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성이 깃든 음식을 시어머니에게 대접하고 싶었다. 마침 영천시누이가 가져온 흰쌀과 절인 물고기, 평양 시형네가 보내 온 통줄임과 당과류 등이 얼마간씩 있는것이 다행이였다. 했으나 시어머니의 통제와 잔소리때문에 그는 그 식품들을 마음대로 병원에 들고 갈수 없었다. 퇴원해나가서 요긴하게 쓸 일이 있다면서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것이였다. 풋배추김치와 토장의에는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옥현은 또 속이 상했다.

《애아범이 새 기계 만드는 일이 잘 된다던?》 옥현이 면회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묻는 말이였다.

《내가 빨리 나가야 애어범이 직장에 나가겠는데…》 시어머니가 자주 외우는 소리였다.

토끼가 잘 크는가? 요즘 돼지죽을 어떻게 해먹이는가? 염소젖량이 줄지 않았는가? 매일같이 시어머니는 반복해물곤 했다.

시어머니는 입원해 열이틀만에 부득부득 우겨서 퇴원을 했다. 과로와 영양부족, 로쇠로 인한 병이어서 십여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니 상당히 회복되기도 했지만 보다는 며느리의 휴가기간이 다 되였다는 타산에서 자원퇴원을 단행한것이였다.

어머니가 퇴원해온 날 저녁 아들 전일범도 집에 들리였다.

《거 뭐 유압배관 구부리기일이 잘안된다지?》

어머니가 묻는 소리에 일범은 저으기 놀랐다.

어머니가 공장일에 대하여 언제나 관심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 그였지만 그가 병원침대에 누워있었는데도 최근에 시작한 작업과 그의 애로에 대해 어느새 알고 근심하는것이 놀라왔던것이

다.

일범은 배관작업에서의 고충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 굵기가 서로 다른 십여가지의 관을 거미줄처럼 복잡한 설계의 요구대로 정확히 늘어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자재와 연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작업반자체로 관들을 구해들이고 수십리 떨어진 산에 가서 해온 참나무삭정이불로 달구어 휘여 봤는데 가뜩이나 각종 규격과 성질의 배관이 모자라는데 불량품이 나오니 일범은 속이 탈대로 탔다.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

《네 아버지가 중대장을 하던 운수중대에서 무엇에 쓰는 관인가를 불에 달궈 휘였는데 그때 그 관속에 잔모래를 가득 다져넣고 하더라. 지금 흰다는 그 관은 그렇게 하면 안될가?》

이미 그런것쯤은 알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묵묵히 무슨 생각인가 굴리던 일범의 입에서 환성같은 소리가 튀어 나왔다.

《아, 될것 같아요. 그 단순한걸 난 왜 생각 못했을까요. 제 빨리 가서 해보겠어요.》

일범은 제갑담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다.

옥현은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아득히 흘러간 50년대의 기억을 되살려 아들을 기쁘게 하는것을 보며 지금도 공장일에 원심을 많이 쓰는 로인의 그 성정에 감동이 되었다. 그럴수록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영천시누이가 약속대로 오늘 와서 어머니를 데려가게 하고 시어머니 없는 사이 공장 퇴직수속을 하게 되는 일이 후일 로인의 노여움을 살수 있다는것을 의식했다.

영천시누이는 약속을 지켰다. 그가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반기면서도 의아해했다.

《세대주가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해서 왔어요.》

시누이는 옥현이와의 사전협의대로 말을 했다.

《내가 요즘 골이 무거워지고 손발이 저려들어 온천료양을 한 사실일 해야겠어요. 그 사이 집을 좀 봐주세요.》

《...》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머리를 저었다.

《난 여걸 뜰수 없다. 사위가 있지 않니?》

《그이도 장기출장을 가야 한대요.》

《중학생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뭐 걱정이냐?》

《둘 다 사내들이니 때식 끓이는게 문제예요.》

《지금부터 끓여먹는 버릇을 붙여줘라. 그래야 군대에 나가서도 제구실을 해.》

《아이 참, 같이 가자요. 막내아들만 자식인가봐. 딸네집에도 가 살아봐야지요.》

영천시누이는 40대 후반기 중년부인이지만 소녀 애매처럼 어리광섞인 요구를 들이댔다.

《못간다. 은진 에미가 래일부터 직장에 나가야겠는데 집일을 누가 하겠니. 여기 공장에서 지금

큰 기계를 생산하고 있어. 고양이손도 빌릴 때야. 내가 부주의로 일을 쳐 며늘애가 일 못나가게 한것만도 죄스러운데 내가 가진 어딜 가.》

시어머니가 저쯤 고집하면 누구도 그 결심을 변경시킬수 없다는것을 잘 아는 옥현이었지만 그래도 행어나해서 한마디 껴끼었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하든 집일도 직장일도 다 할테니 누이를 따라가세요. 누이한테 내가 미안해서 그래요.》

《가지 않겠다!》 요지부동이였다. 옥현은 더는 숭박곡질을 할수가 없었다.

《어머니, 양해하세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전 공장에서 나왔어요. 어머니가 계속 혹사하다가는 못견뎛니다. 누이네 집에 가서 몸보신하다 오던지 집에 그냥 계시던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제부턴 짐승기르는 일은 못하게 하겠어요.》

옥현은 아직 퇴직수속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더는 고집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의아닌 거짓말까지 한것이다.

이제 어떻게 반응할가?... 늙은이를 무시했다고 대노할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된 도리인것이다. 노여움은 시간이 지나면 풀릴것이다. 옥현은 시어머니의 눈길을 피해 방바닥에 시선을 떨구고 하해를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점도록 말이 없었다. 이윽하여 갈린 음성으로 말을 했다.

《네 심정을 내 안다. 그렇지만 그건 날 생각해주는것이 못된다. 난 46년도 당원이다. 그때 배운것도 별로 없는 스무살 처녀로동자였던 내가 어떻게 어벌크게 입당청원서를 냈겠니. 아버지를 일제의 《징용》에 빼앗기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병약한 홀어머니와 샅빨래질, 물걸여주기로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던 나를 해방된 내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김일성**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난 입당청원서에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새 조선건설에 앞장에 서는 당원이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고 썼다.

겨우 문맹을 퇴치한 내가 아이들 그림그리듯 한자한자 새긴 그 입당청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 앞에 다진 나의 엄숙한 맹세였다.

그랬다. 누구보다 선봉에 서서 수령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나는 당원이 되었고 입당할 때 다진 그 맹세를 실천하기 위해 이날 이때까지 애써 노력해왔다.

지금 나라가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등을 돌려대고 제살 궁리를 하는 건 배신행위이다.

지금 공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

을 수행하느라 낮에 밤을 잇고 허기져 쓰러졌다
가도 다시 일어나 전루를 하는데... 난 우리 집일
이자 공장일, 나라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힘겹
지만 아글타글 애써왔다.

이제 나더러 일을 그만 두라는것은 당원구실을
그만두라는거나 같은 소리이다. 나는 그런 <효
도>는 바라지 않는다.

며늘애야, 이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려면 내
가 당원구실을 계속하게 해주는것이다. 공장일을
내맡기지합쳐 더잘 해다오.》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을 했다. 옥현은 놀라며
눈길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조골조골해진 두볼로 눈물줄기가 흐르고 있었
다.

《아,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가 죽을 죄로 잘
못했으니 용서해주세요. 공장에 나가겠어요.

그만 진정하세요.》

옥현은 목이 메어 더 사죄말을 이을수 없었다.

영천팔도 울었다....

4

겨울이 다가오자 시어머니 일감은 더욱 많아졌
다. 집집승겨울나이용 사료준비를 해야 하는것이
였다. 이제는 어미염소가 새끼를 낳아 염소가 다
섯마리, 토끼는 스물두마리로 늘어났다. 큰 돼지
로는 식량과 사료를 구해들이고 새끼돼지를 두마
리나 사다넣었다. 그러니 무척 많은 량의 사료를
장만해야 했다.

학교 다니는 손자손녀가 수업후와 일요일에 제
동무들을 휘동하여 함께 와서 할머니의 일손을
도왔고 옥현이 간혹 휴식을 하는 날에 신새벽부
터 어두울 때까지 밭과 산을 헤매며 사료를 확보
했지만 시어머니의 일손을 얼마 덜어주지 못하였
다.

시어머니의 완강성은 옥현의 눈뿌리를 아리게
했으며 가슴을 불안하게 했다.

그런 시어머니가 무거운 덧짐을 더 지게 되는
일이 생기었다.

새 기계의 첫 시운전에서 왕복대의 뒤면을 습
함으로 재가공하게 되었다.

김순임은 자기의 생일때 평양 만아들네가 보내
온것과 영천팔이 가져온 식품에 자신이 기른 토
끼를 여러마리 잡아 성의껏 준비한 음식들을 가
지고 작업현장을 찾아갔다.

왕복대 습함은 매우 강도가 높은 금속으로 가
공하는것이였다.

아들 전일범이 온몸의 힘을 주어 하는 습합작
업을 김순임은 손에 땀을 쥐고 여겨보았다. 공장
적으로 기능이 첫 손가락에 꼽히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아들에 대한 긍지감, 성공할가? 하는 우
려감, 내 아들이, 믿는다! 하는 절절한 소원이 그
의 눈동자에 어리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엿바뀌 일별하는 옥
현의 몸에도 땀이 내배었다.

왕복대 습합작업을 끝내고 기계조립을 다시 해
서 시운전을 할 때까지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
다. 마침내 다시 기계가 돌아가고 새로운 제품들
이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은 목청껏 환호를 터쳤
다.

시어머니는 아들앞으로 다가갔다. 늘 가지고
다니는 타올수건으로 아들의 땀흐르는 이마며 목
덜미를 정겹게 씻어주며 그는 무엇이라 말을 했
다. 시어머니는 행복에 겨울 때 짓곤 하는 그런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옥현은 준비해온 음식을 차려놓기 위해 휴게실
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다.

휴게실 긴결상우에 한사람이 누워 있었다.

방금 성공한 기계시운전모습을 창문너머로 보
며 흘린 기쁨의 눈물이 아직도 볼에 남아있는 무
척 수척한 청년을 여겨본 시어머니는 놀라며 물
었다.

《자네 재환이 아닌가? 어떻게 되어 이렇게 몸
시 상했나?》

어머니의 말꼬리는 떨리었다.

무의무탁자인 그가 지난해 말에 결혼하여 신훈
살림을 펼 때 그릇가지를 싸들고 집에 찾아가 장
판까지 새로 해주고 왔던 시어머니였다.

결혼후 다섯달만에 안해가 불치의 병으로 사망
한후 슬픔속에 혼자서 먹으며 말며 살아오면서
병약해진 그를 지금 작업반원들이 돌봐주고 있는
것이였다. 아들네 작업반원들이 성공의 희열속에
오래만에 색 다른 음식을 들며 기뻐할 때 시어
머니는 병약자의 곁에서 그를 부축하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곤 했다. 식사가 끝나 하나 둘 작업
장으로 나갈 때 김순임은 아들과 세포비서를 자
기 앞으로 불렀다.

《자네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재환이가 이
꼴이될 때까지 왜 그냥 뒹는가 말일세. 은진이야
법, 왜 이사람 일을 집에 와선 한마디도 안했나,
응?!》

김순임은 노여움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작업반에
서 얼마나 애쓰다구요.》

병자가 당황하여 반장, 세포비서를 두둔했다.

《병은 약과 음식뿐아니라 정이 있어야 고친다
네. 세포비서어른, 내 오늘부터 이 재환이의 어머
니가 되겠네. 그리 알라구 난 업고 갈수 없으니
누굴 좀 시켜주게나. 아니, 우리 애아범이...지금
당장 업고 가자구.》

《!...》

《!...》

그날부터 김재환은 김순임의 부양을 받게 되었다.

옥현은 시어머니의 소행에 가슴이 뜨거우면서도 근심이 배로 늘어났다.

가득이나 무리하는 시어머니가 병자시중까지 들면서 꽤 견뎌낼수 있을까? 영양식사는 어떻게 보장한단말인가?...

5

옥현은 시어머니 김순임의 병상을 벌써 열흘째 꼬박 지켜앉아 있었다. 병자가 의식을 잃는 회수가 잦아졌다.

옥현은 불안속에 남편 전일범이 오기를 기다렸다. 남편은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새 기계설비의 총조립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간고한 투쟁을 벌려 근 1년만에 총조립을 하는 그 기계의 시운전동음은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는 공장의 총성의 보고로 될것이었다. 아들이 바로 그 총조립을 책임지고 있다는것을 잘 아는 김순임은 자신의 병세가 기울어져 이제 얼마 더 살지 못하리라는 예감을 하면서도 알리지 말라고 채삼 말하곤 했었다.

어제 왕진을 한 의사가 이제 기껏 이틀을 넘기지 못할것 같다고 하여 비로소 전일범에게 긴급 연락을 띄우고 평양과 영천의 아들과 딸에게도 전보를 친것이었다.

시어머니가 몸져 누운것은 2월하순부터였다.

집집승기르기에서 한겨울은 품이 적게 드는 계절이었다. 이미 마련해놓은 먹이를 새풀이 날 때까지 기간을 잘 타산하여 분한있게 먹이면 되기 때문이었다. 김재환도 두달나마 정성을 쏟아부어

건강을 회복시켜 제집으로 보내고나니 시어머니의 짐이 훨씬 가벼워진 셈이었다. 긴장성이 풀려서인지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물이 잦아졌다. 세상에 믿지 말아야 할일중에 가장 첫번째가 늙은이 건강이라더니 시어머니의 경우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 얼마전까지 기가 펄펄해 보이던 그가 급기야 고삭아버린것이다.

일흔한살, 아직은 더 살 나이이다. 이 《고난의 행군》에서 자식들이 락오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니 앞선에 내세우기 위해 깡그리 전력을 쏟아부어 이제는 생명의 원동력이 죄다 소모된것이었다. 본인의 완강한 주장으로 생일상을 차려드리지 못한것이 며느리로서 옥현에게 한으로 남게 되었다.

의식을 차린 시어머니가 약한 소리로 말했다.

《래일 당비를 바쳐야 할 날이구나.》

시어머니는 말하기가 힘겨운듯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오른쪽 가슴밑에 손을 얹으며 계속했다.

《여기 당원증주머니안에 이달 당비가 있다.》

그 소리에 옥현은 또다시 불쑥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겨우 참았다.

세포에서 제정한 날자에 당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것 같아 이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것이구나. 아 언제나 당원임을 자각하고 있는 시어머니였다.

《이달 당세포에서 내가 받은 분공이 인민반아 낙네들에게 전후복구건설때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주는것인데...》

시어머니는 맥이 진해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안타까움이 어린 눈으로 옥현을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꼭 하고싶은 말이 있는듯 그의 입술이 알릴듯말듯 움직였다.

겨우 알아들을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다.

《너도 꼭 당원이 돼야 해.》

《!》

옥현은 가슴이 확 달아올랐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기는 마지막유언일수 있었다.

림종을 앞두고 하는 시어머니 로당원의 그 말은 그의 뇌리에, 심장에 간곡한 당부로, 어길수 없는 요구로 새겨졌다. 그 당부속에 당원은 어떤 사람이고 왜 꼭 당원이 되어야 하고 당원은 어떻게 한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듯 했다.

《명심하겠어요, 어머니-이!》

옥현은 울면서 대답했다....

아들 전일범이 공장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차를 타고 집에 나타난것은 다음날 첫 새벽이었다.

아들은 초불밑에 드러나보이는 어머니의 어린 애만치 졸아들어보이는 얼굴을 기계기름냄새나는 큰 손으로 어루만지며 애절히 어머니를 불렀다.

(아, 어머니, 한생을 쉬임없이 공장일, 인민반일, 집일에 헌신하시며 이 아들을 위해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공장에 주신 현대적인 새 기계설비생산과제를 꼭 끝내고 집에 들어서라고 당부하신 어머니, 그래서 이 자식이 집걱정을 하지 않게 하려고 아글타글 애쓰시다가 이렇게 되였구나.) 가슴이 저려들고 눈물이 하염없이 솟아흘렀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들특유의 기계기름에 절은 체취와 뜨거운 눈물의 소나기가 사라져가던 의식을 되불려왔는지 김순임은 눈을 떴다. 잠시후 그는 아들을 알아보았다. 어머니는 가까스레 입술을 실룩거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것이였다. 아들은 어머니의 입바투 귀를 가져다대었다.

《...난 네가 그 기계를 만들어놓고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꼭 보고 싶었다.》

그 다음은 힘이 진한듯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다시한번 아들의 모습을 여겨보고 눈을 감아버렸다.

《아하, 어머니, 눈을 뜨세요. 기계를 거의다 조

립했어요. 이제 며칠이면 돼요. 꼭 보세요. 어머니-》

아들은 식어저가는 어머니를 부여안고 오열을 터치였다.

사흘후 새 기계설비가 시운전의 동음을 높이 올리였다.

신문, 방송들은 앞을 다투어 새 기계설비의 탄생이 주체적인 기계공업발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성과로 된다고 크게 보도하여 온 나라를 들썩하게 했다.

×

당위원회 정문을 나서 작업반쪽으로 향해 걷는 옥현의 눈앞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떠날줄 몰랐다.

오늘 당원증을 가슴에 품고나니 더더욱 시어머니가 그리워났다.

아, 단 한번만이라도 다시 뵈웠으면... 잠시라도 환생하여 우리가 만든 새 기계설비의 동음을 듣고 어버이장군님께서 친히 공장에 오시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아들을 만나주신 꿈같은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리고 이 며느리의 당원증도 보아주면 얼마나 좋을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원이 된 자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당과 조국을 위해 심신을 초월처럼 쟁그리 태운 로당원, 아, 나의 시어머니!

옥현은 시어머니 김순임이 지금도 차기를 기다리고있을것만 같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다그쳤다.

소원으로 무거워진 땅

-6년전 추억을 번지며-

전윤해

키를 넘게 쌓였다

장군님 집무실 책상우에는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보내온 불같은 편지들

어느새 당중앙 트랙을 넘어

문기척도 없이 이렇게 쌓였다

우리 당의 수위에

장군님 높이 모신

환희와 걱정을

한껏 터친

마음과 마음들이

어찌 당중앙청사의 계단과 계단들을

헤아리며 올랐으랴

바라고 바라던 소원이어서

외람됨도 잊고서

장군님책상우에

소리없이 쌓여졌던

이 나라의 마음이어

협동벌의 농민들은

무르익은 오킵으로

그 소원을 엮었고

철의 기지 용해공은

끓는 쇠가마 정히 기울여

감사의 글발들을 부어냈으랴

그렇게 쌓인 편지

천을 헤아리랴

만을 헤아리랴

무적의 포신들은

환희의 축포로

하늘가에 눈부신 글발을 새겼으랴

읽으셨으랴 장군님께서

온 나라의 마음들을

한자도 빠짐없이

그리고 가늠해보셨다

편지로 무거워진

이 땅의 무게를

오, 창문을 여시여랴

우리 장군님

눈부신 창문너머 굽어보신다

간절한 소원으로 무거워진

이 땅 저 멀리 바라보신다

떠나가신다 우리 장군님

인민의 이 믿음 한몸에 안으시고

전선으로 떠나가신다

우리 당 총비서는

전선으로 전선으로 떠나가신다

그리움의 저녁

송재하

흘러가는 때구름도 험준한 산발들도
백두의 태양빛으로 물드는 이 저녁
땀젖은 이마를 수건으로 씻으며
로반이 뻗어간 밀림속을 바라보노라니
가슴에 안겨오는 자애로운 그 영상

온몸을 따스히 해주는
이 봄날의 햇빛만 같아
가슴은 이리도 울렁이는것인가
천고밀림속에 새 도로를 펼치느라고
정말 수고했다고
다정하신 그 음성 들려오는것만 같아
이리도 뜨거운것이 목메게 차오르는것인가

환하신 그 영상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아
날새도 일어 떨어지는 그 흑한속에서도
전투장을 떠나지 않은 우리
얼어붙은 로반을 쫓고 울리며
온밤 함마를 휘둘렀거니

자애로운 어버이 그 모습
순간도 그려보지 않았다면야
하루에도 열백번 쓰러지면서도
어깨우에 질통을 메고
눈덮인 백두등관을 오르내릴수 있었으랴
하늘땅 뒤흔드는 폭우속에서도
서로서로 어깨를 걸고
로반우에 굴러내리는 바위들을 막을수 있었으랴

그렇노라, 우리의 장군님은
저 백두산처럼 끄떡없는

우리 신념의 기둥이었노라
난관도 웃음으로 헤쳐나가게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였노라
언제나 머리우에 가없이 열려있는
백두의 푸른 하늘이었노라

그래서 우리 노래를 불러도
그이에 대한 노래
시를 써도
그이에 대한 시
가슴속엔 그 언제나
환하신 그이의 영상...

만발해가는 진달래여
푸르려가는 백두버들이여
머릴 드는 종비나무여
너희들도 우리 마음 다 알아
그리도 환희로이 설레이며
완공의 그날을 부르는것이냐

그리움으로 산악을 허물고
그리움으로 웅벽을 쌓으며
한치 한치 열어간 로반이어서
바라보면 불수록
그이영상 뜨겁게 안겨오나니

아, 하늘도 땅도 불태우는
백두의 붉은 노을속으로 뻗어간 로반우에
가까이 가까이 어려워오는
자애로운 어버이 그 영상
못건디게 뵈고싶은 그리움의 이 저녁이여!

세포에 대한 생각 외 1편

김성욱

천이던가
만이던가
우리 당
세포들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원칙
하나의 규률로
굳건한 유기체

그래서

천이여도
만이여도
세포는 하나인듯

장군님 큰 심장에
가다가닥 혈액이 닿아
생명의 활력을 받고
약동하는 세포!

당중앙 결심이
여기서는

땀으로 지혜로 때론 생명으로
꽃이 되어 만발한다

그래서 항일의 로투사도
전쟁영웅도
애절한 신입당원도
세포에 나란히 제 이름을 올리나니

아 당중앙에서

받은 생명
세포
여기서 빛을 뿜어

한결음도
세포를 떠나면
생명의 불은
꺼진다

손을 든다

손을 든다
한 젊은이의 입당을 보증하여
세포의 당원들이
손을 든다

십년을 하루같이
깨끗한 량심으로
말없이 소문없이
많은 일 해온 성실한 젊은이

그 세월의 하루하루가
오늘에로 굽이쳐와 여기서 벗어선
승업한 이 시각
미더운 눈빛들이 젊은이를 향해
손을 든다

손을 든다

세포명단엔 없어도
마지막당비를 바친 그 불같은 마음들이
입에 수류탄을 문 그 심장들이
신입당원 그 량심을 투시하며
당원들 마음속에서 함께 손을 든다

우리 당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
몸소 굽어보시는 그아래서

오! 또 한사람
우리 당앞에
내세우며
세포의 당원들이 손을 든다

초소에서 보내는 편지

김기철

환송의 꽃송이 달아주던
선생님의 그 손길
아직도 따스합니다
우등사수 꽃을 탄 오늘에도

수학공식 외울 땐 서툴렀어도
이것만은 환합니다
틀어진 나의 무기 유효사거리와
총구를 떠난 탄환의 비행속도는

칠판에서 배우던 조국이란 그 이름
다시 배웁니다 산중초소 전호에서
책상에서는 다 알수 없는 조국의 귀중함을
비내리는 보초막에서 새겨잡니다

교정의 밤 우등불가에서
조국과 청춘을 론하던 그날의 웅변
여기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파녀를 꺾는 총탄의 메아리로

이 땅에 바칠 사랑을 두고
이 땅에 남길 위훈을 두고
좋은 말씀 들려주신 선생님강의
파편박힌 나무가 대신합니다

애국이란 말이 아닙니다
애국이란 글로 적는것이 아닙니다
총대를 잡은 청춘이 애국입니다
군복을 입은 병사가 애국입니다

시대와 여성영웅

양의선

옛날부터 이르기를 모르는것을 묻거나 옳은것을 깨우치는데는 등에 업힌 어린애한테서도 부끄러워말라 했다. 허나 나는 자신의 경우를 놓고 좀 달리 생각한다. 신이 펴 넘도록 터득하지 못했던 지식이나 생활의 교훈을 깨닫게 될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것이 응당한것이 아닌가. 이번 취재과정에 겪었던 딱했던 사정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다.

나는 선군시대영웅들을 소설로 형상할 과제를 안고 남포의 한 여성과학자영웅을 만나러 떠났다.

취재대상을 여성영웅으로 택한데는 이 준비를 위해 신문과 자료들을 들춰보는 과정에 나를 흥분시킨 생각이 떠올랐기때문이었다.

《고난의 행군》과 더불어 시작된 선군시대는 역사적인 범주에서 보면 불과 몇해밖에 안되는 기간이 흘렀지만 그 기간에 배출된 영웅들은 수없이 많다. 더우기 조국과 우리의 생활이 가장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 여성영웅들이 특별히 많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나를 흥분시켰다. 시대와 영웅, 영웅과 여성들... 아직 초점이 명백치 않은 흥분만을 안고 찾아간 영웅은 나를 몹시 당황케 했다.

키가 작달막하고 눈정기가 맑은 녀인이 나를 류달리 반겨 맞이하며 이렇게 물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한 대학동창을 몰라보시누만요. 강동무는 기억하시겠지요?》

강동무를 어찌 모르랴. 그와 나는 성격과 기질이 달라서 말다툼도 자주 했지만 리상과 포부는 상통한데가 있어 가까웠다. 우리는 자주 문학에 대해서와 위훈과 창조, 인간의 영웅성에 대해서 함께 공상도 하고 논쟁도 했다.

《저는 그때 동무들이 론쟁할 때면 부러운 마음을 안고 가까이 가서 듣곤했어요.》

나는 대학교정과 도서실도 생각해보고 대성산 도로공사장이며 대동강호안공사장들을 비롯한 열정에 넘치던 론쟁장소들과 정황들속에서 이 녀자의 옛 모습을 그려내보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이 같이 딱한 사정이 어디 있는가. 취재대상인 영웅이 나를 첫눈에 알아보고 반기는데 그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는 작가랍시는 나는 이런 상기 시킴속에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니 면구스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속이고싶지 않았다.

《강동무는 생각나지만 동지는 기억나지 않습니

다. 미안합니다.》

그러니 결국 학창시절 함께 위훈과 영웅에 대해서 많이 떠들던 강동무는 기억하면서 오늘의 영웅동지는 눈앞에 놓고서도 그가 누구였는지 모른다.

《난 그저 동창인 작가선생을 만나니 너무 기뻐서!...》 하고 녀인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자기의 말이 손님한테 면구스러움을 주었다는것을 감촉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소박한 녀성의 대답이었다. 대학시절도 별로 눈에 띄우지 않는 말이 적고 소박한 처녀였으리라. 지금 쳐다보는 저 맑은 까만 눈동자가 위훈과 영웅성에 대해서 저들의 독점물인양 떠들던 우리를 찬탄에 넘쳐 지켜보았으리라.

면구스럽지만 취재는 해야 했다. 학창시절의 기억이 있었다라면 그 추억을 연줄로 해서 허물없이 생활적인 대화로 즐겁게 웃으며 취재를 했으련만 그렇지 못했다. 영웅이 되기까지 어떤 결심을 품고 어떻게 그 어려운 연구사업을 해왔느냐는 식의 농통한 질문을 할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작가선생이나 기자동지들과 마주앉기가 좀 두려워요. 그분들은 어딘가 공통점이라 할가. 영웅이라면 그 어떤 비상한 성격이나 기질,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줄 아는데 아니예요.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인민들이 지냈던 그런 각오와 생각이외엔 다른것이 없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는 평범한 여성과학자에 지나지 않아요. 당의 품속에서 고이 자라 대학까지 나와 과학자가 되었고 시집을 가서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녀성들의 행복관은 소박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 맡은 일을 착실히 하며 남편을 잘 섬기고 어린것들이 건강하고 공부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것이 저의 행복의 전부였어요.》

녀인의 두눈엔 눈물이 핑 돌고 물기어린 눈동자엔 준엄한 빛이 비끼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자 놈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우리의 모든것을 빼앗고 짓밟개 버리자고... 녀성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연약해요.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선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해요.

저는 평범하고 소박한 녀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자고 덤벼드는 원썬놈들로부터

터 우리의 귀중한것들을 지켜내고 보관듯이 꾸려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을 따름이에요...》

너성은 연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도 있다.

기질적으로 연약해보이지만 일단 그들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삶과 생활이 침해당할 때에는 무한히 현명해지고 맹목해질줄도 아는 강한 존재들이 너성들이다. 하기에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너성들이 것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정을 지켜냈고 창조적로동과 과학탐구, 조국보위 초소들에서 류례없는 영웅적인 위훈과 공적을 세웠다.

정성옥, 박옥희, 현영라, ... 헤아릴수 없이 많은 너성영웅들, 이들은 모두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드신 인민사랑의 로선, 선군로선이 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다. 사생결단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행복의 보급자리를 지켜주는 총대로선, 그 무적의 총대와 총검의 맨 첨단에서 빛을 뿜는 서리발들이다.

사랑으로 하여 무한히 아름답고 부드럽고 착하던 우리 너성들이 그 사랑으로 하여 그 어떤 희생도 고통도 두려워않는 가장 강인하고 역세인 영웅들로 성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조선너성들모두가 영웅들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시대가 영웅을 낳고 영웅들이 시대를 빛내이는

길에 앞장선다. 선군시대에 너성영웅들이 이처럼 많이 태어난데는 그 시대의 본질과 특성이 잘 비쳐지고 있다.

김정일 시대는 주체의 시대, 인민사랑의 시대이다. 그 사랑의 꽃들이 총대우에 피어나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의 너성영웅들, 그들속에 아직도 기억해낼수 없는 나와 동창생 너성의 한없이 소박한 모습도 서있다. 이 숭고한 사색속에 나의 면구스러움도 사라지고 이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운 조선너성들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힘에 대한 글, 너성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꼭 써내서 사회와 존경의 꽃다발을 대신해야겠다는 생각을 안고 그의 곁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 대동강상류로 멀리 보이는 평양의 눈부신 웅좌속에 문득 학창시절 한 처녀의 영상이 떠올랐다. 그 처녀는 축포가 오르는 밤하늘을 우리러 두손을 펼쳐들고 감격에 넘쳐 속삭였다.

《아,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할까! 그리고 모두들 이처럼 행복할까!...》

그 처녀가 바로 나의 동창생 녀동무였고 어제날의 우리 너성들모두였다. 그들이 바로 사랑의 향유자로부터 수호자, 보호자로 성숙하여 오늘의 너성영웅들로 되었다.

그들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속에 더욱 아름다와 질 래일의 모습도 그려본다.

성구유래

《두 결상에 앉아있다》

데모스테네스가 고대아테네에서 웅변으로 정치계에서 맹활약을 했다면 고대로마의 키케로(B. C. 106~B. C. 43)역시 그와 못지 않게 쌍벽을 이루는 정치가, 웅변가였다.

키케로는 고대로마의 웅변술을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

《증명하고》 《마음에 들게 하며》 《홍분시키는》 그의 웅변은 고대로마의 모든 웅변술에서 모델로 되었다. 그가 쓴 《웅변에 대하여》라는 책은 유명한것으로 되어있다. 그는 고대로마의 이름있는 작가이기도 하였다.

키케로는 자기 생의 마지막까지 정치계에서 일인자가 되고 로마의 가장 큰 인물이 되려고 하였다.

의심할바없이 재능있고 정력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그의 이름은 《두 결상에 앉아있다》라는 성구와 련결되게 되었다.

그것은 당시의 착잡하고 아찔아찔하게 엮어진

정세속에서 그가 취한 립장과 행동때문이었다.

초기에 그는 최고권력자였던 폼페이우스의 편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는 프라살 전투에서 폼페이우스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자 케자르편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말하자면 바람따라 날새게 돛을 바꾼셈이었다.

케자르가 암살되자 그는 또 립장을 바꾸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반대해나섰다. 케자르에게 충실하였던 안토니우스를 어찌나 신랄하게 규탄했던지 그의 처는 후에 키케로의 머리를 잘라왔을 때 송곳으로 그의 허를 채구멍처럼 찔러놓았다고 한다.

키케로와 관련하여 생겨난 《두 결상에 앉아있다》라는 성구는 정세와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량다리치기를 하는 행동에 대하여 경멸할 때 쓰인다.

조정남

길동무들

김병훈

그것은 내가 작년에 도당전원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있는 일이다.

전원회의는 나라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력사적전환점에서 천리마운동의 더욱 높은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시, 군당단체들의 과업을 토의하였다. 참으로 긍지와 격동에 넘치는 회의였다.

나는 미리 전화로 곧 군당집행위원회를 소집하게 준비하라는 기별을 하고 떠났었다. 차간에 앉아서도 나는 전원회의의 결정을 조목조목 되새기면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신통한 궁량이 떠오르지 않았다. 워낙 뒤떨어진 산간벽지인 우리 고장 실정으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고리부터 틀어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던것이다.

무거워진 머리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니 열차는 어느덧 산골짜기를 벗어나 강을 낀 벌판으로 나서서 질풍같이 달리고 있다.

차창으로 훤히 밀려드는 6월의 훈풍은 쓸쓸하고도 향긋한 벌판의 쑥냄새를 풍긴다. 황성기에서는 관현악의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담배를 붙여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간 저 앞머리에서는 손님들이 색동옷 입은 어린애에게 별의별 재롱을 다 부리게 하면서 떠들썩 웃어대군한다. 내 옆결상에는 할아버지들 몇분이 창문턱에 붙은 탁상에 생강술병을 놓고앉아 유쾌히 담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승강대쪽으로 슬금슬금 걸어나갔다.

승강대 란간두리에는 일어엎명의 남녀청년들이 몰려서서서 아마 금방 류행되는듯한 서정적이고도 씩씩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청춘이여, 행복한 우리의 생활이여
그대 준엄한 투쟁과
시련속에서 자랐구나...

이 한구절만이 유난히 똑똑히 들린다.

세찬 바람이 청년들의 머리카락을 마구 형클어뜨려서는 갈기처럼 나뭇기게 한다.

(청춘, 준엄한 투쟁과 시련, 참 얼마나 훌륭한 말인가?...)

어느덧 내 가슴속에서도 걱정이 가셔지고 그대신 그어떤 그윽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가슴뿌듯이 차오르는것이였다.

노래소리는 더욱 높아만 간다.

뚜- 기관차는 우렁찬 기적소리를 지르며 내달

린다. 이윽고 열차는 다음 역구내에 들어섰다.

승강대에 서서 노래 부르던 젊은 패거리들이 와 뛰어내리더니 역전공지에 닭아놓은 배구장으로 달려갔다. 벌써 누가 쳐올렸는지 하얀 배구공이 푸른 하늘로 뱅글뱅글 날아올랐다가 포물선을 그으며 떨어진다. 와와 떠들면서 그들은 배구경기에 신이 났다. 이윽고 발차준비를 알리는 소리가 구내에 길게 울려 퍼졌다.

바로 이때에 역사쪽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열려진 개찰구로 웬 처녀가 바람처럼 달려나온다. 한손에는 초롱을, 다른 손에는 보통이를 들었다. 그뒤로 개찰원이 개찰집계를 낀 손을 머리에 높이 들고 휘저으면서 달려나온다.

《아- 동무, 동무- 안돼요, 안되에...》

개찰원은 고래고래 소리지른다. 처녀는 힐끗 뒤돌아보더니 더욱 입을 꼭 앙다물며 기를 쓰고 댕다.

그러나 처녀는 끝내 승강대 여라문발자국앞에서 개찰원에게 초롱을 잡히우고 말았다.

처녀는 뻥 돌아서더니 개찰원청년의 얼굴을 마주 쳐다본다. 숨이 가빠서 두 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린다.

《놓으세요. 동무... 동문 어찌문 그렇게 딱딱해요?...》

뜻밖에도 처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처녀는 개찰원을 원망스럽게 쳐다본다. 처녀는 균형이 잡잡힌 날씬한 몸에 근색작업복을 가튼히 차려입었다. 탄력있게 디디고 선 자그마한 발에는 발등을 동그랗게 도려낸 까만 편리화를 신었다. 머리에는 하늘색 머리수건을 뒤로 돌려 꼭 졸라맸는데 수건안에 둘둘 말아넣은 머리태가 뒤통수에 봉긋이 부풀어올랐다.

게다가 해벌에 그을어 가무스름하면서도 불깃 불깃 혈색이 좋은 처녀의 동실한 얼굴과 좀 깊숙한 눈속에서 은근히 빛나고 있는 까만 눈동자와 자주 까막거리는 긴 속눈썹... 처녀의 인상은 대번에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 어떤 그윽한 정기를 느끼게 하는것이였다. 게다가 원망어린 눈동자는 어쩐지 이슬기에 젖은듯싶다. 개찰원도 처녀의 얼굴을 오래 마주볼 용기를 못가진 모양이였다.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빼앗아쥐였던 초롱을 발치에다 놓았다.

《안된다니까 그러오. 뭘걸 가지구 공연히 그리겠소...》

언제 계사니소리를 질렀던가싶게 누그러진 목

소리로 중얼거렸다.

《왜워주세요. 오늘 못가문 이제 몽땅 죽어요. 웅졸하게 그러지 마세요. 남자가...》

《뭐요? 웅졸하다구요!...》

웅졸하다는 말이 개찰원청년의 비위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이 빨개졌다.

《동문 규정을 지키는것도 웅졸하다는거요? 안되오, 절대로 안되오!》

처녀의 얼굴도 더욱 빨개졌다.

《규정이라니요?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있구말구요. 산 동물이나 생물은 일체 휴대할 수 없다고 차간 게시판에도 붙어있소. 대합실에 두 있구...》

《뭐요?... 아이 참...》

처녀는 그만 말문이 막힌 모양이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청년에게로 한발 다가섰다.

《그래 그런 규정은 나도 읽었어요. 하지만 저-》

하면서 처녀는 초롱을 가리켰다.

《이게 어디 산 동물입니까? 고기알이지. 그래 동무 말대로 한다면 닭알도 생물이구 명란젓도 산 동물이겠구만요? 아이 참 우스워...》

처녀는 제김에 픽 하고 웃는다.

개찰원청년은 얼렸는지 입만 빙하게 벌리고 서 있다. 이때 출발고동소리가 길게 울렸다. 처녀는 흠칫 놀라더니 다짜고짜로 초롱을 냉큼 집어 들고 승강대로 뛰어왔다.

초롱을 어깨 높이까지 번쩍 쳐들어 조심스레 나가 선 발판에 올려놓으려 한다. 열결에 나는 그 초롱을 마주 받았다. 나는 초롱의 무게에 끌려 비칠하였다. 초롱을 승강대우에 놓는 순간 열차는 덜컥 움직이었다.

《아 동무 조심하오. 자, 그 보파리도 보내오.》

나는 왼손으로 그의 보파리를 받아쥐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왼팔을 맞잡아 승강대에 끌어올렸다. 개찰원청년은 몇발자국 따라오다가 그 자리에 멎어서더니

《허 참, 엉터리로군...》

하고 입맛을 다신다. 나는 받아온 보파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 처녀에게 내밀었다.

보파리 한귀통이로는 자전거뿔프의 자루가 삐죽 내밀렸고 또 다른쪽 귀에는 바가지 뒤둥이 볼룩이 솟아있다.

《고마와요, 선생님. 어디 옷을 더럽히지나 않으셨어요?...》

처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나에게 인사를 건넨다. 보파리를 초롱옆에 놓는 처녀는 승강대발판으로 내려서더니 개찰원청년이 서있는 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미안해요, 개찰원동무, 정말 미안해요. 용서하

세요!...》

하고 소리친다.

처녀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빛이 어리여있었다. 그러면서도 처녀는 이제 마음이 놓이는지 호-하고 한숨을 내린다.

처녀는 작업복웃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더니 이마며 코등, 하얀 목덜미에 송골송골 내뿜은 땀방울들을 꼭꼭 문질러낸다.

바람이 훑훑 물러들 때마다 귀밑머리가 하르르 나뭇긴다. 담뱃 피쳐드는 햇빛에 눈이 시여선지 처녀는 눈시울을 가느스름하게 꼬프리고 철길을 따라 흐르는 계곡의 맑은 개울이며 그 저편 아아한 푸른 산봉우리들이며 가없이 맑게 비친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람이 가슴이 붕긔하게 부풀도록 들이그었다가는 후유 내뿜곤 한다.

나를 철도규정위반의 공모자로 만든 작업복차림의 예쁜 처녀와 고기알이 들었다는 초롱과 자전거뿔프와 바가지가 볼룩한 보파리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을가 하여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종내 알아낼수가 없었다. 장돌뱅이 장사집 같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세상에 그런게 있을리 만무하다.) 이사가는 손짐 같기도 하고...

처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돌아서더니 초롱옆으로 가서 꼬부리고 앉는다.

초롱아구리는 가제천으로 덮고 올라기로 빙빙 돌려댔다. 처녀는 오라기를 풀고 가제천 한쪽귀를 빠끔히 열고 들여다보더니 손을 넣어 그속에서 온도계를 꺼냈다. 나는 더욱 눈이 휘둥그레졌다.

온도계를 살피던 처녀의 얼굴에 홍조가 살짝 오르며 방긔 웃음이 피었다.

이젠 정말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이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아까 정거장에서의 소동바람에 승강대에 나왔던 일여덟명의 길손들이 모두 처녀의 초롱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녀가 초롱을 열었을 때 서로 이마를 찡으며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피곳 그 어떤 멀건 물같은것이 눈에 띄었을뿐이었다.

하긴 개찰원과 다들 때 무슨 고기알이라 했는데 명란젓은 물론 아니고 그밖의 식용으로는 연어나 성게알젓같은것이겠는데 그건 나도 몇번 먹어봐서 잘 알고 있지만 저런 맹물같은것은 아니다.

《처녀동무, 아니 그게 무슨 고기알인가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궁금증이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웬일인지 처녀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그리고 당황히 초롱우에 가제를 꼭 눌러덮더니 오라기를 쟁쟁 돌려잡았다.

《거 무슨 알젓인가요?...》

배구를 치던 꽤 키 큰 상고머리청년 하나가 큰 눈을 두리번거리며 뒤에서 넘겨다보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뭘, 알것이라구요?!... 아이 참...》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번쩍 들어 상고머리청년을 바라보는 처녀는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처녀는 이내 다시 고개를 수그리더니 입속에 기여드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실 전... 개찰원동무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초롱안에는 잉어가 5천마리 들어있어요...》

이렇게 더듬거리는 처녀의 귀밑은 새빨개졌다.

《뭘, 뭘요? 잉어가요?...》

《아니, 5천마리나요?...》

《원 처녀동무두, 통담을 그만두...》

모여선 사람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눈이 둥그래서 떠든다. 마지막말이 처녀의 신경을 몹시 건드린 모양이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며 일어섰다.

《아이, 제가 무슨 통담을 하겠어요. 잉어새끼라니깐요. 며칠전에 낀걸요. 한마리가 티눈만큼씩 하거든요...》

처녀의 맑은 눈은 누가 그런 못마땅한 소리를 했느냐듯이 둘러선 사람들을 죽 돌아본다.

《아니, 거 좀 봅시다!》

《나두 좀 봐주...》

하면서 사람들은 처녀에게 다가섰다. 예로부터 길손들이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인것이다. 처녀는 당황하여 다시 그 자리에 쪼크리고 앉으며 초롱목을 두손으로 그러안았다.

《비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다 비드릴순 없어요. 새끼고기가 돼서 함부로 다루질 못해요. 어느 한분이 대표해서 보세요. 참, 아버지가 보시고 확인하세요...》

그 처녀는 나를 아바이라고 불렀다. 아직 선줄에도 채 안들어섰는데 아바이라니... 하긴 귀밑에 희끗희끗 성긴 서리가 돋친것이 처녀로 하여금 대뜸 아바이라고 부르게 한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처녀의 말을 시비할 경향이 없었다. 우선 나는 베풀어진 특전을 달게 받아야 했던것이다. 나는 처녀곁에 엉거주춤 꾸부리고 앉아서 처녀가 열어주는 초롱귀통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역시 멀건 물밖에 아무것도 보이지않았다.

《맹물이구만...》

《해빛을 등지고 이쪽 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래요 아바이, 이제 물속 어느 한점을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보이지요, 아바이?...》

처녀는 연신 《아바이, 아바이》하면서 나의 어깨를 조종하여 각도를 바로 잡아준다.

나는 아바이란 말이 귀에 거슬릴새도 없이 처녀가 시키는대로 하였더니 그제야 정말 티눈보다도 작은 어떤 투명한 반점같은것들이 물속에 무수히 얹혀 알른거리고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아! 보이오! 틀림없소!...》

처녀의 등실한 얼굴에 상긋이 미소가 피었다.

상고머리청년이 기어코 떼를 써서 한사람 더 보게되었다.

《어이구, 끔찍하군! 막 아물아물하누만!》

청년은 큰 눈이 더욱 휘둥그래 가지고 환성을 올린다. 처녀는 그냥 방글방글 웃으면서 초롱귀통이를 꼭 덮고 오라기로 쾅쾅 비끄러맨다.

《아니 체네,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하자는거웨까?》

내 옆자리에서 생강술을 나누던 할아버지 한분이 자못 의아스럽다는듯이 대통을 한손에 든채 처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기르지요 뭘, 할아버지...》

《허허, 기른다?》

할아버지는 자못 놀랍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 저게 언제 크겠소.》

상고머리청년이 못미덥다는듯이 하는 소리다.

《동문 참, 성급하구만요. 아무거나 갓 낳았을땐 다 저렇게 작구 미더워보이지 않지요뭘. 범의 새끼도 갓 낳으면 쥐만해요. 저래비두 앞으로 이태만 있으면 팔뚝 같은 잉어가 되거든요.》

《뭘요! 이태에 팔뚝이요? 이 동무가 사람을 놀리는군.》

《안예요, 정말이에요. 이태가 되면 한마리 무게가 한키로가 넘구, 3년이 되면 두키로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 초롱속에 물고기 다섯천내지 열톤이 있다고 볼수있어요.》

처녀는 방금 그 열톤의 잉어가 들어있기나 한듯 자못 당당하고 대견스럽게 초롱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상고머리청년은 어이없다는듯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허허, 참 동무, 그야말로 닭알난가리를 가리는게 아니요?》

순간 홍조가 올랐던 처녀의 얼굴이 해쓱해지며 눈에는 노기가 피뚝 지나갔다.

《야 여보게 쫄은이, 실없는 소린 그만두게. 자 그래 체네, 이걸 어떻게 기르나? 맥이긴 뭘 맥이구?...》

생강술 마시던 할아버지는 부쩍 구미가 당기는 모양으로 청년을 옆으로 떠밀며 앞으로 비집고 나서서 처녀에게 이렇게 묻는다.

처녀는 노기가 가시지 않은 눈으로 한참이나 청년을 바라보며 똥이라고 말할가말가하다가 그만두고 할아버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 아무데서구 다 기를수 있어요. 저수지와 논판과 늪에서두 기르구 일부러 양어못을 파고도 기르지요. 우리 나라에선 어디서나 다 기를수 있어요. 그리구...》

처녀의 얼굴에선 어느덧 노기가 가시여졌다.

발그레 상기한 얼굴에서는 두눈이 반짝거린다.

《또한 잉어를 기르는 유리성은 사료해결이 쉽다는 점이지요. 우선 잉어는 물속에 있는 무수한

부유생물과 모기유충과 벼를 해롭히는 온갖 벌레를 잡아먹으며 잡초도 뜯어먹으면서 계절로 지나가더군요.》

《아니, 거 핏먹고 알먹기구만요!》

뒤로 물렸던 상고머리청년이 고개를 내밀며 또 환성을 올렸다.

《그러므로. 게다가 잉어의 배설물은 훌륭한 비료가 되구요...》

이번엔 청년에게 웃는 낯을 돌리며 처녀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인공사료를 조금만 보태주면 더 빨리 키울수 있어요. 동물성 식물성 가리지 않고 먹는데 식물성은 독없는 풀이면 다 먹일수 있구 동물성은 번데기, 지렁이, 올챙이...》

신이 난 처녀는 마치 연단에서 강의나 하는듯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엮어내린다.

이리하여 양어에 대한 강의가 때아닌 열차우에서 벌어지게 되었던것이다.

처녀는 보따리에서 《양어학》이라는 두툽한 책을 꺼내서 갈피를 후르르 넘기더니 잉어생태에 대한 그림을 펼쳐보이면서 알을 깨울 때로부터 시작하여 업지고기로 키울 때까지의 전 과정을 세세히 강의하였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렇게도 엄격하게 단속하던 초롱의 덮개를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생강술마시던 할아버지와 농민인듯한 사나이와 내가 그중 많은 질문을 들이댔다.

처녀는 지치는 빛도 없이 연신 이마와 코등에 맺히는 땀방울을 훔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것이였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러니 담수양어는 결코 업수이 여길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알잡아도 20내지 30만정보의 논과 저수지에다 고기를 기를수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만 해도 한해에 20만톤이상의 생산이 나올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온 강산이 쌀과 고기더미속에 묻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꿈이 아니라 래일의 현실입니다...》

처녀의 이야기가 어찌나 자신만만하고 생동하고 격동적이었던지 우리는 그의 흥분으로 하여 붉어진 얼굴과 열정에 불라는 까만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세상엔 양어공보다 더 보람찬 사업은 없으며 그리하여 당장이라도 양어공으로 직업을 바꾸고싶은 생각이 일어날지경이였다.

정말 할아버지와 중년농민은 조합에 돌아가면 관리위원회에 제기해서 꼭 양어를 시작하도록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처녀의 손목을 잡고 거듭거듭 치하하는것이였다.

《체네, 이제 우리 조합에두 본때있는 양어장을 만들어놓겠소!》

《감사해요,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해보세요.》

《원 감사야 내가 해야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처녀와 악수를 나눈 사람

들은 각기 자기의 차칸으로 헤어져갔다.

처녀는 호-긴숨을 내쉬면서 그들의 뒤모습을 자못 흡족한 눈길로 바라우고 있었다.

《처녀동무, 초롱을 갖구 들어가기요. 내옆에 앉을 자리가 있소.》

하고 내가 권했다.

《고마와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있어야겠어요. 공기가 시원해서 새끼고기에게 더 좋아요. 아 이참, 내정신봐라, 얘기바람에 팔려서...》

처녀는 웬 일인지 다급히 초롱귀통이를 열고 온도계를 꺼냈다. 처녀의 그 해맑던 얼굴이 흐려진다. 처녀는 부랴부랴 초롱옆에 놓인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그속에서 자전거뿔프를 꺼냈다.

그리고는 바람나가는 호스를 물속에 깊숙이 꽂더니 껌싸게 뿔프를 누르기 시작하였다.

(아니, 이건 또 뭐야?...)

나는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까닭을 알아차렸다. 산소를 공급하고있는것이다.

아니 어쩌면 저런 궁리를 다 해냈단 말인가! 온몸 그대로 지혜와 열정으로 빚어놓은 처녀로군!...

처녀는 더욱 빨리 손을 놀린다.

푸른 수건을 가튼히 맨 그의 하얀 뒤통미에 땀줄기가 흘러내린다.

《인주오. 내가 누를테니 동문 호스를 꼭 쥐오.》

《괜찮아요.》

《아, 인주오.》

나는 그의 손에서 뿔프를 빼앗아왔다.

초롱안에서는 공기소리가 꾸룩꾸룩 하고 났다.

그제야 처녀는 고개를 들어 쳐다보며 삼국이 웃는다. 공기를 불어넣어주고나서 나도 처녀와 헤어져 차칸으로 들어가 앉았다.

어느덧 열차는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섰다.

나는 가방속에서 소설책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글줄들은 살아움직이거나 하듯 가물거리며 눈에 밟히지 않았다. 어째서인지 나의 생각은 처녀에게로만 돌아가는것이였다. 나는 다시 일어나서 처녀가 앉아있을 승강대로 나갔다.

처녀는 승강대 계단 한편구석에 걸터앉아 있었다. 무릎에는 두툽한 책을 펼친채 엎어놓고서 어딘가 멍하니 열차바깥을 바라본다.

나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초롱을 봐줄테니 들어가 편히 앉아서 좀 쉬고나오라고 권하고싶었다. 나는 그의 옆에 가서 쪼크리고 앉았다.

그러나 말을 걸려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랑미간을 쪼프리고 그 어딘가 아득히 먼곳을 바라보는 까만 눈동자, 눈곱에 그렇게 고인 맑은 눈물... 무슨 생각에 그리 골똘했는지 처녀는 인기척도 못느킨다.

《처녀동무, 웬일이요?… 어디 편찮소?》

그제야 처녀는 흠칫하고 나를 돌아본다.

그는 당황하여 눈굽을 손가락으로 꼭 누르면서 고개를 가로 흔든다.

《아이 참, 아바이세요…》

처녀는 열절게 웃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멀리 푸른하늘가로 연줄연줄 어깨를 걸고 파도처럼 밀려간 산밭들을 바라본다. 나는 그의 무릎우에 펼쳐놓은 《인간문제》라는 소설책을 살펴보았다. 펼친 자리로 보아 거의 다 읽은 모양이다. 나는 그제야 영문을 알아차릴수 있었다. 그의 옆에 바투 다가앉으며 무릎에서 책을 집어들었다. 나는 갈피를 후르르 넘기면서

《아니, 원 용감한 처녀동무가 소설책을 읽고 눈물을 찔끔거리다니…》

롱삼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처녀는 그대로 덤덤히 말이 없이 앉았더니 이윽해서야 문득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불룩한 가슴은 몹시 들먹거리고 있었다.

《아바이… 어떻게 선비가 그렇게 죽을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질고 예쁜 녀인이 어떻게… 뭇때문에… 그렇게 짓밟히우구. 그리구 세상에 났다 행복이란 그림자도 못보구 피를 토하구 죽는단 말예요!…》

격한 처녀의 말소리는 떨리었다.

《!…》

나는 계급사회의 잔인한 발굽에 짓밟힌 한 소설의 너주인공의 운명앞에 참을수 없는 울분을 토하는 이처녀에게 무어라고 대답할 말을 못골랐다. 처녀는 다시 입을 꼭 다물고 앉아서 이윽히 생각에 잠겼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아바이, 우리 사회에선 누구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줄까? 모든 사람들이 백년, 이백년씩 장수하여 온갖 기쁨을 다 누리며 살게 할수는 없을까…》

처녀의 까막거리는 눈동자에는 그윽한 빛이 떠돌았다.

《아바이, 그러나 우리는 누가 이런 생각이나 신념을 가졌다고 해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우리 나라에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쯤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소.》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으나 처녀가 무엇때문에 뻗한 소리를 새삼스럽게 하는지 알수 없었다.

처녀는 아래입술을 꼭 사려문채 이윽도록 말이 없었다. 《그런데 아바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사람의 운명을 마구 몽개버릴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놈들은 사람의 대가리를 가지구두 사람들을 마구 죽여버릴 그런 궁리만 짜내고 있잖아요?…》

처녀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망울은 숫불처럼 이글거린다. 나는 새삼스러운 놀라움과 흥분으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니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승냥이라고 하지않소! 승냥이!…》

사실 나는 처녀에게 더 절절한 말을 하고싶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웁아요! 아바이, 승냥이! 그래요, 나두 봤어요. 우리 고향에서 마을사람들을 돌구멍이에다 몰아넣고 바위돌을 굴러넣으며 꺾꺾 웃는 미국놈들을 제논으로… 봤어요… 아바이, 지금두 생각하문… 치가 떨려요!》

격한 나머지 처녀의 말은 토막토막 끊어진다. 무릎에 꼭 그러친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으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가슴은 물결치듯 들먹거린다. 이윽해서야 처녀는 좀 진정이 되었다.

《아바이,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구우에 고인 물은 모두가 이 소설에 나오는 못처럼 수천년동안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이 고인 높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서러움의 피눈물 늪들이 원한을 풀고 강물이 되어 마음껏 흐르도록 해줘야 해요. 나는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깜박이지 않고 불라는 처녀의 맑은 눈동자는 나를 쳐다본다.

나는 대구 고개만 끄떡일 뿐이었다.

우리는 한참이나 그대로 묵묵히 앉아서 흥분을 삭이며 각기 생각에 잠겼다. 뚜- 하고 길게 기적소리가 울렸다. 멀리 굽이도는 앞길에 신호탑이 보인다. 처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초롱으로 다가앉아 덮개를 열고 온도계를 꺼내 눈금을 들여다본다.

《아니, 또 뭐이 잘못됐소?… 내 뽕프를 누르라고?…》

《안요, 물을 갈아줘야겠어요, 아바이…》

처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하더니 작업복옷 주머니에서 과란 뚜껑의 수첩을 꺼냈다. 갈피를 넘기며 들여다보더니 보따리를 풀고 바가지를 꺼내들었다.

어느덧 렬차는 역구내에 들어서고 있었다.

처녀는 승강대란간을 쥐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정거장쪽을 유심히 살피다가 차가 거의 멎게 되었을 때 나를 돌아다보며 방긋 웃었다.

《아바이, 초롱 좀 봐주세요.》

하는 말과 함께 흘쩍 뛰어내린 처녀는 벌써 역구내를 가로 질러 쓴살같이 개찰구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아니 저, 저 처녀가?!…》

나는 눈이 둥그래서 그의 뒤모습을 바라볼뿐이었다.

개찰구를 휘딱 지나 역뒤로 사라졌던 처녀는 이내 다시 개찰구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두손으로 바가지를 받쳐들고 자못 조심스럽게 뛰어오고 있다. 나는 서서 볼수가 없어서 기차에서 뛰어내려 마주 달려나가 바가지를 받았다. 처녀는 숨이 차서 할딱거렸고 얼굴에는 땀줄기들이 흘러내렸다. 작업복저고리는 땀에 폭 젖어 등과 가슴에 착 달라붙었다.

우리가 차에 올라서자 발차신호가 났다.

처녀는 땀을 들일념도 않고 이내 초롱앞에 쫓크리고 앉더니 가제천을 씌운채 초롱을 한쪽모로 기울여 물을 한바가지가량 짜운다.

《그렇지! 가제천을 씌워야 새끼고기가 새지 않게 물을 짜울수 있을게 아닌가?》 나는 다시한번 탄복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그의 목덜미에 질펀한 땀을 훔쳐주었다. 처녀는 고개를 돌려 방긋이 웃음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가지의 물을 조금씩 초롱에 붓고 손으로 가볍게 저어주곤 한다.

그건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대번에 부으면 초롱물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 새끼고기에게 좋지 않다는것이다. 나는 또다시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바가지를 들고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어느새 나는 처녀의 충실한 조수로 되었다.

물을 갈아주고나서 한 정거장이 지나면 뿔프로 공기를 불어넣어야 하며 두번째 정거장에 닿으면 처녀는 바가지를 들고 뛰어내리었고 나는 시계의 초침을 가슴을 조이고 들여다보며 기다리곤 하였다. 그런데 처녀의 출발지는 아까 그 육신 각성한 성천역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먼 삼등이였다.

지난밤 삼등양어장에서 고기를 받아가지고 차를 탄 그는 밤새껏 뿔프질을 하고 물을 갈아주고 하면서 아침에야 성천역에 닿았다.

성천역에서는 또한 본바와 같이 개찰원과 아웅다웅한 끝에 겨우 차를 갈아탈수 있었던것이다.

나는 그 처녀가 쪽잠 한잠 못자고 꼬박 밤을 새우며 바가지를 들고 뛰어다녔을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서 그의 얼굴을 다시한번 쳐다보지 않을수 없었다. 생기 넘치는 까만 눈동자 별에 그을은 어글어글한 얼굴, 부단히 청춘의 힘과 정력을 발산하는듯한 탐탁하고 탄력있는 몸매...

피곤이나 지친빛이라곤 그림자도 찾을수가 없었다.

또한 처녀의 그 수수께끼같은 파란 수첩에는 정거장마다 우물이나 개울물의 위치를 그린 략도가 아주 세밀하게 적혀있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이미 가는길에 《정찰》해둔것이라 한다.

렬차간에도 물이 있지 않느냐 하나까 그 물은 소독약을 친 물이어서 새끼고기에게 해롭다는것이다. 물을 너댓번 갈아준것으로 미루어 그로부터 일여덟 정거장을 지났을 때였다.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물을 갈아줘야 할 정거장이 멀지 않았는데 처녀는 연신 초롱에

서 온도계를 꺼내보고는 미간을 찌프렸다. 온도계의 수은주가 25도의 눈금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렇지만 다음 역에서 물을 갈아줄텐데 왜 저렇가?... 그러나 처녀는 수첩을 꺼내들고 들여다보더니 더욱 침울해졌다. 웬 일인가?

나도 몹시 불안해졌다.

《아니 왜 그러오. 다음 정거장에서 갈아줄 차례가 아니요?》

처녀는 나를 돌아보며 이즈러진 미소를 지었다.

《다음 정거장의 우물은 좀 멀어요. 그래서 다음다음 정거장에서 갈아주려던건데...》

《그럼 뿔프로 환기나 하고 한정거장 건너뛰지...》

나는 자신없이 권고했다.

《안되겠어요. 인젠 온도가 건잡지 못하게 자꾸 올라가요. 제가 바보였어요. 갈적에 여기 역구간이 멀고 구배길인데다 긴 굴간이 있다는것을 타산해두지 않았거든요. 이러다간 고길 다...》

처녀는 차마 그다음 말이 안나오는지 입술을 잘근잘근 씹는다. 나는 그를 도울 방도를 찾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아바이!》

처녀의 까만눈동자에 번뜩 결심의 빛이 지나갔다. 렬차는 서서히 역구내에 들어서고 있었다. 처녀는 초롱옆에서 바가지를 집어들더니 렬차가 채 몇기도전에 냉큼 뛰어내렸다.

《아바이, 얼핏 갔다오겠어요!》

어찌도 빨리 철길을 가로질러 뛰어가는지 파란 머리수건의 꼬리가 해병모의 땡기처럼 뒤로 나뭇긴다.

(아니 어찌자구...)

그러나 미처 말릴 사이도 없었다.

나는 몹시 조바심이 나서 팔뚝시계초침을 연신 들여다보면서 처녀가 다시 개찰구로 뛰어나오기만 고대하였다. 그러나 일은 틀렸다. 차장이 푸른기를 들었던것이다.

《아 잠깐만!...》

하고 나는 저도 모르게 소리질렀으나 뚜- 하고 길게 발차기적이 울렸다. 차는 흠칠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승강대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였다. 내릴가?... 그럴수도 없고, 타고 있을라니 불방석에 앉은 마음이다.

이때에 처녀가 개찰구로 총알같이 뛰어나왔다.

그렇지만 때는 늦었다. 차는 벌써 속력을 내면서 역구내를 벗어나고 있었던것이다.

처녀는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온다.

오른손에 쥔 바가지에서 넘쳐흐르는 물이 햇빛에 번쩍거리고 어깨뒤로는 푸른 수건자락이 날린다. 처녀는 뭐라고 자꾸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지만 알아들을수 없다. 나도 《어이- 빨리빨리-》하고 소리지르다가 그만 맥을 놓고말았다. 벌써 처

너는 까맣게 떨어져버린것이다. 처녀는 역구내 끝까지 달려와서는 우뚝서서 멍하니 차꼬리를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저런!》

나도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다.

순간 나의 눈앞에는 왜 그런지 그 맑은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을 처녀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저려들었다.

자 어떻게 할것인가?... 나는 고개를 돌려 승강대우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아까 처녀에게서 강의받던 길손들이 모두 나와서서 근심어린 얼굴들로 초롱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단났구만!...》

상고머리청년이 중얼거렸다.

《다음 정거장에다 내려놓으면 안될가요?...》

중년의 농민이 자신없이 말하며 나를 쳐다본다.

《그게 좋겠습니다. 참 제가 다음 정거장에 닿으면 뛰어내려가서 지나온 정거장에다 전환 걸지요. 처녀더러 와서 찾아가라구요...》

큰 수라도 난듯이 청년은 앞으로 나서며 이렇게 력설한다. 사람들은 모두 나만 쳐다본다.

《그렇게 하면 될수 있겠쎬까, 선상님?...》

생강술 마시던 할아버지도 불이 죽어가는 대통을 빨념도 않고 든채 근심한다.

《그렇지. 다음역에 내려놓고 전환 건다?... 될수 있지...》

그러나 다음순간 나의 눈앞에는 아까 초롱속을 들여다보며 흐려지던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물도 안갈아준걸 그대로 내려놓고 가!... 처녀가 찾아갔을 땐 고기새끼들이 다 죽어 물우에 둥둥 떠있을게 아닌가? 안되지. 안돼!)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우선 긴급조치로 보따리를 풀고 뿔프를 꺼냈다.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 내가 까닭을 말했더니 참 신통한 처녀라고 혀들을 끝끝 찬다. 내가 호스끝을 쥐고 상고머리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뿔프를 눌러 공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다시 공론을 하였다. 결국 초롱을 그냥 내려놓을것이 아니라 우리들중 한사람이 초롱과 함께 내려서 물도 갈아주고 처녀를 기다렸다가 밤차에 함께 타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다시 론쟁을 일으킨것은 누가 남느냐 하는 문제였다. 제가끔 제가 내릴수 있다고 열렬히 들고나오는바람에 어떻게 결론을 지을수 없었다.

(누가 내릴것인가? 상고머리청년이?... 할아버지?... 아니면 저 농민?...)

그러나 그것은 안될 말이다. 그들을 믿고 내릴 길수가 없다. 이 초롱속에 있는 처녀의 《과학과

기술》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것이 아닌가? 온도계도 뿔프, 물을 한바가지씩 질금질금 갈아준다는 것도... 암 내가 내려야지... 내가...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런데 어느덧 차는 다음역에 닿았다.

나는 경황없이 차간으로 달려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시비할 사이도 없이 처녀의 초롱과 보따리를 부둥켜안고 역구내로 뛰어내렸다.

렬차는 떠나갔다. 길동무들은 승강대란간에 얼굴을 내밀고 손을 저으며

《부탁합니다-》

《수고하시겠소-》

하고 소리를 친다. 내가 초롱을 들고 몇발자국을 옮겼을 때였다. 역사에서 모자에 붉은 테를 두른 역장인듯한 사람이 달려나왔다. 그는 떠나가는 렬차를 보자 우뚝 멎어서서 실망한듯이 손을 책 내리그었다. 그러다가 문득 나를 발견하고 한참 바라보더니 다가왔다.

《저 미안하지만 혹시 이게 물고기새끼가 들어 있다는 초롱이 아닌가요?...》

하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니까 방금 저편 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임자가 찾으러 갈터이니 내리워 보관했다 달라는 부탁이 왔다는것이였다.

내가 초롱을 가지고 내린 사연을 말했더니 그는 더 좋다고 하였다. 나는 급히 정거장앞의 우물로 뛰어가서 물 한바가지를 퍼다가 처녀가 하던 식으로 새물을 갈아부었다. 온도계를 꺼내보니 20도로 내려갔다. 초롱안의 고기들도 썩 활발하게 노는것 같았다. 하지만 여러문마리가 배를 뒤집고 둥둥 뜬것을 건져내면서 나는 못내 가슴아파 견딜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초롱을 들고 대합실에 들어갔다.

해도 안들이쪼이고 통풍이 잘 뚫직한 대합실 복판에 초롱을 놓고 걸상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허리마디가 빠근하였다. 정말 아바이란 말을 듣게 되었구나하는 서글픈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붙여물고 대합실안을 살펴보았다.

꽤 넓은 대합실은 웅덩그렇 비었다.

벽에 높이 달아맨 시계만이 유난히 똑딱거리었다. 이따금 길게 짧게 울리는 전화번호가 사무실 쪽에서 자지러지게 울릴뿐 그야말로 적막하다.

불쑥 나는 이 호젓한 산간역에 다시는 그 우렁찬 렬차의 기적소리가 찾아오지도 않을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밤차시간까지는 아직 열시간이 더 남아 있다. 나는 나의 길을 방해한 길동무처녀에 대하여 화를 내고싶었지만 눈앞에는 오히려 땀을 철철 흘리며 달려오는 처녀의 사색이 된 얼굴이 떠올라 지워지지 않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초롱을 들쳐보니 새끼고기들이 활기있게 잘 놀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역사현관에 나서서 큰 길을 바라보았다. 이제 나를 만나고 무사한 새끼 고기를 보면 얼마나 놀라고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 오히려 내 마음은 흡족해지고 웃음까지 나오는 것이었다. 시계를 보니 처녀가 길 떠났으리라고 생각되는 시간으로부터 아직 한시간이 될까말까하다. 25리니까 아무리 빨리 걸어도 두시간은 걸릴 것이다. 나는 가방속에서 읽던 소설책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역시 굴줄은 눈에 잡히지 않고 주먹을 쥐고 달려올 처녀의 파란 머리수건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처녀의 고기초롱에 눈이 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군에서도 담수양어를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문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치산치수사업을 제기하셨을 때 건설된 저수지들에서는 담수양어를 하라고 교시하셨던 문제다. 우리 군만 하여도 치산치수사업을 통해 열두개의 대소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우선 시범적으로 자그마한 저수지로부터 양어를 하계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는 관심조차 돌리지 못했으니. 안됐군, 안됐어. 나 하나의 불찰이 생활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었는가? 처녀식으로 계산한다면 그것이 수백톤? 아니 수천톤의 물고기일지도 모른다....

나는 저으기 자책이 되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어찌하랴, 처녀가 오면 의논해보자. 우리 군실 정도 이야기해주고... 일부러 양어못을 파고도 기른다는데 글썽 막아놓은 저수지에서야... 에이 참!... 이렇게 나는 생각에 생각을 이어 골똘하였다. 그런데 문득 밖에서 통통거리는 발구름소리가 나더니 대합실문이 덜컥 열렸다.

처녀가 뛰어들었다. 나도 어지간히 놀랐지만 내앞에 숨이 턱에 닿아 할딱거리며 서서 눈이 휘둥그레진 처녀는 더욱 놀라운 모양이다.

입을 멎하니 벌린채 한참이나 말을 못하고 서 있다.

《아, 아니... 아바이!...》

25리를 한시간동안에 달려오느라 온통 땀과 먼지로 얼룩진 그의 온몸과 얼굴... 그리고 걱정에서 잠겨 생기를 잃고 뿌연게 잠긴 처녀의 큰눈을 바라보자 나도 가슴이 뜨거워 미처 할 말을 고르지 못했다. 나는 멋없이 빙긋이 웃으며

《자 어서 저 초롱속이나 살펴봐. 제대루 됐는지 원...》

하고 중얼거리며 초롱을 가리켰다. 그제야 처녀는 황급히 초롱으로 다가가 귀퉁이를 들치고 들여다보더니 온도계를 꺼내들었다.

푸른 수건을 두른 처녀의 머리가 나에게로 뻗어들었다. 순간 환희와 생기에 넘쳐 빛나는 그의 두눈동자는 그야말로 이슬을 머금은 머루알이라

고나 할가, 나는 평생 그런 눈을 본 일이 없다....

그러자 처녀는 일어서서 몇발자국 다가서더니 갈린 목소리로

《아바이!...》

하고 부르며 와락 달려들었다. 그의 부드러운 두손이 내 손을 꼭 그러친다.

《아바이... 물까지... 갈아주셨군요... 고마와요... 고마와요...》

처녀는 말을 더듬거나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더듬거렸다. 환희와 뜨거운 정을 억제 못하는 그의 큰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그의 두손에 꼭 그러쥐인 나의 손목으로는 처녀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어이구, 이게 무슨 못난 짓이요, 큰 처녀가 울긴...》

이렇게 나무라는 나도 웬일인지 눈곱이 뜨거워졌다. 눈물이란 슬픔만이 아니라 그 어떤 크고 깊은 감정의 북받침이기도 한 모양이다. 그러자 나를 쳐다보는 처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두볼에 보조개가 패었다.

우리는 나란히 결상에 앉았다.

《아바인 나때문에 내리셨으니 어떡해요?... 밤찰 타셔야겠군요. 무슨 급한 일로 가시는 길이나 아니세요?...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처녀는 거듭거듭 걱정한다.

《아니요, 아무런 바쁜 일도 없소...》

나는 처녀가 너무 미안해하기때문에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럴듯한 여행 목적을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당장 뭐라고 꾸며낼지 떠오르지 않았다.

처녀는 보파리를 풀더니 오리알을 한개 꺼내여 흰자위를 발가내고 노란자위만 보드랍게 부스러뜨려서 초롱안에 뿌려주면서 이렇게 물었다.

《아바인 어디까지 가시나요?》

《난 가산까지 가요.》

《네 가산이라구요?... 전 송봉까지 가는 데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럼 한고장 처녀로군그래... 어느 협동조합이요?》

《천개리야요.》

《천개리라... 그렇됐구만...》

《아바인 어느 리나요?》

《나 말이요?...》

나는 뭐라고 대답할가 망설이었다.

《읍에 사요.》

《저 어느 기관에서 일보시나요? 읍에 들리면 꼭 찾아뵙겠어요. 아바이신셀 어떡하면 다 갚을가, 참...》

《뭐... 난...》

하고 우물쭈물 넘기려는데 처녀는 그냥 간곡히 대달란다. 군당위원장이라고 하면 처녀가 얼마

나 당황해할것인가. 나를 몰라보는것이 도리어 다행한 일이었다.

《저... 난 군인민위원회 지도원이요. 참 그것보다두 처녀동무... 아니 이젠 이름을 좀 대주요.》

《명숙이야요, 오명숙...》

《그래 명숙동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어떻게 혼자 떠났소? 너무 영웅주의를 부려서 무리한게 아니요?...》

이 물음에 처녀는 뒤통문엔가 허구프게 웃더니 시무룩해졌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이나 덤덤하게 앉아서 오른손으로 무르팍을 쓸고 있다. 내리칸 길다란 속눈썹들이 자꾸 깜박거렸다. 문득 처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방그레 웃었다.

《아바이, 아무것도 안야요. 정말 아바이 말씀따나 내가 영웅주의를 좀 부린거예요. 그 말은 그만두세요... 참, 아바인 어디 갔다오시는 길이나요? 정말 무슨 급한 출장이나 다녀오시는거 아니예요?...》

처녀는 말꼬리를 돌리면서 자못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본다. 그러니 이 처녀가 끝내 나때문에 마음을 못놓겠다는것이다. 나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근심마요! 휴양갔다 돌아오는 길이요. 그러니 한가한 려행이지 뭐요...》

《네- 그러세요...》

그제야 처녀는 마음이 좀 놓이는 모양인지 숨을 호 내신다.

《그래 어느 휴양소에 가셨었어요?...》

《어디냐구... 아, 저 묘향산이요...》

나는 어망결에 이렇게 대답했다. 평소에 늘 묘향산구경을 하고싶었던 탓일것이다.

《아이참, 묘향산엘요?...》

처녀의 눈동자는 부러움과 호기심이 어려 반짝거린다. 나는 언젠가 화보에서 본 묘향산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럼소...》

《아바인 참 좋았겠어요. 난 아직 가본적이 없어요...》

처녀의 목소리는 몹시 부드러웠고 검은 두눈은 꿈꾸는 사람처럼 쫓겨려졌다.

《아바이, 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모든곳을 다 가봤으면... 온갖 명승고적들이며 대견설장들이며, 구름우에 솟아오른 산마루와 가없는 동해바다... 그러구 그러구...》

《가보구려, 그야 어렵겠소. 해마다 휴가를 받으면 기러기처럼 아무데고 훨훨 날아다녀보구려...》

《기러기처럼요? 아이 좋아요! 꼭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처녀는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대합실 복판에 놓인 물초롱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지금은 안돼요...》

《왜?...》

대답이 없다.

《저것때문에?...》

나는 처녀의 시선을 따라 물초롱을 바라보며 물었다. 처녀는 그냥 심란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인다.

《아니 동무 혼자서 양어를 도맡아 하오?》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바라보며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씹는다.

그러다가 명숙이는 혼자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우리 관리위원장동진 저에게 닭알장사애길 해요...》

《뭘, 닭알장사?...》

《옛날에 웬 사람이 닭알 한꾸레미를 들고 얼음판을 건너가면서 그 닭알을 깨워 닭을 기르구 그 닭에서 또 알을 받아 닭을 기르구... 이렇게 해서 10년후엔 큰 돈을 모아 열칸짜리 기와집을 살가 열마지기 옥답을 살가 공상하다가 그만 얼음판에 미끄러 넘어져서 닭알도 기와집도 다 박산이 났대요...》

《허허허, 그건 관리위원장동무가 무슨 일이든 잘 타산하고 짜고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한 말이겠지. 그래서 주그러들고 말았소?》

《전 자꾸 얘기했어요. 우리 조합의 저수지와 수리안전담들과 천개천흐름을 리용하여 고기를 기를수 있는데 이삼년후이면 여기서 알잡아도 오륙십톤을 낼수 있고 사오년후엔 백톤을 너근히 잡을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닭알장사 셈이라는거야요...》

처녀는 호-하고 한숨을 내신다.

《흥, 그럴법이 어디 있소?...》

나의 눈앞에는 당돌하게 생긴 천개리관리위원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천개리협동조합은 군내에서 쓸쓸하게 되어가는 편이고 관리위원장사업작풍도 좋다고 들었는데... 어린 처녀의 제기라고 알본게지...

《전 별 어리석은 생각을 다했어요. 집어치울가도 생각하구. 심지어 학교졸업하고 조합에 남은걸 후회까지 했답니다.》

《고중을 나왔소?》

나는 뻔한 소리를 물었다. 사실은 무엇인가 더 따뜻한 말을 하고싶었는데...

《네-》

명숙이 얼굴이 빨개졌다.

《전, 우리 고향 두메골을 생선고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꿈때문에 다 버리고 남았는데 일년이 지났어도 아무 일도 못치르었으니... 게다가 관리위원장아저씨 귀두 안기울이지... 그래서 저는 모든것을 후회하기 시작했구, 정말 내가 궁리한것이 닭알장사같은 망상이나 아닌가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턱이 있소?...》

《그래요, 아바이 하지만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날 밤 나는 피로움을 이기다못해 뒤동산에 올라가서 실컷 울었지요. 그러자 웬일인지 정신이 좀 거뜬하게 맑아졌지요. 나는 앉아서 꿈꿈히 생각에 잠겼어요...》

《저런!... 그래서 어찌되었소?...》

처녀는 대답이 없이 이윽도록 묵묵히 앉아있었다. 망설이는 빛이었다. 그러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기다리는 나의 얼굴을 보자

《아바이, 웃지 마세요...》

하고 다짐을 놓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처녀의 이야기는 결코 웃음거리가 아니었다.

《우리 고종동창생들 가운데 졸업한 다음 제 고장에 남아 일하겠다는 애들도 많았지만 대학이요, 공장이요 하고 제각기 꿈을 따라 날아갈 생각을 하는 동무들도 있었지요. 저도 처음엔 그 패였어요. 그런데 2학년때 한번은 마을에 사는 배나무집 할아버지와와 상봉모임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지주라곤 구경한 일도 없기때문에 <지주이야기>를 들으려고요.

<우리 이 고장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평생을 살아도 흰밥 한술가락, 생선 한토막 먹어보지 못하고 이 벽촌에다 뼈를 묻어왔단다...> 하는 말로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혹 어찌다가 흰밥 한그릇, 생선 몇꼬리 입맛이나 다셔본 사람이면 그게 평생을 두고 큰 자랑거리였다나요. 그런데다가 악독하긴 산골지놈이 더하다구 일년내 뼈빠지게 돌밭을 두저야 죽물 우려먹을 귀밀, 감자알토리도 변변히 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지주놈들이 싹 훑어가곤했대요. 그 할아버지는 머슴을 살았는데 한번은 하두 배가 고파서 지주집 외양간을 치다가 여물찌끼에 콩알이 섞인것을 보고 그걸 몰래 갖다가 물에 걸러 콩알을 주어내서 뚫어 잡수셨대요. 그 말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그것이 벌써 30년전 먼 옛날애기지만 백골이 되어도 잊을수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처녀는 이야기를 끊었다. 얼굴에는 무거운 빛이 실렸다.

《그날밤 나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한잠도 못하고 모태기였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다시 검토하였지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우리가 늘쌍 그렇게 궁벽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해온 이 고장에 실상은 **김일성** 원수님의 해별아래 새로운 생활이 꽃피어나고 있다는것을 비로소 느꼈어요. 우리는 강냉이, 감자, 산나물과 산과실가공품을 나라에 보내고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이 평생에 한술갈도 못뚫다는 흰쌀을 끼를 비우지 않게 보내주지요. 어려서부터 나는 마을을 짝 둘러싼 산발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다 커서 날개를 달고 저

산벼랑을 넘어 훨훨 날아서 흥성거릴 큰 도시나 공장으로 가서 살아보나 생각했는데 그 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수령님께서 이 <하늘아래 첫동네> 인민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시려고 무진애를 쓰시는데 우리 이 고장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제 고장은 벽지니까 좀 뒤늦게 락원으로 들어서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수 있겠어요?... 그리하여 어느날 저녁 일기책에다 <나는 이 고장에서 사회주의락원의 노을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적어넣었지요...》

처녀의 얼굴은 사과알처럼 붉게 탔다. 어쩌면 그의 꿈은 나의 생각과 신통히도 같은가! 나도 수령님의 뜻과 빛을 따라 지난날은 이 나라에서도 가장 궁벽하고 락후했던 우리 하늘아래 첫동네 인민들과 더불어 약진하는 조국의 맨 선두에 나서서 사회주의락원의 대문을 열어제끼고 말리라고 굳게 속다짐하고 있는터이었다.

이것은 당일군으로서의 나의 필생의 념원이며 사업인것이다. 그렇다면 이 처녀는 얼마나 미덥고 뜻이 통하는 나의 동지이며 전우란말인가.

《웁소, 명숙동무, 동문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는 말을 못이었다. 그의 높은 뜻을 찬동할 말이 나에게는 더 없었던것이다.

《아이참, 아바이두, 그야 당연한 생각이지요 뭐...》

하고 처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후 <그렇다면 나는 이 고장에다 무엇을 해놓을것인가?> 하는 생각에 골똘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생물시간에 담수양어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문득 우리 고장에선 양어를 할수 없을까 하는 궁리가 들었어요. 글썄, 평생을 두고도 생선꼬리 한토막 구경 못했다는 고향사람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펄펄 뛰는 생선을 잡숫게 한다면!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쿵 뛰어서 저는 그날 종일 선생님의 강의를 귀박에 흘리며 공상에 잠겼댔어요. 그때부터 저는 양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름방학에는 삼등에 가서 한달동안 실습도 하구요... 이리하여 고향에 남은 제가 글썄... 일을 시작도 못한채 뜻을 꺾다니... 그날밤 뒤동산에 앉아서 이 모든것을 회상한 나는 고만한 일에 클쩍거린것이 스스로 부끄럽고 화가 나서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났어요. 산 아래마을에서는 마치 내가 마음을 바로잡은것을 반기기나 하는듯이 집집의 등불들이 다정하게 깜박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고 마을로 내리달렸어요...》

처녀는 이 말을 하면서 부끄러운듯이 고개를 숙인다. (암 그러면 그렇겠지! 명숙이가 손을 들었을수야 있는가?...)

나는 속이 후련하였다.

《참 용하요. 그래 그후는 어떻게 되었소?》

《그렇지만 그후에 전 또 어리석은것을 했더니

간요.··· 문제를 조직적으로 제기할대신에 그밤 그길로 저혼자 삼과 곡괭이를 메고 천개천기슭의 미리 점찍어둔 곳에 가서 새끼고기를 넣어 기를 못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매일밤 조합일이 끝나면 어머니에겐 민청에서 밤일을 한다고 속이고 몰래 나가서 파곤했지요. 한 보름 지나니까 몸이 축갔어요. 그렇지만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못을 파고 다문 몇마리라도 몰래 길러내서 래년엔 관리위원장아저씨의 고집을 꺾고야말겠다는 용졸한 생각에 잡혀서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밤 웬 사람이 구덩이 흙무지우에 나타났어요. 민청위원장동무였어요. 글썽 어머니가 밤마다 웬 작업이냐고 알아보려 찾아오셨더라는거야요. 나는 입을 꼭 다물고 대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할수 없었지요. 민청원이 동맹앞에 감출 일이 있느냐하는걸요 뭐, 시들하게 사연을 말했더니 뜻밖에도 그 동문 무릎을 탁 치면서 <아니 그런 굉장한 일을 왜 벌써 조직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소? 동문 참 독선주의자요.> 이렇게 말했다. 글썽 독선주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땡공이였고 조직성이라곤 없었지요. 그후 민청원들의 지지를 받구 리당위원장아바이도 저의 계획을 찬성하였기때문에 관리위원장아저씨두 하여튼 금년에 우선 한초롱을 갖다가 키워보라구 반송낙이 되어 이렇게 떠났답니다. 어쨌든 우선 금년에 한초롱을 키워서 명년에는 팔따시같은 잉어를 잡아내기만 하면 그땐 아마 우리 관리위원장아저씨두 눈이 둥그래서 생각을 다시 할거야요. 그렇게 되면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수지에 넣어 기를수 있을테지요··· 일년 밀지기는 하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일이 잘못됐군. 그 좋은 계획을 일년 밀지다니.)

《아니, 일년 밀져서야 되겠소? 명숙이, 이 일은 곧 시정하도록 하자우!》

《네? 시정하다니요···》

(아차, 실수했구나.)

나는 불쑥 나온 나의 말이 실수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명숙이는 아직 별다른 눈치를 못챈 모양이다. 나는 슬쩍 말을 돌렸다.

《명숙이, 난 동무의 계획이 꼭 성공되리라고 믿소. 암 되구말구!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고마와요, 아바이!》

《그런데 명숙이, 난 아까부터 이런 생각을 했소. 동무의 그 양어계획을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도입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요!》

《뭐요. 아바이? 전체 군에라구요···》

처녀는 손뼉을 딱 치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다. 생기와 환희의 불씨들이 눈동자에서 튀긴다.

《아바이, 그렇게 되문 얼마나 좋아요. 저두 그런걸 생각했었어요!》

《아 그럼 왜 벌써 군에다 제기하지 않았소?》

그러자 처녀는 시무룩해지더니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 아직 우리 동네 하나두 설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군에까지···》

《원 동무답지 않소. 그래 명숙이, 우리 군에 저수지가 몇개나 되는지 아우?》

《여라문개 되잖을가요?···》

《웁소. 열두개요. 동무네 천개리의것이 제일 작지. 그래 우리군 모든 저수지에서 양어를 한다면 얼마나 고기를 낼가?》

《매년 수백톤, 아니 천톤은 더 낼거야요.》

《그렇게 되면 온 군사사람들이 아침저녁 생선국을 먹구두 공장을 하나 더 세워야겠군.》

《공장이라구요?》

《암, 통솔임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하늘아래 첫 동네 생선맛을 좀 보시오 하고 온 나라에 보낼수 있을게 아닌가, 하하하···》

《호호호, 아바이두 참···》

이리하여 우리는 어느덧 군전체에 양어를 할 계획을 토의하게 되었다.

나는 군내 저수지들의 크기를 대체로 알고 있었으므로 명숙이는 그에 근거하여 2~3년내에는 년산 천톤 내외의 양어업이 우리 군에 생길수 있다는 계산을 해냈다. 적합한 어종으로는 잉어, 초어따위가 《결정》되고 사료원천은 무진장하다는 것이 탐구되었고 그밖에도 각 저수지들의 풍토적 특성에 따라 어떤 어종을 배치할것인가 등 아주 세세한 문제까지 《토의》되었다.

끝으로 나는 이런것을 제기하였다.

《명숙이, 내 생각엔 동무네 조합에서 각 저수지에 새끼고기를 공급할 종어장을 담당하는게 좋을것 같소.》

《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낼수 있을까요?》

《암, 문제없을거요. 참 명숙이, 그러구보니 양어란 아주 유리한 부업이요. 새끼고기 키워낼 종어장만 좀 로력을 들이면 다른 저수지엔 고기더미우에 올라앉게 될테니, 명숙동무, 우리 꼭 해내지요!》

《그래요. 아바이··· 하지만 군에서 될가요?···》

처녀는 못미덥다는듯이 나를 쳐다본다.

군인민위원회 지도원인 나에게 그렇게 할 힘이 있느냐 하는 미덥지 않다는 표정이다.

나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하하, 동문 날 파소평가하누만···》

《안아요. 그런건 안야요.》

《중소, 중소, 명숙이, 건 룡담이구··· 난 이렇게 생각하오. 우리 사회에선 어떤 직위의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는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제기

가 인민에게 리로운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벌써 우리 군에선 이태동안 저수지를 공놀린셈이요. 인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지. 손해를...

나의 목소리는 격해졌다. 그것은 일종의 자책으로부터 오는 흥분이였다.

처녀는 눈이 둥그래서 쳐다본다.

《명숙이, 내 군에 돌아가면 오늘 우리가 의논한 계획을 군당에 꼭 제기하겠소. 그리구 겸해서 동무네 관리위원장이 동무의 양어사업에 관심을 더 돌리게 해달라는것도 부탁하고... 어땡소?》

《군당에요? 될가요?...》

《암, 되구말구, 꼭 될거요.》

《그래요? 하긴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아바이, 그럼 부탁해요. 네, 꼭...》

우리는 계획과 계산들을 다시 검토했고 나는 그것을 수첩에다 또박또박 적어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창 신이 났는데 갑자기 역사 무실쪽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네? 네- 46화물차 아-뒤의 세멘 두차량 떼구 네- 알았습니다.》

명숙이는 사무실쪽으로 고개를 가우뚱하고 귀를 기울이고 입술을 잘근거리며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하더니 문득 일어섰다.

《아바이, 좀 기다리세요...》

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개찰구문을 제끼고 나갔다.

《?...》

이윽고 사무실쪽에서 명숙이의 낮은 다부진 목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한참이나 멍하니 그쪽을 바라보다가 담배를 붙여물고 어슬렁어슬렁 사무실문앞으로 걸어갔다.

《역장아바이, 그러시지 말구 절 도와주세요. 글쎄 국가적건지에서 보시문 되잖아요. 철도규정도 국가사업 잘하자는건데 글쎄 잉어새끼- 아니 잉어알이 다 죽으면 어떡해요? 역장아바이께두 량심적으로 보문 책임이 있지요뉘...》

사람 좋게 생긴 늙수그레한 역장은

《아니 뭐, 허허허... 그러니 내가 승낙을 안하면 동무네 조합 양어업이 총파탄이 되구 따라서 국가적이고 량심적인 건지에서 보면 역장인 나에게도 책임이있다 그 말씀이구만. 하하하... 내 원 50평생 철도에서 살며 별의별 손님을 다 대해봤지만 동무같이 당돌한 손님은 처음이요...》

《참 아바이두, 그대신 래위만 줘보세요. 제가 래년가을에 제일 큰놈으루 열마리를 골라 말려서 역장아바이께 드릴게요...》

《아니? 열마리? 원 간에 기별도 안가겠나... 하여튼 어찌겠나. 내 차장한테 말해보지. 그저 잉어 다섯통을 죽였다고 검찰소에 고발하지만 마우, 체네, 응, 하하하...》

《그건 걱정마세요. 역장아바이, 호호호.》

진심이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게 마련이다.

십분후에 길다란 화물차가 구내로 달려들어왔다.

덕분에 나도 화물차를 타게 되었다.

우리는 바람세 시원한 차장차 승강대우에 앉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다.

명숙이는 앞으로 군적으로 양어할 산천어와 초어에 대한 강의를 들려주었다.

그다음에는 나의 요청으로 천개리청년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축력제초기를 트랙도르제초기로 개조한 꺾다리 박동무며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어야 한다면 기상대를 설치하고 매일아침 일기예보를 하는 김동무, 가을에 받을 자동차를 맡기 위하여 양성소에 간 총각과 그의 애인 돼지사양공처녀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공연종목을 준비하고 있는 연극소조와 강냉이개량종을 연구한다

는 최동무에 대하여서며 금년가을을 끝내면 평양관광단을 조직한다는 등 이야기는 끝이 없을상 싶었다.

나는 명숙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개리협동조합은 마치 북받치는 힘과 열정과 지혜에 찬 처녀와도 같이 자기의 미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달음쳐가고 있다는것을 믿게 되었다.

이야기를 일단락짓고 명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승강대란간에 기대어섰다.

철길쪽을 따라 그닥 넓지는 않으나 푸른 강이 흘렀다. 높은 강벼랑에는 잣나무와 물오리나무의 검푸른 숲이 우거졌다. 드문드문 해빛에 번들거리며 뒤설레는 초록빛 무성한 가지를 온몸에 두른 비단결같이 하얀 자작나무들이 마치 자기의 몸매를 물속에 비추어보기라도 하는듯이 휘우뚱하니 벼랑턱에 고개를 기울이고 서있었다.

명숙이는 명상에 잠긴채 그 모든것을 바라본다.

시원한 강바람이 그의 옷자락과 푸른 수건과 귀밑머리를 흔들린다. 찡찡한 해빛은 명숙의 온몸을 담뱃 안아준다. 그의 입술이 열리더니 낮고 은근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청춘이여, 행복한 우리 생활이여

그대 준엄한 투쟁과

시련속에서 자랐구나...

나는 넋없이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찌하여 저 스물을 금방 넘겼음직한 어린 처녀에게 그렇게도 깊은 궁냥이 깃들어있을까?... 어찌하여 저 자그마한 가슴속에 든 심장은 이처럼 크고도 뜨거울까?... 온밤 온낮 쪽잠 한잠 못 들고 뛰어다니고 웃고울고 걱정하고 열변을 토하고 그리고고도 생기와 정력에 넘쳐 팽팽한 저 작은

몸의 어느 구석에서 대체 그런 큰 힘이 솟구쳐 나오는것인가?... 저러한 심장과 함께라면 끝이 없다는 우주의 끝까지들 못가랴! 아, 행복하구나, 행복!...

나는 새삼스럽게 행복하다는 흐뭇한 감정속에 잤아들었다. 머리우엔 언제나 밝은 태양- 우리 수령님께서 빛을 뿌려주시고 그밑에는 저렇게 총명하고 열정적이고 억센 붉은 심장들이 사는 이 땅, 이 나라에서 함께 살며 미래를 당겨오는 투쟁에 몸을 바친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나!

나는 부풀은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하면서 저도 모르게 귀에 익기 시작한 처녀의 노래곡조에 코 노래를 맞추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련차는 송봉역에 닿았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처녀를 도와 초롱을 정거장 개찰구까지 맞들어다 주었다.

나는 정다운 길동무와 헤어지기 싫었다.

더군다나 송봉리에서 명숙이네 천개리까지는 팔십리나 된다. 갈길이 근심스러워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명숙이, 좀 기다리오. 내 송봉리분주소장과는 잘 아는 사이인데 동무네쪽으로 가는 차편을 주신 해주라는 쪽지를 써줄테니 갖구 가우...》

《쪽지요?... 고마와요, 아바이... 하지만 괜찮아요. 저... 민청위원장동무가 송봉리야장간에 맡긴 제초기 수리한것도 찾을겸... 달구지 갖구 나오겠어요...》

명숙이는 민청위원장말을 꺼내면서 얼굴이 빨개져 더듬거렸다.

하하 그런 사인가보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빙긋이 웃었다.

《그렇겠소?... 참 동무네 민청위원장동문 아주 좋은 동무구만...》

명숙이는 목덜미까지 새빨개졌다.

나는 주책없이 룡담한것을 후회하였다.

때마침 신호가 나기에 나는 명숙이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는 거뜬거뜬 신세를 못잊겠노라고 되풀이 하였다. 나는 비록 본의는 아니었지만 결국 끝까지 나의 신분을 처녀에게 숨긴채 헤어지는것이 가슴에 걸렸다.

그러나 인젠 사연을 풀 겨를도 없거니와 인차 틈을 내서 검사검사 천개리를 한번 찾아갈 생각을 다짐하면서 헤어졌다.

그렇다, 곧 천개리조합에 종어장을 설치할 조치를 취하자, 책임자는? 아무렴 명숙일 시키지, 아직 어린데?... 원 별소릴, 심장이 중요하지, 심장이, 그 앤 해내구야말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차장차에 막 올라서는데 《아바이...》하고 부르는 소리가 뒤따라왔다. 내곁에 뛰여온 명숙이는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바이, 저 군당에 제기할 때 관리위원장아저씨에 대한 문제만은 그만두세요...》

《왜 또 갑자기?》

《사실 우리 위원장아저씨 좋은분인데 워낙 양어사업에 대한건 잘 모르다나니 그런거야요...》

《그렇지만 일년이나 밀쳐서야 되겠소?》

《안야요, 안밀져요. 것두 저의 나약한 생각이야요. 어떡하든 저의 힘으로 위원장아저씨 설복하여 두초롱을 더 가져오겠어요. 그러니 아바인 군적인 양어문제에

만 힘써서 꼭 해주세요. 네?》

《동무 힘으로 해결할수 있을가?》

《하구말구요. 그래도 만일 정 안되면 정말 아바이한테 찾아가든지. 직접 군당위원장동지한테 가서 말하겠어요!》

《군당위원장?...》

글쎄 명숙이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인줄 모르니 어찌랴.

《종소, 명숙이, 용하오. 그렇게 하오. 당단체에 두 제기하구, 특히 관리위원장에겐 동무의 그 절절한 심정을 얘기하는게 좋겠소. 그 동무에겐 바로 그게 부족한것 같소. 그러구 그 민청위원장동무 방조두 받구... 그래두 만약... 만약 제대후 안되거든... 그뎐... 그뎐 군당위원장을 직접 찾아가오. 그게 좋겠소...》

이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처녀는 개찰구에 나가서 초롱과 보파리를 들고 돌아섰다. 나에게 보파리든 손을 높이 흔들면서 《안녕히 가세요-아바이...》

하고 온 구내에 울리도록 소리지르더니 종종걸음으로 정거장 앞길을 걸어나갔다. 나는 푸른 수건차락을 팔팔 날리며 마치 걷는것이 아니라 뿔겨나가듯이 가볍고 힘있게 걸어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오래오래 바라보며 서있었다. 마치 암만 들여다보아도 그 아름다움을 다 음미할수 없는 한 폭의 그림을 바라보듯이...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렇지, 래일 아침 군당집행위원회에선 이렇게 하자, 전원회의 결정실행에 대한 기본방향만 제시하고는 모든 집행위원들에게 조합들을 노나맡겨서 내려보내자, 그렇지, 난 천개리부터 가 봐야겠다. 당결정의 굴발속에서 실무적인 지표나 목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 운명을 감득하는 저 크고 뜨겁고 총명한 심장들을 찾아가 투 쉼어놓고 의논하자!...)

회의때마다 강조하고 책에서마다 읽는 말이지만 그것이 한사람 한 일군의 실생활속에 진리로 융해되며 품성으로 체득되기란 얼마나 힘든것인가?

뚜-하고 긴 고동소리가 울렸다.

렬차는 덜컹하고 몸을 떨더니 새로운 사업을 향하여 벅차게 들먹이는 나의 온몸을 앞으로 떠밀며 기운차게 발자국을 떼는것이였다.

1960

나는 쇠물에 정들었네

김정순

초소의 전우들아
제대배낭 메고 떠난
평양내기 이 땅크병은
여기 북변 철의 도시에
《무한궤도》 멈췄네

처음에야 쨍쨍한 북방사투리
귀에 좀 거슬리긴 했지만
나야 쇠물보고 왔지
사투리쯤 눈감았네

쇠물! 언젠가 우리 장군님
보호경너머 바라보시며
보기만 해도 기운이 난다고
용해공 어깨를 두드려주셨다네

왜냐면 쇠물-그것은
기계였고 총이였고
조국의 강대한 힘이였거든

쇠물을 길들인다는건
눈 높은 처녀를 휘어잡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네

쇠물을 안다는건 바로
사랑을 아는것이였지

왜냐면 쇠물-그것은
불이였고 열정이였고
조국의 큰 심장에 끓는 피였거든

...어제날 부대의 기준땅크병이
진짜배기 용해공이 되었다고
온 제철소가 떠들썩하던 그날에
나는 처녀와 나란히 걸었네
참말 쇠물같이 열렬한 처녀와!

나는 속삭이였네
쇠물빛에 시누런 구내의 가로등은
구리빛대포알 같다고
사품치며 흐르는 쇠물을 보느라
웬일인지 끝없는 무한궤도소리 들린다고

왜냐면 쇠물-그것은
땅크였고 대포였고
펄펄 끓는 선군강국의 생명수였거든!

아름다운 골짜기

김정철

조잘대던 시내물소리도 찾아들고
내 걸어온 길도 끝나는
골많은 구성에서도 마지막골짜기
앞에는 네귀반듯 산뜻한 표식판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

장군님 모셨던 그날처럼
푸른 산판엔 한벌 깔린 염소, 젖소때
바닥엔 바닥대로 또 한벌 오리, 계사니
흰구름우에 흰구름이 피고 피어나
풍요한 그 깊이를 썰수 없는 골짜기

치즈란 말, 이제껏 귀에 설던 말이
우리 말로 친근해진 젓가공실을 나서서
메기때 옥실대는 양어장을 거쳐
내 문화주택 트랙에 들어서니
가스로 밥을 짓는 너인의 코노래

놀랍구나, 눈감았다 뜨니 룡궁이라고
통강냉이 한줌으로 끼니를 예우던
《고난의 행군》은 어제런듯싶은데
이러히도 가까이 있었던가
고개하나 너머에 이런 락원으로

원썩들은 기아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굶어죽고 얼어죽길 꾀했어도
삶은 수탉이 해를 칠 그때까지
개꿈에 잠겨있을 어리석은 놈들을
까마귀떼 우는 그곳에 떨켜두고

하늘로 솟은듯 땅으로 잦은듯
구름속에 사라진 뿔찌산의 마차처럼
선군의 마차라고 켜, 켜
순식간에 우리는 여기 락원으로 왔구나

아름다운 남산리가 한눈에 안겨오는
전망대에 올라 내 지금 보고 있노라
우리 장군님 여기서 환히 웃으시며 보시던
멀리 저 멀리

산이 많고 골이 많은 내 나라
선군의 그 길우에 이렇게 일어서 마주오는
우유의 골짜기, 고기의 골짜기들
아, 시내물소리 끓여진 곳에
우유가 흘러가는 그 소리 들려올듯...

기다리는 교정

김명진

학창시절의 못잇을 자욱을 남기고 교문을 나설 때 희망은 마냥 부풀어오르기만 한다.

하지만 후날 어른이 되어 추억이 깃들어있는 모교에 들어서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지각이 있고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일수록 모교에 찾아 오기를 망설이게 된다.

그리운 선생님들이며 낯익은 교사며 몰라보게 키를 솟군 정든 나무들이 너는 그동안 어떤 인간이 되어 모교를 찾아왔느냐고 묻는듯싶어...

그 물음에 대한 생동한 대답을 나는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에서 찾게 되었다.

그날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로정을 따라 복도에 나붙어있는 《우리 학교에서 배출된 영웅들》 소개판 앞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이 학교는 지난기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 19명의 영웅을 배출하였다.

10명의 공화국영웅과 9명의 로력영웅... 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영웅을 키워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영웅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경력이며 위훈내용을 더듬어보느라니 알찬 열매를 가꾸어온 이 학교 교직원들의 숨은 노력과 땀방울이 뜨겁게 헤아려진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학교 교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어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직업적혁명가이며 후대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사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던것이다.

영웅소개관의 맨 끝자리에는 《20번째 영웅은 누가될것인가?》라는 표제의 빈자리를 남겨놓았는데 이 앞을 학생들은 무심히 지나지 않는다. 이 물음앞에 자기자신을 세워보며 어제날의 영웅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자기도 영웅이 되려는 결심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것이다.

취재를 마치고 나온 나는 뜻밖의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운동장둘레에 늘어선 은행나무아래서 어제날의 제자와 스승간의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졌던것이다. 두눈이 서늘하고 리지적으로 보이는 40대에 이른 장년이 머리가 희슬희슬한 녀선생의 두손을 잡고 놓지 못하는것이였다. 습벽이는 두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학교를 찾아주셨다

는 소식을 듣고... 출장길에 들렀습니다.》

《이게 몇해만이에요? 정말 잘왔어요. 웅철동무야 모교에 뽀뽀이 들어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동무의 경력이며 위훈에 대해서 하나하나 료해하셔어요...》

어제날 담임선생님의 갈린 목소리...

김웅철, 그러니 방금 영웅소개관에서 본 그 로력영웅이 아닌가 이름이 어딘가 낯익은감이 있어 영웅의 얼굴을 새삼스레 더듬어보느라니 나에게 는 희미해진 추억의 갈피에 묻혀 있던 한 소년이 떠올랐다.

장자강기슭에 자리잡은 우리 동리에는 분단위원장표식을 달고 다니는 한 소년이 있었다. 공부도 잘하고 품행이 바른 그 애는 학교뿐아니라 동리사람들이 다알고 있는 모범학생이였다.

어느해인가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조직하였다. 그때는 답사로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때여서 학생들은 오가산령에서 그만 길을 잃게 되었다. 밤은 깊어가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아무리 헤매야 길을 찾을수 없었다. 춥고 맥이 난 일부 학생들은 겁을 먹고 되돌아가자고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때 담임교원은 작정이를 주어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학생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조국을 더 잘알기 위하여 혼자서 이 길을 걸으시였는데 우리가 이만한 난관에 주저하겠는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을 따라 역세게 걸어가자고 호소했다.

분단위원장이 먼저 일어나 잠시나마 난관에 주저한것은 소년단원답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동무들을 고무추동하였다. 그밤에 학생들은 제손으로 밥을 지어먹고 씹씹하게 노래를 부르며 오가산령을 넘었다. 이 행군길에서 분단위원장은 작은 동무의 짐을 던지고 맨앞에서 길을 헤치였고 구호도 부르고 노래선창을 떼면서 분단을 이끌었다.

어렸을 때부터 소년은 남다른 탐구심을 지니었다. 어느해 겨울 학급에서 책상과 결상을 수리하고 색칠을 새로할 때였다. 다른 일은 다 제대로 되었는데 책상은 몇번이나 먹칠을 했는데도 색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담임선생으로부터 항일유격대원들은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돛바늘로 재봉바늘을 만들고 통줄임통으로 국수분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충격을 받은 소년

은 새로운 도색재료를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는 참고서적도 보고 나이 많은 분들로부터 한 식물의 뿌리를 태우면 그것이 먹보다 더 새까만 색감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알아내어 그 원료로 새로운 색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탐구심이 많고 열정적이었던 소년은 학교에서 떠받들리었고 중학교 전과정을 최우등으로 마쳤다.

그는 대학추천을 받았으나 인민군대에 나가는 아들의 심정을 다 알지 못했던 그의 어머니는 동리녀인들에게 대견한 어조로 말했었다.

《원, 애두 무슨 고집이 그리 센지... 자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꼭 군복을 입겠다누만요.》

떠나간 아들한테서는 소식한장 전해오지 않았다. 집에도 학교에도 침묵을 지켰다. 여려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아들을 두고 그의 부모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애를 태우며 기다렸었던 그 소년이 오늘은 영웅이 되어 모교를 찾아온게 아닌가 기억이 삭막해져 이름마저 잊었던 어제날의 그 소년이 오늘의 로력영웅 김웅철이 분명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장한 일을 할수 있었어요?》

선생님의 물음에 김웅철은 조용히 대답하였다.

《저는 모교를 떠날 때... 조국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선생님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

다.》
조국이 기억하는 사람... 어딘가 가슴을 쿵 울려주는 말이다. 뜻이 깊은 그의 말을 새겨보느라니 방금 영웅소개판앞에서 교장선생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다시 귀에 들려왔다.

《언제나 남다른 탐구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생활하던 그는 병사시절을 거쳐 군관이 된후 국가적으로 매우 절실히 필요한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안았습니다.》

실패가 거듭되고 중학교졸업생이 어떻게 그걸 연구하겠는가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과연 자기 힘으로 성공할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주저하기도 했다.

그러나 초소로 떠날 때 조국의 참된 아들이 되라는 담임선생님의 당부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일떠섰다. 고심어린 탐구속에 6년만에 드디어 성공의 문어구에 들어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연구성과를 료해하시고 대학을 몇개 나온 동무보다 낫다고 하시며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안겨주시었다.

아마도 그는 선생님의 당부를 조국의 부름으로 새기고 순간순간을 끝없는 사색과 탐구로 이어갔으리라.

(그러니 어제날에는 동리에나 알려졌던 그 소년이 오늘은 온 나라가 알고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영웅이된게 아닌가!)

충격은 컸다. 김웅철이야말로 어제날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모교에 떳떳이 들어설수 있는 사람이였다. 자기를 배워주고 이끌어준 스승들앞에,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정든 교사며 나무숲을 머리를 쳐들고 바라볼수있는 사람이였다.

스승과 제자간의 뜻깊은 상봉을 방해하고싶지 않아 한옆에 점도록 서있던 나는 뒤늦게야 그를 축하해주고 싶어 그리로 몇걸음 옮겼다.

그러나 그것은 때늦은것이였다. 뒤에서 문이 확 열리더니 손에 꽃송이들을 든 여러명의 교원들과 학생들이 달려나온것이다.

《웅철동무!》

《선생님!》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졌다. 위훈을 세운 영웅에게 꽃송이가 아름답치게 안겨졌다. 모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안겨주는 꽃송이... 그것은 장한 일을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고향땅이, 조국이 안겨주는 값높은 표창이였다.

나의 인사마저 그들이 다 안겨주는듯싶어 나는 후더워오른 가슴으로 눈만 습벅이였다...

학창시절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모교를 찾아 오늘은 한 영웅이 들어섰다면 래일은 또 다른 영웅이 들어설것이다. 아니, 어제날의 선생님들이 기다리는 모교로 영영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다.

그가 모교로 돌아올수 있는 길은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위훈을 떨쳤을 때, 량심과 의리를 다했을 때, 값높은 삶을 지냈을 때 열리는 법이리라. 몸은 설사 돌아오지 못해도 조국이 알고 있고 어버이장군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면 모교에 떳떳이 들어서는데 아닌가.

(돌아올 권리...)

나는 마음속으로 뇌이며 영웅의 모습에서 눈길울 땀줄 몰랐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키워 주었고 크나큰 기대와 소원을 안고 기다리고 있는 모교에 저 영웅처럼 들어설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교정의 나무숲이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공채 아바이

김영근

요즘 신문들에는 인민생활공채구매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의 애국적소행이 널리 소개되고 있다.

바로 오늘호 《로동신문》에도 《인민생활공채구매에서 애국적열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라는 제목아래에 십여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었다. 그 십여명의 사진과 설명기사를 빠짐없이 보아내려가던 나는 《으흠!》하고 혼자소리로 탄성부터 질렀다.

우리 고향마을을 여든세살의 고삼덕아바이가 소개되었던것이다. 아울러 50여년전 첫 공채발행때 《공채 아바이》라고 불리우며 《민주조선》신문에 소개되었던 권오복의 애국적소행이 생각되었다.

나는 혼자소리로 내 고향의 자랑인 그들의 이름을 긍지롭게 불러보며 그들에 대한 추억의 세계에 깊이 잠겨들었다.

X

나의 고향마을은 랑림산맥의 중부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크지 않은 강물이 주절주절 유정한 정서를 자아내는 천갑리 어구촌이었다. 천갑리란 하늘에서 내려오다 첫 동네라는 뜻이라 하였다. 그러한 산간리의 첫마을을 어구촌이라 하였고 거기서 십여리 올라가 두번째 동네를 중촌, 다시 십여리 올라가 세번째 동네를 상촌, 이렇게 세 동네로 이루어진 한개리의 골 깊이는 사십여리나 되었다. 그 리의 첫 동네인 우리 어구촌의 매돌봉 기슭에 권오복농민네 집이 있었다. 그의 출생지는 삼남지대 어느 별방의 농촌마을이라 하였다. 5복을 누리며 살라고 부모가 권오복이라는 이름도 달아주고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외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소학교에도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가 열두살이 되던 1910년대 삼남지대를 휩쓴 장질부사 전염병에 량부모를 다 잃었다. 그는 하는수 없이 지주집의 머슴으로 들어갔다. 8년간 머슴을 살며 스무살이 되는 사이에 한집에서 부엌데기 머슴을 사는 처녀와 정이 들었다. 이것을 눈치챈 지주부부는 권오복에게 다른데로 가라고 하였다. 그들이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것이 배가 아팠던것이다. 지주내외의 속심을 알게 된 권오복은 밤중에 처녀를 데리고 떠나 머나먼 산간오지 천갑리 어구촌에까지 왔던것이다.

그들 부부는 곡식이 될만한곳에 화전을 일구고

강기슭을 따라오르며 낮은 지형들에 뽕기논을 몇배미씩 풀어 벼농사도 하였다. 그가 이 천갑리의 낮은 지대- 강기슭에 논을 풀어 벼농사를 하자 마을사람들도 강기슭의 낮은 지대를 논으로 풀어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중촌에서 60칸짜리 동기와집을 쓰고 사는 지주이며 구장인 장인택이 아들 경찰을 시켜 권오복을 불러 올리더니 그들 부부가 일군 화전은 자기네 산에 붙놓고 일군것이므로 자기네 밭이며 강기슭에 푼 논도 자기네 산기슭에 일군것이므로 5할 소작료를 바치라고 하였다. 권오복은 무딘칼로 베어내는것 같은 아픈 가슴을 안고 제가 일군 땅에서 제가 걷어들인 곡식의 절반을 꺾박꺾박 저다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 내 땅 가지고 마음껏 농사짓는 그런 세상은 없단말인가?)

권오복의 이 간절한 소원은 그의 나이 마흔여섯살이 되던해 봄,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토지개혁령을 발표하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질수 있었다.

토지를 분여하는 모임은 마을어구의 왕소나무 밑에서 진행되었다. 해마다 한번씩 있는 5월 봄명절날과도 같이 명절옷차림을 한 남녀로소 농민들이 빼곡이 모여앉았다. 면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30대의 젊은이가 검소스레한 무명바지저고리에 검은색조끼를 받쳐입고 군중앞에 나서더니 세대별로 분여된 토지면적을 발표하는것이였다.

권오복에게는 논 550평, 밭 4,400평이 분여되었다. 권오복은 우뚝 일어서며 《우리에게 땅을 주신 아버지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목청껏 웨치였다.

그러자 모두 일어나 《만세!》를 불렀다. 토지분여가 끝나자 권오복이 장고를 메고 군중앞에 섰듯 일어섰다.

흰칠한 키, 역센 힘이 느껴지는 듬직한 체구, 둥실한 얼굴에 새까만 상고머리, 머리색갈과 대조를 이루기 위하여 일부러 색칠해서 기르리라도 한것 같은 노르끼레한 구레나룻수염, 털부숭이 얼굴속에서 마치 수림속의 샘처럼 광채를 발산하는 눈빛, 장고채를 틀어쥐고 군중에게 내뻗친 북두갈구리 같은 두주먹 등은 땅의 주인이 됨으로써 천백배로 역세어진 이 나라 농민의 기상을 그대로 드러내는듯싶었다.

《여러분!》 그는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한생토록 노래라는걸 불러보지 못하고

춤이라는걸 추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농사꾼이외다. 그러나 땅의 주인이 된 오늘부터야 노래를 안부르고 춤을 안 출수 있겠습니까.》

그는 장고를 퐁당퐁당 두드리며 제나름의 즉흥적인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여보소 농부네들
우리네 평생소원
장군님이 풀어주셨소
농사꾼의 평생소원
땅밖에 더 있겠소
그런 땅을 내뿜으로
5천평이나 받았으니
천하지대본
농사꾼의 자랑 안고
그 땅의 이랑마다
구슬땀으로 적서가며
황금이삭 주렁주렁
만풍년을 마련하여
하늘같은 장군님은덕에
충심으로 보답합세

그때 키가 작달막하고 몸체가 다부진 청년 고삼덕이 《옳수다. 권아바이의 말과 노래가 다 옳수다.》 하고 호응하며 일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고삼덕이로 말하면 고비골의 외판집 고만춘농민의 셋째 아들로써 식구는 많고 밀이 찢지게 가난하다보니 딸 주겠다는 집이 없어 서른살이 다되도록 장가를 못갔었다. 일찌기 장가가는것이 통례로 되어있었던 그 시절에 그렇게 나이 많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으니 본인 당자는 말할것도 없고 옆사람들이 다 난처할 지경이었다. 지난해 8. 15해방직후 권오복을 비롯한 동네 어른들이 고삼덕의 처지를 동정하여 이쁜이라는 처녀의 부모를 설복하여 결혼을 시켜주었다. 오이씨같이 매끈하고 팔알처럼 되알지게 여문 이쁜이는 시집온지 두달만에 태기가 생겼으니 멀지 않아 삼덕이도 아버지가 될판이다. 곧 세식구가 될 그의 앞날을 생각하여 아버지와 형 그리고 동네 젊은이들이 도와나서서 매돌봉기슭의 권오복이네 집에서 동남쪽으로 건너다보이는 강동마을의 양지바른 기슭에 3칸 초가집을 지어 그들을 세간내 주었다. 그렇게 갓 세간난 그가 땅까지 독자적인 세대뿔으로 분배를 받았으니 어찌 춤가락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는가!

《자! 모두들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지요!》 고삼덕이 이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모두들 《와》 웃음보를 터치며 일어나 춤판에 뛰어들었다. 왕소나무아래터가 온통 춤판으로 번져지는 속에 해가 저물었다....

×

그후 권오복은 분배받은 모든 땅을 땀으로 갈구려는듯 알심있게 농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애국미헌납에서도 첫자리, 소학교건설자금을 내는데서도 첫자리를 차지하곤하였다. 그러면서도 2년후에는 부림소 한 짝을 사왔다. 그가 소시장에 가서 부림소 한마리를 사서 고삐를 끌며 집에 들어섰을 때 그를 기다리던 고삼덕이 달려나와 소고삐를 쥐여본다 소잔등을 만져본다하면서 《권아바인 또 한가지 소원을 풀었군요, 농사꾼의 큰 소원중의 하나인 부림소를 사왔으니...》하고 부러워하였다.

《허, 그렇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자네도 한 짝 사오게나》 《하, 그런데 부림소 한 짝값을 모으기가 험치않군요.》

《흠, 그러지 않아도 내 자네를 한번 불러놓고 짹짹하게 말해주자고 버르던 참인데... 그래 부림소 한 짝값이 건달뱅이한테 저절로 굴러들어올 줄 아나?》

소를 외양간에 들여다매놓고 나온 권오복은 노르끼레한 구레나룻을 두손으로 쓱쓱 문다져내린 다음 엽초를 대통에 꼭꼭 눌러 담아서 피워물고 온곱지 않은 눈길로 고삼덕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아-니 권아바이,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뭐 공짜돈이 생긴걸로 부림소를 사겠대나요?》

《실지로 농사를 잘지어 부림소 사뭇 생각을 했다면 분여받은 그 좋은 논과 밭을 가지고 왜 아직 소한 짝 살돈을 마련하지 못했겠나?》

《글쎄, 마음은 그렇게 먹구 한푼두푼 저축하는데 아직...》

《한푼두푼? 땅을 걸구고 착실히 일했다면 나보다 먼저 부림소 살 돈이 생겼을거네. 먹고살 걱정이 없으니 농사일대신 노는 날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장거리에 자주 나가 술이나 마시고 뭐 투전판에까지 끼여다녔다면서?》

《아 그거 뭐 친구들이 손잡아끌기에 젊은 혈기에 몇번 해보다가 돈만 떼우구 그만둔건데 뭐 그다지나 그러십니까?》

고삼덕은 주접이 들어서 얼굴이 빨개지며 변명조로 중얼거려었다.

《뭐라구? 젊은 혈기에 몇번 그런걸 그다지나 어떤다구? 몇번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도 그렇지. 김이 많은 밭을 뒤두구 술판이나 투전판으로 들어왔은 사람은 벌써 온전한 농사꾼이 아니야. 장군님덕분에 땅을 분배받던 날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던 자네가 어느새 놀음판으로 다니게 됐나 응?》

고삼덕은 권오복의 추궁앞에 응대할 말이 없어서 얼굴이 벌개가지고 한참이나 머리를 숙이고

말썽처럼 서있더니 《권아바이 말씀대로 농사일에
직심하겠어요.》 하며 사립문을 나서는것이였다.

권오복은 너무 욕만 해주었구나 하는 동정심이
솟구쳐 올랐다.

《여보게 삼덕이, 내 말을 마저 듣구 가게.》하고
권오복이 사립문밖에 나간 고삼덕을 다시 불러
들이었다.

《그래, 부림소 사려고 모아오던 돈이 지금 얼
마나 남았나?》

권오복이 동정심을 담아 물었다.

《부림소값의 절반도 못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로서도 이해 봄중으로 자네가 소
를 살수 있게 도와줄 형편이 못되네. 금년 농사
를 본때있게 하라구. 그래서 명년 초봄에는 부림
소를 사오자구. 그때 가서두 소 한쌍값이 모자라
면 내가 좀 도와 주겠으니...》

《권아바이, 고마워요. 내 꼭 농사일에 직심하겠
어요.》

고삼덕은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힘있는
걸음으로 사립문을 나섰다.

이해에 고삼덕은 알심있게 농사일을 하였다.

소출이 두배나 되게 났다. 이뿐이가 누에고치
도 많이따서 소살 돈에 보태었다.

다음해 이른봄날 고삼덕은 권오복아바이와 함
께 소시장에 가서 듅직한 얼룩황소를 샀다.

돈이 좀 모자라는것을 권오복이 보태여주어서
당장 논밭을 갈아엎을수 있는 얼룩황소를 샀던것
이다. 이해 봄에는 이 동네의 여러집들이 부림소
를 사들였다. 듅직한 황소를 사온 고삼덕은 너무
도 만족한 나머지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버지가
<화전농의 셋째 아들인 이 녀석으로서는 큰 덕
을 세번만 입어도 괜찮은것이니 이름을 삼덕이라
합시다.> 하고 어머니에게 말했다더니 정말 내
가 세번 큰 덕을 보게 되는가봅니다.》했다.

《그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덕에 이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

모자라는 돈까지 보태주어서 함께 소를 사가지
고 돌아온 권오복은 속으로 어처구니 없어하면서
도 삼덕의 달쁜 소리를 더 듣고싶어서 이렇게 물
었다.

《글쎄요. 너무도 듅직한 얼룩황소를 외양간이
그들먹하게 들여매고나니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
누만요.》

고삼덕은 자신의 오달진 체구가 그런 팔자를
타고나기라도 했다는듯 똑같은 주먹을 한번 꼭
쥐여보이면서 대답했다.

《그래 삼덕중에 오늘 듅직한 황소사온게 한변
의 덕이라면 또 다른 덕은 무엇인가?》

《아, 세간난지 두달만에 세대주자격으로 땅을
분여받은게 첫번째로 입은 큰 덕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덕은?》

《오늘로써 두번째 덕을 입었으니 세번째 덕은
앞날에 또 있겠지요 뭐.》

《앞날에 또 있겠다?》

《하긴 농사군에겐 땅이 있고 부림소가 있으면
다른 덕을 더 바랄것이란 없는건데 그래두 압니
까. 무슨 덕을 또 한번 입게 되겠는지...》 고삼덕
은 흐뭇이 웃기까지 했다.

《자네 민청원으로서 회의랑 학습회랑 참가하여
개명이 되었을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말하는 모
양새가 영 틀렸네.》

《왜요, 또 무슨 욕을 하시렵니까?》

《욕이야 무슨 욕이겠나. 나도 부모의 소원이
담긴 오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흔다섯살이 되
던 해방전까지 살아왔지만 일복도 누리지 못하고
갖은 고생과 불행만 당해왔네. 그게 다 왜놈들때
문이었고 왜놈을 등에업은 지주놈들때문이었어.
그러했던 내가 김일성장군님 덕분에 나라의 주인
이 되구 땅의 임자가 되고 부림소를 사맨 농민이
되구 세 자식이 다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이 되었
네. 자네도 마찬가지로.》

《아바이, 이제야 내 정신이 번쩍 드누만요.》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됐네. 그러길래 이제부
터 우리는 오직 장군님의 이 사랑과 은덕에 보답
하는 심정으로 농사를 착실히 지어 나라의 쌀독
을 그들먹이 채워야하네.》

《알겠어요. 정말 그래야지요.》

이렇게 대답한 고삼덕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농사일에 달라붙었다. 삼덕은 가을걷이와 탈곡을
남던저하여 현물세도 바치고 애국미도 남만치
바쳤다. 그러고도 남은 곡식이 많았다. 창고를 하
나 짓고 거기에 곡식가마니들을 하나가득 채워넣
으니 세상에 부러운것이란 없는것 같았다. 그
에게 저축미가 많다는걸 알게 된 건달뻥이 청년들
이 그를 또 꼬드겨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곡식창고도 듅뿍이 채웠겠다, 겨울 농
한기 한계절쯤은 놀아볼판이 아니겠나.》

《노세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노니라고 하
는 노래도 있지 않나》

삼덕은 그들의 말에 끌려 한번 두번 술놀이판
이나 투전판에 끼여들기 시작했다.

창고안의 곡식섬들을 팔아 투전뭉으로 쓰기 시
작했다. 돈이 돈을 먹어치운다는 말이 맞았다. 한
번지고 돈 잃으니 화집에 더 큰 돈을 대는식으로
한해 겨울을 투전판에 다니다나니 창고에 그들
먹이 쌓였던 곡식가마니가 없어졌다. 그의 행실
을 두고 울며불며 만류하는 사람은 안해 이뿐이
였으나 그도 남편의 추행이 부끄러워 다른 사람
한테 알려려고는 하지 않았다.

새해 봄이 다가오면서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으나 삼덕은 소를 믿고 농사일에 맡뒀고
나서기도 싫어했다.

2월말 어느날 남녀로소 모두 왕소나무밑에 모이라는 돌립말이 전달되었다. 왕소나무밑에는 토지분여를 받던 날처럼 어구촌 70여호의 남녀로소 2백여명이 명절날과 같은 옷차림으로 빼곡이 모여앉았다. 마을의 당세포위원장이 검스레한 무명천으로 지은 단긴형양복차림의 30대 사나이를 안내하며 군중앞에 나서더니 이제부터 면당지도원(당시)동무가 해설강연을 하겠다고 소개하였다. 면당지도원은 2백여명 농민군중을 한번 휘-둘러 보고나서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채발행과 관련된 문제가 토의되었다고 말했다. 공채를 발행하게 되는 요인과 목적, 그 내용과 공채구매방법 그리고 모든 공민들이 조국과 인민, 고향과 자신의 미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심을 높이 발휘하여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자고 말했다. 그는 왕소나무의 대밑에 걸상처럼 놓여있는 4각돌우에 앉으면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들여보내고 했다. 잠시동안 침묵에 잠겼던 군중속에서 권오복이 볼 끈 일어섰다.

《강연을 들으며 생각된것은 세기적인 랍후와 빈궁만이 남아 있던 우리 나라를 불과 5년동안에 오늘과 같이 전체 인민이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이 없는 인민의 새 세상을 세워주신 **김일성** 장군님의 령도가 얼마나 현명하고 위대한것이였는가를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뜨겁게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이번의 공채구매사업에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2년전에 부림소를 사뎌후부터 조금씩 모아 두었던 전액에다 돼지 두마리도 팔고 닭도 알반이 몇마리만 남겨놓고 다팔고 지난해에 엄지소가 낳은 중소까지도 팔아서 공채구매에 쓰겠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경탄과 공감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지나서 또 한사람, 련이어 또 한사람 토론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권오복은 70여호중에서 제일 많은 액수의 공채를 구매함으로써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그 날로부터 청년들은 권오복을 만날 때마다 《공채아바이!》하고 존경의 뜻을 표하곤 하였다. 권오복은 실지 구매로써 첫자리를 차지했을뿐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채구매에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다 동원하도록 적극 추동하였다.누구네가 얼마치의 공채를 구매하였는가 알아보고는 거듭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오복이 고삼덕이네가 한장의 공채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노하였겠는가.

그는 당장 무슨 일이라도 칠것처럼 고삼덕이네 집으로 불쑥 들어섰다.

《아니, 자네 공채를 한장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데 그게 사실인가? 그렇게 아니겠지?》

《...》

고삼덕이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대답이 없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이구만... 에익, 의리없는 사람같으니...》

권오복의 노리끼레한 수염오리들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고삼덕은 권오복의 입에서 쏟아져나올 추궁을 미리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권아바이, 공채구매는 철저히 자원성의 원칙에서 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 구매하지 못한걸 어찌겠나요?》하고 반문조로 말했다.

《음, 그러니까 자원성의 원칙인데 이 털보가 무슨 간참이나 하는 소리구만... 그래 자원성의 원칙이란걸 나두 잘 알아. 그래서 나두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부터 자네를 충고하는거네. 그래 듬직한 황소까지 부리면서 지난해 농사를 잘 지어 소출이 거의 두배나 늘어났다는것을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인데 창고에 잔뜩 쌓아넣었던 곡식가마니들은 다 어데로 가고 한장의 공채도 살 돈이 없게 되었나?》

《아, <공채아바이> 앞에선 변명해낼 재간이 없군요. 사실은 아바이의 충고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투전군들의 꾀임에 넘어가 한해 겨울사이에 창고는 다 비고 제 녀편네가 누에고치 팔아서 감춰뒀던 돈까지 다 굶어내다 짱그리 불어먹고 이 꼴이 되었는걸요.》

고삼덕이 눈물을 떨구며 사회조로 실토했다.

《으흠.》

권오복은 기가 막히여 무슨 말을 더해야 할지 가늠할수 없었다.

마음같아서는 얼룩황소를 팔아서라도 공채구매에 큼직하게 이바지해보라고 권고해볼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고삼덕이 농사군의 큰 소원으로 사들인지 1년밖에 안되는 얼룩황소를 팔아서 공채구매에 바칠 정도로는 준비되지 못했을것이라고 여겨져서 그러지를 못했다.

《하여간 무슨 변통을 좀 해보게.》

권오복은 이렇게 밖에 더 말하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며 공채구매를 잘 하자고 권고를 거듭하였다. 그래서 어구촌이 중촌이나 상촌보다 단연 앞장선 모범공채구매촌으로 되었으며 면적으로는 천갑리가 제일 앞장선리로 되었다.

공채구매사업이 있는지 두어달 지나서부터 권오복은 《농민신문》에 난 기사들을 들고 다니며 또 공채선전을 거듭하였다.

《자, 이 신문기사를 보라구. 우리들이 구매한 공채덕에 방직공장이 두배나 확장되구 현대적설비로 그뿐하게 갖추게 뻤어.》

그로부터 한달후에는 국영상점에서 파는 천을

사가지고 와서 《자 보라구. 우리 방직공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천이야. 이것이 다 우리가 구매한 공채와 관련된 성과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하고 자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공채아바이》라는 별호는 더욱 공고해졌다.

미제침략자들이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조국땅에는 모진 시련이 닥쳐왔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군 한개중대가 우리 군의 소재지를 강점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한 군당을 비롯한 군급간부들과 각면 각리의 간부들과 핵심당원들이 천갑리의 상촌 골짜기들에 모여들어 유격대를 조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날 권오복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방후 남으로 뺄소니쳤던 지주 장인택의 아들 장경철이 이 어구촌마을에 스며들어 건달뱅이이고 투전군인 조광세의 집에 숨어 있으면서 《치안대》를 조직할 공공이를 벌렸다는 것이다. 그놈이 청년들을 한명씩 한명씩 다섯명이나 만나고 군소재지로 나갔는데 그 다섯명중에는 고삼덕이도 들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며칠내에 이 천갑리에 장경철놈이 다시 기어들어와 《치안대》를 조직할 것이라는 것을 가늠한 권오복은 유격대 본부가 주둔해 있다는 상촌으로 갈것을 결심하고 안해에게 큼직한 자루에 쌀을 퍼담으라고 했다. 그러고나서 건넌마을 고삼덕이네 집으로 찾아갔다.

《삼덕이 있나?》

삼덕이와 이쁜이가 무슨 근심스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놀란 기색으로 오복을 맞이했다.

《여보게 삼덕이, 자네가 장경철놈을 만나고 <치안대>에 들겠다고 대답했다면서?》

《조광세너석이 나를 찾아와 자기네 집에 가서 구면인 손님을 만나라고 하기에 가보니 장경철놈이 기다리고 있다가 <음 삼덕이구만. 우리는 자네가 공화국국장이 찍혀진 공채를 끝내 한장도 구매하지 않았다는걸 알았네. 그러니 자네야말로 우리 편이지.> 하면서 나도 <치안대>에 받아들일 의향인데 어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옹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놈이 단매에 머리통을 까눌힐것 같아서 생각해보겠노라고 어정쩡하게 대답해놓고 돌아왔지요.》

삼덕의 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이쁜이가 끼여 들었다.

《그날부터 고민에 빠져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모대기고 있습니다. 권아바이, 이거 어찌면 좋습니까?》

《음 그렇게 됐군? 그래 이 일을 두고 무슨 생각되는바가 없었나?》

《권아바이가 그처럼 권고했는데도 내가 변통을 못해서 공채를 한장도 못샀더니...》

《문제는 공채 한가지에 있는게 아니야. 보다 더 큰 근본은 자네가 우리 세상, 우리 제도로부터 사랑과 은혜는 남못지 않게 받았지만 그에 보답하려는 열성은 없었던 탓이야.》

《아바이말씀이 다 옳아요. 그러니 이 일을 어찌면 좋겠나요?》 삼덕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토풀며 울상을 짓는다.

《어쩔게 있나. 이제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밤중으로 나와 함께 유격대로 들어가세.》

《유격대요?》 삼덕이 놀라운 눈을 치뜨며 권오복을 쳐다보았다.

《애국자와 반역자의 인품은 하늘과 땅차이지만 그 차이에로 갈라지는 첫 갈림길은 한치차이에 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그놈이 복수심을 가지고 집사람과 소를 몽땅 없애치우지 않겠나요?》

《이것저것 생각할 때가 아니야 자네의 안해야 푹푹하구 대바르니까 처신을 바로 할걸세. 당신들한테 간이후 집에 안들어왔노라고 하면서 내 남편 내놓으라고 행악하면 놈들이 오히려 수세에 빠질수 있어.》

그 말에 이어 이쁜이가 또 한마디 끼인다.

《뒤일이 어떻게 되겠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할만큼할테니 이 밤으로 <공채아바이>를 따라 떠나세요.》

《정말 당신 생각도 그렇소?》

고삼덕이 놀라운 시선으로 안해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요. 그런놈들 일에 다시는 당신이 끼여선 안돼요. 자, 빨리 준비하자요.》

이쁜이의 이 말에 이어 권오복이 한마디 더 하였다.

《그것보라구. 자네는 삼덕, 삼덕하더니 진짜 덕을 입은건 자네보다 몇배나 푹푹하고 착실한 안해를 맞은거야. 빨리 준비해서 지구 우리 집으로 건너오라구.》

×

천갑리 상촌의 한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군 유격대 대장(군당위원장)은 권오복과 고삼덕을 기꺼이 맞이해주면서 고삼덕을 기본부대의 대원으로, 권오복을 후방부 성원으로 임명해주었다.

임대한지 5일만에 어구촌에 내려가 많은 식량을 해결해가지고 올라온 권오복은 장경철놈이 건달뱅이였던 조광세놈의 랑통동기와집의 동권방에 거처를 정하고 건달뱅이 몇놈을 《치안대》원으로 끌어들여 애국적인 농민들을 체포해갔다는 정보를 가지고 왔다. 후방물자보장을 하면서도 비상한 열성을 가지고 전투훈련에 참가하였다.

원래 돌팔매질로 토끼나 꿩을 잡기도 잘해서 이름났던데다가 고삼덕이 장가드는날 견마잡이를 맡아가지고 색시집에 가다가 재봉지군들이 신랑

에게 들썩우는 재봉지를 권오복이 절반이상이나 되받아던져서 오히려 재봉지노름군들을 혼썰내었던것으로 하여 유명해졌었는데 유격대훈련에서도 날아오는 수류탄을 되받아던지기에서는 남다른 특기를 보이군 하였다.

《하, 권아씨제, 구레나룻으로만 보면 오십나이가 아니라 60도 지난것 같은데 수류탄 되받아던지기훈련때엔 삼십대 청년같아요.》는 말에 모두 즐겁게 웃었다.

그러던 권오복은 다음번 식량해결차로 마을에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였다. 함께 마을에 내려갔던 젊은 대원이 곡식자루를 꿩 들어메치고 그우에 엮디여 흐느끼는것이였다.

《뭐라구? 자세히 말하오.》

대장이 다그쳐 물었다. 고삼덕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마지막 식량을 우리 등에 지어주고 자기도 한자루 진 오복아바이가 산기슭에 붙었을 때 그 빌어먹을 달빛이 우리들의 움직임을 면바로 비쳤던지 <치안대> 보초놈이 때마침 발견했던지 우리쪽을 향해 총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조광세네 동컨방 <치안대> 실에서 자던 놈들이 일시에 깨어나 바로 우리쪽을 향해 몰려오며 총질을 거듭했습니다.》

권아바이가 대원 셋을 산호쟁이 따라 서북쪽으로 은밀히 기어 빠지도록 하고 자기는 적들을 유인하여 동컨산턱에 붙어 총을 쏘았다.

놈들의 총소리가 그리로 쏠리었다.

새 청년이 쌀마대를 메고 산등성이에 올랐을 때 총소리는 멎어버렸다. 두 청년이 쌀마대를 내려놓고 동컨산턱에 달려가 권아바이를 찾았으나 행적을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놈들에게 체포된것이 분명했다. 청년의 말을 듣던 삼덕은 오금을 꺾고 주저앉으며 울분을 터뜨렸다.

《내가 따라갔어야 하는건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장에게 다가갔다.

《대장동지, 제가 마을에 내려가겠습니다. 권아바이를 꼭 구원하겠습니다.》

눈물을 씻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빛이 어리었다. 그를 지켜보던 대장도 그의 두손을 힘있게 잡았다.

×

새벽 4시.

어구촌 매돌봉 중턱의 큼직한 소나무아래에서는 고삼덕이가 흰한 달빛에 드러난 마을 일경의 집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켜보이며 대원들에게 기습분공을 주었다. 동남쪽으로 회미하게 건너다보이는 강동마을 중심부에 자리잡고 들어앉은 량통 8간동기와집. 바로 장경철대장놈이 거처한다는

《치안대》본거지인 조광세네 집은 고삼덕자신이 앞장서 집중사격으로 기습해들어갔다.

동컨방을 차지하고 있는 놈들을 처단하고 열아홉명의 애국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창고로 달려가는 순간 그곳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랑채안에서는 놈들이 마지막발악으로 던져넣은 두개의 수류탄중 한개는 맞받아던졌지만 한개가 창고안에서 터지였다. 치명상을 받은 권오복아바이가 한 중년농민의 허벅다리를 베고 누웠는데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고삼덕이 너무나 원통하여 분기찬 목소리로 열여덟명 농민들을 빙 둘러보았다. 그 음성과 시선은 당신들 열여덟명은 모두 무사하고 경상자 몇이 났을뿐인데 왜 권오복아바이만이 이렇게 되었느냐는 질책이 어려 있었다.

《여보게 삼덕이!》

권아바이의 상처를 지혈시키던 삼덕이네 옆집 아저씨가 자초지종 말을 이었다.

《우리는 래일이면 사형장에 나가 무리죽음을 당할 차례였는데 자네들이 이렇게 내려와주어서 살아나게 되구. 더구나 이 오복형이 <치안대> 대장놈이 여기에 던져넣은 수류탄 두개중 한개를 되집어 내던지구 두번째 수류탄까지 내던지려고 집어들려 할 때 그놈이 터지는 바람에 자기는 저렇게 중상을 입구 우리만 모두 살아 있네.》

고삼덕은 《치안대》대장 장경철놈이 거처했던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란장판이였다.

책상서랍에는 뽕소치킨 그놈의 문건철이 있었다.

그것을 한장두장 넘겨가며 보던 고삼덕은 흠칫 놀랐다. 《치안대》에 받아들일 대상자명단에는 고삼덕 자기의 이름도 적혀 있었던것이다.

(아, 내가 어찌될번 하였는가?)

고삼덕은 몸서리를 치면서 권오복아바이가 하던 말들을 상기하였다.

《애국자와 반역자의 인품은 하늘과 땅차이지만 그 출발점은 한치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자네가 나를 따라 유격대로 가면 애국자가 되지만 집에 남았다가 장경철놈의 손탁에 쥐여져 <치안대>가 되면 반동분자 되는거야.》

(아, 《공채아바이》! 아바이가 아니었다면 이놈이 어찌될번 하였습니까? 못난 이놈을 손잡아 이끌어 유격대 분대장 임무까지 맡을수 있게 해주셨으니...)

고삼덕은 이렇게 속으로 뇌이며 문건철의 또 한장을 넘기였다. 다음장에는 《체포구금하여 심문 및 고문을 한 결과에 따라 처리할 대상자명단》이 있었다. 그 명단의 첫 자리에는 권오복이 쓰여져 있었다. 평상시에 우리 나라, 우리 체도를 위한 일에 그토록 헌신적이고 적극적이었으니

원썹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것이며 그래서 처형대상자의 첫 자리에 놓았을것이다. 그밑으로 내려가며 씌어진 이름들도 다 애국적인 농민들이였다.

놈들의 처형자명단의 첫 자리에 오른 권오복농민과 《치안대》 흡수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던 이고삼덕이 지금 유격대 대오의 성원으로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함께 안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묘한 운명의 흐름인가!

(아! 공채아바이!)

하고 고삼덕은 방금전에 혼자소리로 읊긴 말마디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나서 상촌의 유격대본부로 향해 빠른 걸음을 다그쳤다.

그가 유격대 군의소부터 찾았으나 권오복아바이는 그때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맥박은 점점더 약해져가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진다는것이였다. 군인민병원 부원장을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하여 군의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와 군당위원장인 대장이 방금 떠넘긴 약효가 나타나 의식을 차릴가 하여 숨죽인 긴장상태에서 권아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권아바이의 얼굴색은 점점 더 창백해지다못해 푸르듯해지는것이였다.

《권아바이!》

고삼덕이 더 참지 못하고 울먹이는 흐느낌속에서 간절한 호소가 담긴 어조로 불렀다.

그러자 뜻밖에도 권아바이의 이마살이 알릴듯 말듯 떨리는것 같더니 눈을 가느스름히 뜨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두손을 다 들려고 해보다가 끊어지지 않은 한손만 약간 쳐들어 고삼덕의 손을 잡아보고 그 다음 대장의 손을 잡아보고 인차 손맥을 놓는것이였다.

《아바이, 아바이때문에 한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아바이만...》

고삼덕이 생각할수록 너무도 안타까와 거들 흐느껴울었다.

《다 살았다! 다 살았으면 됐어!》

하고 스스로도 감격스러운듯 눈가엔 물기가 번쩍이였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고 오래도록 있다가 한 번 더 간신히 눈섭을 올리더니 한손을 올려 배허벅을 짚어보려 하는것이였다.

고삼덕이 얼른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배허벅을 헤쳐보이니 뜻밖에도 하얀 명주천에다 싼 공채가 나오는것이였다. 권아바이는 공채 한장을 손에 쥐여달라고 시늉하는것이였다. 고삼덕이 공채한장을 얼른 쥐여주었다. 그것을 손에 쥐고 들여다보던 공채아바이는 고개를 가늘게 저으며 뒤집어

달라는 시늉을 하였다. 재빨리 뒤집어주자 권아바이의 눈에 놀라웁게도 광채가 어리더니 공채장의 옷머리에 또렷이 찍힌 국장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공채장의 맨 옷머리에 찍혀진 국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더니 그 국장부위를 눈에 꼭 눌러대며 주루루 눈물을 쏟는 것이였다.

이윽고 긴 숨을 후- 내쉬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숨이였다.

고삼덕은 권오복을 와락 그러안으며 《아! 권아바이! 나같은 놈을 손잡아 이끌어 유격대의 분대장으로 싸우게 하면서도 제 한목숨만은...》

고삼덕은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였다.

고삼덕은 대장(군당위원장)의 말대로 권오복의 시신을 산기슭의 양지바른 곳에 우선 안장했다가 조국해방전쟁이 끝난후 어구촌 매돌봉중턱의 애국렬사묘로 다시 안장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승리로 끝난후 전후복구건설의 힘찬 노래와 함께 농촌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고삼덕은 어구촌농업협동조합조직의 선구자로 첫 관리위원장이 되였다.

전후 3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공화국정부는 전쟁전에 발급하였던 공채전액과 당첨금까지 상환해주었다.

권오복이 남기고 간 공채에는 2등 당첨까지 있어 원액보다 7배나 더 많은 돈이 나왔다.

리너맹위원장사업을 하는 부인이 남편의 뜻대로 그 당첨금을 받아 중학교건설자금으로 내놓았다.

나는 바로 그 중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에 갔었다.

대학을 마치고 XX신문사 기자로 배치받은 해 6월 나는 고향에 갔었다.

관리위원장 고삼덕은 나를 데리고 공채아바이의 묘에로 안내하더니 존경심과 애정이 사무치게 잠긴 목소리로 전후사연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는 것이였다.

지금도 나의 귀에는 권오복에 대해서 감회깊은 어조로 말해주던 고삼덕관리위원장의 음성이 그대로 들려오는것 같다.

반세기전 권오복아바이에 이어 오늘 고삼덕을 다시금 신문에서 보게 된 나는 새로운 감회에 잠기였다. 뜨거운 감회속에 날을 따라 높아만 가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소행에 나도 함께 나서리라 다짐했다.

주소없는 고향

정영종

추억에 사는것이 로인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생을 총화하기에는 먼, 인생의 여분이 아직도 충분하여 조국의 래일에 제나름의 큰 공헌을 남기려고 꿈꾸고있는 내가 어찌하여 자주 추억에 이끌리곤 하는것인지?!...

...인적드문 령길에서 만난 처녀군관, 길설 소나무 그늘에 서있는 그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발치에는 트렁크와 배낭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첫눈에 제대군관이라는게 알렸다. 현역군인이라면 사민의 표적같은 트렁크를 들고 다닐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며칠전 취재차로 동해연선의 한 발전소 건설장에 갔다가 돌아오던중에 있던 일이었다.

《상위 동무, 누구와 다뤘소? 아니면 자동차를 놓쳤는지?!...》

처녀의 눈물을 차마 외면할수 없어 나는 생색을 보였다. 그러나 곧 허를 깨물었다. 얼마나 싱거운 물음인가. 처녀라지만 군관하고 다들 사람도 있을법 하지 않거나와 군사복무의 《세례》를 겪을대로 겪었을 그가 30리쯤 떨어진 철도역까지 걷는게 고달파 울수야 없지 않는가. 어린 소녀 애처럼!

난데없는 사내의 목소리에 처녀군관은 흠칫 놀라 황급히 눈굽을 훔쳤다. 결눈질해보니 가뭇이 탄 살갗에 코가 상큼하니 쳐들린, 하여 위엄기와 발랄함이 묘하게 결합되어 나이를 대중하기 어려운 용모의 처녀였다.

《달리 생각마오. 길동무가 생긴게 너무 기뻐 그만... 내가 그 장구류를 좀 들어줄가?》

창피한 꼴을 보인게 측은스러워 고개를 외로 들고 있던 처녀군관의 눈이 일순 빠르게 쳐들렸다.

《아이, 그러니 손님도 군인출신이였군요!》하는 반색의 눈빛이었다. 그것이 우리사이의 친밀감을 이루어주었다.

우리는 싱갱이끝에 《장구류》를 나란히 맞들고 길을 떠났다. 처녀가 변명조로 말했다.

《미안해요. 우리 중대동무들이 역까지 배려주었다는걸 억지로 떼놓았더니 이렇게 폐를 끼치는군요.》

《고향이 어디요?》

《평양입니다.》

《아- 평양! 좋구만. 끝까지 함께 가게 됐으니.》

《그러세요?!》

처녀군관이 처음으로 생기를 띠고 기쁘게 부르짖었다. 나도 기분이 좋았다.

《얼마나 기쁘겠소. 그리운 부모님도 만나뵙고

못잊을 수도의 거리도 실컷 거닐고... 아마 눈이 뒤집힐거요. 그사이 굉장히 변모했으니까. 어쨌든 기쁘겠소.》

왜선지 처녀는 기대한것과는 반대로 처음의 쓸쓸한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이윽도록 잠자코 걸기만 했다.

《허, 정말 무슨 일이 있은게구만?》

《아니, 안예요!》 처녀가 놀랜듯 고개를 흔들며 대꾸했다. 《물론 기쁘요. 군사복무의 나날 한시도 잊은적 없는 평양이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대를 떠나자니... 왜 이리 마음이 허전할까요?》

《?!...》

《중대병영이 점점 멀어지고 오래동안 자매들처럼 다정히 지내던 대원들도 다 보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갑자기 울고싶어지겠지요. 발이 닳도록 오르내렸던 초소의 오솔길도 이젠 더 밟지 못하고 병사들과 함께 땀흘리던 화력복무훈련도 끝이구나, 이젠 영영 그곳을 <중대는 나의 집 정든 나의 집> 이라고 노래를 부를 권리가 없겠지?!... 하는 생각때문예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모실 영광의 그 시각을 기다려 중대를 꾸리고 춤노래를 준비하던 나날이 더욱 목메게 떠오르더군요. 그런데 울자니 배려주는 대원들이 곁에 딱 붙어 어디 기회를 줘야지요. 그래서 나중엔 막 성을 냈답니다. <왜 내 말을 안들어요? 이젠 중대장이아니라는거지요?! 좋아요. 내 마지막으 명령해요. 모두 뒤로 돌아, 목표 중대병영, 급보로 갔> ...》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처녀군관은 고개를 떨구었다.

강인한 처녀군관이였다. 헤어지기 괴로와 울먹거리는 대원들앞에서 끝까지 지휘관의 체모를 유지해낸 처녀, 할수없어 대원들이 멀리 떨어졌을 때에야 그는 마음놓고 실컷 울수 있었으리라. 제대나이를 두고 분하게! 초소와의 작별을 두고 슬게!

부지중 나의 눈앞에는 무척 오래전 변화한 도회지로 시집가면서도 텅텅빈 눈물을 쏟던 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큰 기계공장의 기사인 사내싸게 생긴 매부며 행복한 신혼생활이 앞에 있건만 누이는 자기를 낳아 키워준 정든 고향을 떠나는것이 몹시 슬펐던것이다.

하다면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곳, 위대한 장군님을 늘 몸가까이 모시고 사는 평양으로 귀향하는 이 처녀군관의 눈물은?!... 처녀군관은 더이상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렬차에 올라서도

그는 차창밖을 언뜻언뜻 스치는 아아한 산밭이며 비취색으로 번쩍이는 장쾌한 동해바다, 그 기슭에 펼쳐진 기기묘묘한 바위들과 벼바다 설레이는 풍요한 들판의 황홀경에는 거의 관심하지 않고 하염없는 생각에만 빠져있었다. 아마 떠나온 자기의 그 초소에서 마음만은 땔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어느덧 나도 그의 마음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초소, 이 땅 그 어디나 있는 병사들의 초소!... 저 이름없는 골짜기에도 외로운 갈매기만 날아예는 저 바다북판의 바위섬에도 렬차가 끊임없이 통과하곤 하는 무수한 차굴들마다에도 병사들의 초소는 있다. 무엇을 위하여, 그 어떤 갈망으로 심장을 뜨겁게 태우며?

갓 분대장으로 임명됐을 때 나는 평양-원산도로공사에 동원된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분대에 신입병사 한명이 배치되어왔었다. 처녀같이 곱살한 얼굴에 눈부터 새물새물 웃는 그의 이름은 최봉관, 유명한 평북 념변태생이었다.

《누이 있나?》

《예, 소학교 교원을 하는...》

《저 동물 닮았다면 꽤 곱겠구만?!》

《그러루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좋아! 어디 사진 좀 보자구.》

아직 서먹서먹해하는 그의 마음을 능처주려고 짐짓 결가지 처나간 분대장의 담화가 그만 여기에서 제동이 걸렸다. 최봉관이 갑자기 수상쩍어하며 경계하듯 나를 흘금거리기 시작한것이였다. 그다음 당돌하게 내뱉은 그의 대답이 걸작이였다.

《우리 고향집을 여기에 다 옮겨놓을 작정이 아닙니까? 뭐 나뉘건 없지만... 전 두고 봐야겠습시다. 분대장동지한테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때 얼마나 웃었던지... 하지만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든 전사였다. 《나뉘건 없다》는 소리는 결국 자기 역시 이 초소를 고향집쯤으로 알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바로 최봉관은 군복을 입은 순간부터 그 《고향집》의 막내의 눈으로 초소를 보기 시작했으며 그런 따뜻한 사랑과 신뢰가 흐르기를 기대하고 요구한것이였다!

1년후 최봉관은 우리 부대가 골짜기 하나를 통채로 가로막아 높이 쌓아올린 로반을 구원하고 희생되였다. 갑자기 쏟아진 산골장마비가 로반밑의 퇴수구에 아름이 넘는 바위들을 굴려 막아버린것이였다. 물은 급격히 불어올랐고 갓 성토한 로반은 그 중압에 밀려 금시 더질듯 부르르 몸부림쳤다. 위기일발의 순간 최봉관이 도화선에 불을 단 폭약을 안고 그속으로 뛰어들었다. 돌은

깨어져나갔으나 그는 나오지 못했다.

최봉관의 사품을 정리하다가 보았던 병사수첩의 한구절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분대장동지의 요구는 옳다. 주저 앉아서서는 안된다. 우리가 왜 세상이 아직 모르는 이 깊은 골짜기에 자기의 초소를 정했는가...》

오늘도 마식령의 어느 한 산마루에는 병사 최봉관의 묘비가 전선멀리 뻗어간 도로를 굽어보며 솟아있다. 그는 자기가 군복을 입고 처음으로 정했던 그 초소를 떠나지 않고 있는것이다. 이 땅의 천만병사들 역시 그렇게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 헤쳐가시는 선군장정의 길을 지키고 받드는 초석이 되어 세상이 모르는 이름없는 골짜기들마다에, 외진 숲속 오솔길들마다에, 파도 세찬 무명도들마다에... 빈틈없이 초소를 정하고 살며 싸우고 있다. 김광철, 길영조영웅들처럼 기꺼이 생명을 바치며, 청춘의 꿈도 미래도 군복을 얼룩지우는 땀과 기꺼이 바꾸며!

《손님도 군인출신이였군요!》

처녀군관의 눈빛언어가 새삼스럽게 가슴을 두드렸다. 《군인》이라는 호칭이 마치 어떤 출생지의 대명사인듯한 의미였다.

옳은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출생지를 물으면 자기 육신이 태어나 자라난 고향의 지명을 입에 올린다. 그와 똑같이 군사복무시절을 거친 사람들은 모두 또 하나의 출생지를 더 가지고 있다. 수령결사옹위의 신념과 의지가 굳게 뿌리내리고 거목으로 자랄수 있게 해준 참된 녀의 고향을!

그 지명을 굳이 찾지 말자. 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소안내소에도 오르지 않은 초소-병사들의 고향은 위대한 장군님 옮기시는 걸음걸음마다를 굳건히 받들수만 있다면 하늘땅 바다, 지어 수천척 지하막장 그 어디에나 다 자리잡고 있는것이어니, 다만 병사들은 한가지만은 알고 있다. 자기들의 초소를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모두 알고 계시며 자신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계신다는것을!

처녀군관은 그래서 울었던것이다. 그러나 그 눈물엔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것이라.

...하여 나는 늘 추억에 잠긴다.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에는 물론 기쁜일이 생겨도 자신에 대한 불만에 속썩이거나 어떤 새로운 계획과 구상에 흥분할 때에도 군사복무의 그 시절에 돌아가 그 시절의 눈으로 나를 투시해본다.

고향은 향수만이 아니라 그 고향의 아들 된 자각과 책임감을 깨우쳐 채찍질해주기에!

백모녀

백모녀는 세계적으로 중국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백모녀에 대한 이야기는 주체29(1940)년경 중국의 진찰기변구에서부터 민간전설로 류포되기 시작하였다. 한개 지방전설에 불과했던 이 이야기는 동명의 가극(가극문학: 하경지, 정의, 작곡: 마가, 구유, 출연단체: 연안로신예술학원)으로 옮겨져 주체34(1945)년에 처음으로 공연된 후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가극은 그후 동명의 예술영화 (영화문학: 수화, 왕빈, 양운신, 연출: 왕빈, 수화, 제작: 주체39(1950)년 중국동북영화촬영소)로 옮겨지면서 중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다.

백모녀에 대한 전설과 가극, 영화는 다 가난한 농민 양백로와 그의 딸 희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체24(1935)년 설날 그믐날 희아는 황지주의 빗독촉을 피하여 집을 떠난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희아는 세살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어머니처럼 믿고 살아왔다. 양백로는 설날만이라도 딸과 함께 지내기 위해 얼마안되는 밀가루와 빨간뎡기를 사가지고 돌아온다. 아버지와 딸은 옆집 왕가네 식구들과 함께 설맞이준비를 한다.

이때 양백로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황지주의 마름 목인지가 들어와 다짜고짜 양백로를 끌고 간다. 지주집에 끌려간 양백로는 빗대신에 딸 희아를 지주집 종으로 바친다는 계약서에 강제로 손도장을 찍히운다. 17년동안이나 길러온 외동딸을 빼앗기게 된 양백로는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서슬을 먹고 자살한다. 마름놈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기전에 희아를 억지로 지주집에 끌고 간다.

희아는 지주 황세인네 집에서 2년동안 갖은 천대와 수모를 받으며 종살이를 하였으며 지주놈한테 룡육까지 당하였다.

어느날 희아는 황지주가 후처를 맞아들이는 《대사》에 방해가 된다고 자기를 술집에 팔아버리려 한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함께 고생해온 식모 장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악마의 소굴에서 뛰쳐나가 산속에 몸을 숨긴다.

주체26(1937)년 가을 희아가 지주집에서 뛰쳐나온후 3년세월이 흘렀을 때 마을사람들속에서는 산당에 백발선녀가 나타나 제상에 놓은 제물을 가져간다는 소문이 퍼진다. 그 백발선녀-백모녀가 다름아닌 희아였다. 깊은 산속에서 지낸 고난

에 찬 생활이 아직 스무살밖에 안된 희아의 머리칼마저 하얗게 변하게 했다.

이무렵 일본군대를 치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하늘의 군대》-팔로군이 마을에 온다. 마을에 새 정권이 선다. 희아가 지주집에 끌려간 다음 마름놈을 두들겨채고 팔로군을 찾아떠났던 희아의 애인 왕대춘이 구의 지도원이 되며 언제나 마을사람들의 앞장에 섰던 조아저씨가 촌장이 된다.

황지주를 비롯한 마을의 반동분자들이 백발선녀가 노하는 날엔 모든것이 끝장난다는 요언을 퍼뜨리고 마을농민들이 그 요언을 믿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산속 동굴을 찾아간 왕대춘이 백모녀를 만나 그가 희아임을 알아본다.

왕대춘은 희아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와 그를 지주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으로 이끈다. 희아는 악질지주 황세인일당을 심판하는 인민재판에서 자기의 피맺힌 원한을 토로한다.

그리하여 악질지주놈은 처단되고 백모녀 양희아는 지주없는 세상에서 새 생활을 누리게 된다.

백모녀에 대한 이야기와 예술작품이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그것이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겪어온 피눈물나는 생활을 돌이켜보게하고 지주와 같은 착취자와는 한 하늘을 이고 살수없는 피맺힌 원썩라는것을 뼈저리게 느낄수 있게 하였기때문이다.

백모녀의 운명은 그 어떤 개별적녀성의 불행이 아니라 지난날 수많은 중국녀성들의 운명을 체현하고 있다. 사람들은 백모녀에게서 자신을 찾아보게 되고 전체 중국녀성들의 운명을 생각하게 되었던것이다.

백모녀에 대한 이야기와 예술작품이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또한 그것이 수난의 운명을 참고 견디기만 할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깨달을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때문이다.

《백모녀》는 주인공 백모녀의 진실하고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지주계급의 착취자적본성을 더욱 똑똑히 깨닫고 계급의식을 높이며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썩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가다듬게 하고 있다.

김왕섭

강반의 달밤

장선홍

1

백석리로 가는 버스정류소에는 도로사정으로 당분간 차가 다니지 못한다는 손바닥만한 글썽지가 붙어있었다. 장마철에 농촌지역들에서 가끔 보게 되는 피해때문이지만 봉길의 얼굴에는 대변에 실망의 빛이 어리었다.

공장대학을 졸업하고 도에 있는 기계연구소 조수로 옮겨왔다보니 여러해만에 받은 휴가인데다가 겨우 3일간의 말미를 얻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어서 하루밤을 리판에서 무료하게 보낸다는것은 맹랑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한걸음이라도 빨리 가 연구소 조수가된 자기의 의젓한 모습을 부모님과 고향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것이 그의 심정이었다. 벌써 읍거리에는 황혼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어디까지 가세요?》

문득 등뒤에서 울린 녀자의 맑은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머리에 하르르한 빨간 수건을 쓰고 등에는 배낭을 진 얼굴이 가무스레한 중키의 처녀가 까만눈에 생긋이 웃음을 띠우고 쳐다보고 있었다.

《백석리로... 가오... 그런데... 동문?》

《아이, 그러세요. 마침 잘됐군요. 함께 가자요.》

처녀는 봉길의 어정쩡한 대답에는 아랑곳없이 손뼉이라도 칠것처럼 기뻐하였다. 그의 까만눈동자에서 웃음이 불꽃처럼 확 피어나 온 얼굴로 물결처럼 퍼져갔다.

《전 까막골까지 가요. 한낮부터 서둘렀는데도 이렇게 늦어져 몹시 걱정했는데 이젠 길동무가 생겼으니 됐구만요.》

봉길은 까막골이라는 말에 반가움이 앞섰다.

까막골은 그의 고향마을을 채 못미쳐있는 이웃 농장인데 백석장을 끼고 있는 이 백리일판에서는 그 고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50리나 되는 길을 밤중에 가려고 하오?》

처녀는 배낭을 추스르며 살풋이 눈시울을 내리 깔았다.

《글쎄 뭐라고 할가요. 그럴만한... 아이, 그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지요 뭐...》

봉길은 처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아 더 묻지 않았다.

날은 빨리도 어두웠다. 읍소재지를 벗어나니 인차 서늘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미구하여 장마비로 한껏 불어난 백석강이 어둠속에 우렁이 룡박을 드러내며 좌-하고 소연한 음향을 몰아왔다.

백석리로 가는 길은 그 강줄기를 따라 곧추 뻗어있었다.

《동문 이런 밤길을 혼자 가는것이 무섭지 않소?》

《무섭긴 뭐가 무섭겠어요.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무섭겠어요.》

처녀가 여간 순진해보이지 않았다.

《이 고장에 무슨 전설이 있는지 아세요?》

《전설?...》

봉길은 호기심이 동했다.

《그래요. 이 백석강의 맑은 물을 마시면 하루밤에 구름을 타고 천리를 날아간다는거예요. 이 고장에 나라를 지켜싸운 애국명장들에 대한 전설이 많은것도 그때문이라는거야요.》

봉길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것이 내가 물은 말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거요?》

《저도 백석강의 맑은 물을 마셨으니 그런 장수힘이 있다는거지요. 어떤 <호랑이>가 나타난대도 물리칠수 있는 힘이...》

처녀의 말이 얼마나 확신성있게 울렸는지 봉길은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하하... 듣고보니 전설이 그럴듯 하구만. 그런 배심이면 세상에 두려울게 없겠소.》

처녀도 맑은 목소리로 가슴 후련하게 따라웃었다. 한참 웃고나니 둘사이의 오랜 지기처럼 한순간에 무척 가까워진듯 싶었다.

《배낭을 인주. 내가 좀 지기요.》

처녀는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배낭을 벗으려하지 않았다. 봉길은 억지로 배낭을 벗기였다. 등에서 가볍게 쇠붙이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무겁소?》

봉길은 무릅없이 물었으나 처녀는 쑥스러운듯 한동안 머뭇거렸다.

《염소젖분리기 부속이에요. 치차랑 나사랑 군농기계작업소에 가 깎아가지고 오는 길이에요.》

《염소젖분리기? 그럼 이게 모두 기름과 단백을 갈라내는 우유분리기 부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걸 가져다 뭘 하자는거요?》

《아이참, 뭘 하다니요. 치즈랑 빠다랑 젓가공품들을 만드지요 뭐.》

봉길은 지금 농장들에서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염소를 많이 길러 어디서나 젓가공시설을 꾸리고 있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까막골에서까지 이렇게 젓

가공설비를 차릴줄은 천만뜻밖이었다.

까막꿀은 해방전에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류량민들이 더는 갈 곳이 없어 하나둘 집을 풀고 화전을 일구면서 생긴 사람 못살 고장이었다. 농가는 수십여호 되어도 편지 한장 읽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까막꿀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오늘은 그때 일을 옛말처럼 하지만 아직도 다른 농장들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져있었다. 더우기 지금은 부족한것이 많은 어려운 때였다. 그런데 처녀가 그 일로 시간에 쫓기며 밤길까지 걷는다는것이 리해되지 않았다.

《어떤 형식의 우유분리기요?》

《접시형수동식우유분리기예요.》

《접시형이면 접시들의 재질이랑 흡을 맞추는 일이랑 여간 힘들지 않을텐데... 누가 도와주우?》

《아이참,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자체의 힘으로 하지요. 저랑 우리 청년분조원들이랑 또 기계화반 운전수들이랑 힘을 합쳐...》

어느 전문부문 기술자들의 방조를 받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봉길은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것이라고 해야 할지 봉길은 그러루한 가공설비들에 대해 일정하게 파악이 있었다.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품이 많이 드는 복잡한 기계였다. 봉길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통명스럽게 울렸다.

《동무넌 그 일을 무슨 염소우리 짓듯 너무 험하게 생각하는건 아니요? 아마 말처럼 쉽진 않을텐데...》

처녀는 그의 말이 수궁되는지 아니면 자존심을 건드려서인지 한참 입을 다물고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를 먹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지금 당장 어디 가서 기술자들을 데려올수는 없구해서 리당에서 기계를 다루어본 운전수들이랑 수리분조아저씨들이랑 또 기계화반대에서 복무했다는 제대군인도 붙여줬지만 다 뜻대로 안돼요. 제가 그 일루 도에 있는 과학원 분원에랑 몇번을 다녀왔는지 몰라요. 도면도 떠오르고... 하지만 눈에 익고 손에 선것이 기계내속이예요.》

처녀는 속이 상하는지 호- 하고 긴숨을 내쉬었다. 봉길은 그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었다.

《하지만 우린 락심하지 않아요. 고향을 위한 일인데 청년들이 하자고 결심하면 왜 못하겠나요. 장군님 명언에 있잖아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의 말은 얼마나 확신에 넘치고 자신심에 충만되어있었던지 봉길은 자기가 본의 아니게 그들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뉘우침이 들었다. 그래 서둘러 변명하듯 말했다.

《웁소.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지 않소. 속담에 천리길도 한걸음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노력해

서 안될 일이 어디 있겠소. 꼭 될거요.》

처녀는 그의 말을 고맙게 생각하는것 같았다.

하늘에 드리웠던 검은 구름이 갈라지며 사위가 흰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우중충한 산발들이 연줄연줄 자태를 드러내고 깊은 호수같은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그 호수기슭에 둥근달이 두둥실 떠올라 호심을 향하여 유유히 헤엄쳐가기 시작했다. 며칠을 두고 내린 비에 씻기고 씻기워 옥돌처럼 다듬어진듯 싶은 매끈하고 시원한 달이었다.

봉길의 입에서는 부지중 《야-》하는 탄성이 새어나왔다. 처녀는 방금전의 언짢았던 일은 감감 잊은듯 손뼉까지 찰싹치며

《어마나?! 달이 꼭 물속에서 떠오르는것 같네, 어찌보면 우리 분조 옥별이, 아니 금희얼굴 같기도 해요.》

하고 감상적인 기분에 잠겨 환성까지 질렀다.

처녀에게 있는 순진하고 발랄한 감정세계와 함께 그 시적인 랑만은 봉길에게 저으기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름이 뭐요? 난 조봉길이라구 하요.》

《리은심이라고 해요.》

처녀는 발췌 웃으며 대답했다.

《리은심. 이름이 좋구만, 소박하고 부르기도 쉽고...》

《호호호... 흔한 이름이지요뉘. 그런데 도에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기계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전에 대학을 졸업하구...》

봉길은 어깨가 으쓱해져 숨기지 않고 말했다.

《그렇군요. 기계전문가군요. 그런데 고향에는 무슨 일루?...》

《휴가를 받았소.》

《집에서 기뻐하겠어요.》

《순퐁아 기다릴거요.》

봉길은 말은 그렇게 했으나 어째서인지 속이 썩기였다. 봉길은 이미 대학졸업을 앞두고 도에 남을 자기의 결심을 아버지에게 편지로 알렸었다.

그런데 집에서는 오늘까지 그에 대해 일언반구 소식이 없었다. 봉길은 얼마전부터 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었다. 원래 봉길이가 도에 있는 기계전문학교로 떠나던 날, 아버지는 봉길을 불러앉히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었다. 봉길은 전문학교시절 아버지의 말대로 직심스레 공부에 열중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세상을 놀래울 최첨단기계를 만들어내고 싶은 꿈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런데 백석리에서는 그 희망을 도저히 꽃피울수 없을것 같았다. 그리하여 봉길은 기계공장에 들어갔고 공장대학에 갔으며 오늘은 연구소 조수로 되었다. 봉길은 리상이 맞는 도시처녀를 배우자로 선택하여 도회지에서 살림을 하면서

연구사업을 할 타산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릉
름하게 성장한 아들의 의젓한 모습을 보면 아버
지의 마음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어졌다.

《집에 오래 묵겠구만요?》

《아니, 난 인차 돌아서야 하오. 어머니가 좀 시
간을 내어 다녀가라는 소식을 보내와서 하는수
없이 떠났소.》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아들이 오래동안 객지에 나가있으니 보고 싶
다는거요. 하긴 이 기회에 날 고향처녀와 선을
보이려고 그러는건 아닌지 알겠소?》

《선이요? 호호호...》

처녀는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까딱거리며 웃었
다. 봉길은 자기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불
쑥 튀어나왔는지 멧적은 생각이 들어 목덜미까지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나이든 자식을 가진
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이었고 또 그도 이미 그런
말을 여러번 들어온터여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
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혼자 씩 웃고 말았다. 그
런데 눈물이 그렇하도록 소리를 내어 웃던 은심
의 표정이 갑자기 정색해 지더니

《참, 모를 일이군요. 고향에도 할 일이 많은
데...》

하고 무엇인가 아쉬워하는것 같은 알지 못할
말을 입안으로 중얼거렸다. 봉길은 그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가 하고 생각을 굴렸다. 무엇인가
기대와 어긋나 실망하는것 같기도 하고 불만스
러워 하는것같기도 했다. 봉길은 처녀의 다음 말
을 기다렸으나 은심은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잠
자코 걸음만 옮겼다. 초면에 꼬치꼬치 물을수도
없어 그만두었으나 봉길은 속이 언짢아졌다. 꼭
그렇다고 단정할수는 없으나 봉길은 어째서인지
처녀가 분명히 고향을 외면한 자기의 일을 두고
못마땅해 하고 있는것 같았다. 달도 밝고 물소리
도 유정한 좋은 밤이었으나 봉길에게는 밤의 그
류다른 정취가 더는 안겨오지 않았다. 어느새 까
막골로 가는 길어구에 이르렀다.

《우리 농장 합숙에서 쉬고 가세요. 밤도 깊었
는데...》

은심은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친절히 권했다.
그러자 봉길은 사내답지 않은 자기의 웅졸한 행
동이 뉘우쳐지면서 느닷없이 혼자서 가야 할길이
아득히 먼것처럼 생각되었다. 지름길로 가면 산
하나를 넘으면 되겠지만 한밤중에 말동무도 없
이 그 외딴길로 가고 싶지도 않았다. 더구나 무
거운 배낭을 지고 갈 처녀의 일이 걱정되었다.
봉길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저도모르게 은심을 따
라섰다.

리합숙은 길에서 멀지 않은 골어구에 자리잡고
있었다. 은심은 봉길을 합숙으로 안내하고는 자
기는 젓가공실로 간다면서 배낭을 진채로 인차
돌아섰다. 봉길은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그들이

만들고 있다는 젓가공설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싶은 호기심이 동하여 슬그머니 그뒤를 따
랐다. 젓가공실은 골안의 맨 웃쪽에 자리잡고 있
었다. 길옆에 펼쳐진 푸른 달빛아래 흰안개발을
명주필처럼 드리우고 청신한 새벽대기속에 차분
이 잠겨있는 까막골의 정경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천지개벽이라더니 몇해어간에 이렇
게 달라질수 있을가 하는 의문이 려이어 머리에
의문표를 새겼다. 여기저기 골짜기를 따라가며
널려있던 살림집들은 간곳없고 고래등같은 현대
적인 살림집들이 산기슭에 나란히 규모있게 일어
서고 골짜기로 들어가면서 염소우리들이 한꺼번
에 수십마리도 능히 사양할수 있게 줄지어 건설
되었는데 얼핏 보건대도 그 《건축물》이면 토끼,
오리, 게사니, 돼지를 비롯한 가축과 가금을 동
시에 사육하고도 남을것 같았다. 아직 건설중에
있는 젓가공실도 농촌에서 흔히 보는 작은 단층
집이 아니었다. 벽체만 일어서고 골조를 채 못갖
춘 상태였으나 멸균실, 세척실이 따로 있고 지어
는 굴을 뚫고 지은 자연탱장고까지 갖춘 하나의
완성된 공장과 맞먹는 생산건물이었다. 그 능력
이면 탁아소, 유치원은 물론 농장원세대들에도
매일 우유와 젓가공품을 얼마든지 공급할수 있었
다.

염소젖분리기는 기술자들이 좀 도와주면 어렵
지 않게 완성할수 있을것 같았다. 청년분조원들
과 농장원들의 수고가 그 기계설비 하나에서도
가슴이 미여지게 안겨왔다.

봉길은 생각이 깊어졌다. 이대로 돌아서자니
기술자로서의 양심이 허락치 않았다. 봉길은 은
심에게 등을 떠밀리워 합숙으로 돌아오면서 아침
에 다문 한두시간만이라도 그들을 도와주고 가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2

《은심동무, 찾았소. 이거요. 이거, 비상출구를
막아 놓았으니 갓난아기 젓 토하듯 할수밖에 있
소?》

봉길은 여러시간동안 모지름을 쓴 끝에 까닭을
알아내니 방금전까지 공연히 기계에 손을 댔다
고 후회했던 언짢은 기분이 감감 사라져 저도 모
르게 도면을 들고 기뻐서 소리쳤다.

《어마나, 알구보니 그렇구만요. 저도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정작 제손으로 하자
고보니 이게 저것 같고 저게 이것 같은게 어디
알수가 있어야지요. 전 그 구멍을 쓸모없는것으
로 생각했었어요. 도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주
제에 기계를 조합하겠다고 나섰으니 무엇이 제대
로 되겠어요.》

은심의 솔직한 말을 듣고보니 봉길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일하는 보람이 느껴졌다.

《그게 왜 동무 잘못이겠소. 공장에도 선반공,

조립공이 따로 있지 않소. 기계란 아무리 리치가 단순해보여도 환자가 의사에게 병을 보여야 하듯이 숙련된 기능공의 손이 가야만 돌아가게 돼 먹었던말이요. 이 접시형우유분리기는 더욱 그렇소. 나도 쉽게 생각하고 달라붙었다가 몇시간째 애를 먹고 있지 않소.》

은심은 어쩌나 고맙게 생각되었는지 눈가에 느닷없이 맑은 눈물이 함초롬히 고여올랐다. 은심은 손수건을 꺼내어 봉길에게 기름 묻은 이마에 승승 내댈은 비지땀을 닦으라고 내밀었다. 그러나 봉길이가 일에 열중하여 받을념을 안하자 한참 주저하다가 땀방울이 금방 떨어질것 같아 자기 손으로 살짝 훔쳐주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냈다면서?... 그래서 기술자가 따로 있는거지. 확실히 공부한 사람 보는 눈이 달라. 옳네. 프락또르운전수들이랑 우리 농장 사람들이 며칠밤을 밝혀가며 얼마나 애들을 쓴줄 아나. 그래도 종시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입자는 소리만 듣고도 그자리에서 단박 밝혀내지 않나. 참. 기술이라는게 무엇이 돼서 그런지... 일밖에 모르는 우리 은심이가 한밤중에 웬 총각을 달구 왔는가 했더니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잉, 고맙데. 고마워. 총각이겠지.》

김이 문문 나는 삶은 감자를 버치채로 안고 들어오던 《뚱보엄마》가 실한 몸이 부담스러워 숨을 헐떡이면서도 자기의 기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바람에 가설건물안에는 즐거운 웃음바람이 일었다. 은심은 당황하여 그의 말을 막았다.

《아이참, 아주머니두, 이 선생님은 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머니 공연히...》

《다 있다? 어디에... 모를 소리다. 내보기엔. 분명히 총각같은데... 아깝다. 도대체 백석리 어느 집자손인가?》

《됐어요. 아주머니 정말...》

《가만 있거라. 아까워서 그래, 예그, 그런걸 난 또 그 <협조원> 서전 청년분조원들이랑 여기에 일쑤하지 말라구 오금을 박아놓았지. 내가 벌써 로망하는게 아닌가. 흐흐흐...》

《하하하...》

은심이가 말하던것과는 달리 너무도 조용하여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게 아닌가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봉길은 소리를 내어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봉길은 푸수한 이곳 사람들의 인정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기계는 이번에도 몇바퀴 돌지 못하고 또 멎어버렸다. 중속기안의 치차축들이 규격대로 정밀하게 맞물리지 못하다보니 주동치차와 종동치차들간에 힘이 유연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봉길은 손땀이 풀려나 견딜수 없었다. 이제 치차축들을 다시 해체해서 연마하자면 시간이 걸려야 했다. 일을 벌려놓고 도중에 그만둘수도 없고 어쨌으면 좋을지 딱하기 그지없었다.

은심은 안타까와 울가망이 되었다.

《에이, 일두 참, 호미난방이라더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봉길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서두르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이 농장에서 보낼수 있었다. 물론 휴가는 하루나 이틀쯤 더 연장할수도 있겠지만 봉길은 화가 동하여 견딜수 없었다.

《수리분조에 가면 인차 손질할수 있소?》

《글쎄요. 수리분조에서 오래 일한 아바이들이 있긴 한데... 이런 정밀한 기계부속들을 다루어봤겠어요.》

《어떤 선반들이 있소?》

은심은 인차 대답을 하지 못했다. 봉길은 자기가 공연한것을 물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은심이가 선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만무했기때문이었다. 봉길은 제논으로 가서 보고 가능하면 제격가공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은심의 만류를 뿌리치고 치차축들을 분해하여 가지고 수리분조로 달려갔다.

수리분조는 젓가공실에서 5리가량 떨어진 다른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었다. 목안에서 겨불내가 났으나 봉길은 이를 사려물고 단숨에 수리분조까지 가달았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로 하여금 맥을 놓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프락또르며 모내는 기계, 버종합탈곡기 등 농기계들의 수리에 필요한 선반이며 볼반 등 여러가지 가공설비들은 보였지만 높은 정밀도를 보장해야 하는 치차축과 같은 복잡한 가공을 할만한 종삭반이나 외면연마기와 같은 설비들은 보이지 않았다. 기계화작업반에 올라가 보았으나 거기에 도 그런 설비는 없었다.

농장에는 아직 빈 구석들이 너무도 많았다. 봉길은 품은 들더라도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자기 혼자힘만으로도 그만한 정도의 설비는 얼마든지 갖추어놓을수 있을것 같았다. 아버지가 왜 오늘까지 편지를 보내오지 않았는지 그 심정이 리해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을 바쳐 뛰여다닌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하여 견딜수 없었다.

자기를 이곳으로 끌어들인 은심에 대한 불만마저 치밀며 온몸의 피로가 일시에 몰려들었다. 다리가 매시시해져 봉길은 겨우 젓가공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은심은 어디로 갔는지 한식경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뚱보엄마》도 무슨 일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참다못해 포전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니 담배분조쪽으로 올라가는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다. 손님에게 일을 시켜놓고 말없이 제불장을 보러갔다고 생각하니 고까운 생각까지 들었다. 누가 바라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마저 느껴졌다. 그가 화락화락 자리를 털며 일어나는데 앞쪽에서

《이사람, 언제 왔나? 기다리게 해서 안됐네.》

하고 손에 보짐을 든 《똥보엄마》가 수신을 떨며 달려왔다. 《똥보엄마》는 그의 얼굴에서 모든 것을 잃은 듯

《빨리 온다는것이 그만...》

하고 미안해하며 그를 무작정 리합숙쪽으로 이끌었다.

뜨락에 들어서니 안에 사람들이 모였는지 간간히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를 보자 은심을 조력해준다는 채간있어 보이는 청년과 마을사람들이 저저마다 일어서서 휴가를 바쳐가며 우리 농장을 도와준다니 고맙다며 진심으로 인사들을 했다. 그리고 그를 방아래목에 앉히고 식탁을 차렸다. 상우에는 김이 문문나는 꽃강냉이며 계사니 알 등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올랐다.

봉길은 새삼스레 기계를 배운 기술자라는 자긍심과 함께 인정 많은 산골사람들의 후더운 정성이 한순간에 가슴에 안겨와 눈뿌리가 화끈해졌다.

《많이 들라구, 이젠 은심이를 대신해서 우리 농장원들이 차린것이니 변변치 않지만 성의로 알고 들라구, 은심이 부모들이 곁에 있다면 이렇게만 차렸겠나...》

《똥보엄마》는 웃고 있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갈려있었다. 봉길은 그의 어조에서 이상한것이 느껴져 의아한 눈길을 그에게로 돌렸다.

《은심동문 부모님들이?...》

《응?...》

《부모님들이 없습니까?...》

《무슨 말을... 아니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닐세, 은심에게야 훌륭한 부모님들이 계시지. 은심인 어려운 강행군시기 고향과 부모들의 곁을 떠나 이 산골로 자원해온 평양처녀가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그의 부모구실을 해야지. 내 그 말을 한다는것이 그만...》

《은심동무가 평양에서 왔단 말입니까?》

봉길은 자기가 기계전문가라는 말을 듣자 몹시 아쉬워하던 일과 고향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농촌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지 모르겠다고 혼자 소리로 하던 말이 얼핏 떠오르며 그가 불만스러워 한 까닭이 한순간에 석연해져 둔중한 물체에 뒤통수를 후려갈기운것 같은 어지럼증까지 일었다.

《아니, 그 먼길을 함께 왔다면 그런것도 모르고 있었나? 공부한 학자들이란 다 한모양으로 그런 샌님들인가보군. 원, 우리 은심이야 정말 반할만한 처녀지. 일잘하고 마음씨 곱고 꿈많고... 손퐁금은 또 얼마나 잘타다구, 평양처녀라면 이 아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네.》

진심으로 탄복하는 그의 말에 봉길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은심이가 도시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해보았겠

나. 그런데도 아글타글 애쓰는걸 보면... 난 아직도 은심이가 우리 농장에 탄원해온 그날의 일들을 잊을수가 없어.》

건강이 좋아서인지 신이라는 나이에 비해 퍼그나 젊어보이는 《똥보엄마》의 시원스러운 눈에 느닷없이 다감한 빛이 그윽히 넘쳐났다.

《은심이가 우리 농장에 왔을 때만 해도 곤란하고 할 일이 많은 때였어. 은심인 울면서 말하더구만. 미국놈들이 우리를 먹겠다구 피눈이 되어 날뛰는데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체구실을 잘못해서야 되겠는가고 말이야.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은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장군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꼭 잘살게 된다고 말일세. 우린 그때 참 생각이 많았네. 그래 청년분조원들을 따라 떨쳐나 모래성분과 석비레가 많은 땅에 유기질비료도 내고 흙보산비료를 만들어 땅을 걸구고 많은 서덜밭을 개간하는 일에 달라붙었지. 농장이 오늘처럼 알곡수확고가 올라가게 되는데 은심의 노력이 컸다네. 그뿐인가. 축사를 건설하고 염소를 많이 기르게 되는데 은심의 남다른 노력이 깃들어있었다네. 산이 많은 우리 고장사람들이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응당 앞장서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아글타글... 아 글썤 어느해인가는 삼촌네 집에 가서 혼자서 우량종 염소 다섯마리를 끌고 200여리를 걸어오지 않았겠나. 리당에서랑 우리 세포비서아바이랑 은심이 발기라면 두팔걸고 나서서 지지하고 떠밀어주기도 도와주었네만... 그가 하자는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 다음엔 또 염소젖을 가공하는 일에 달라붙었고... 참, 어디서 그런 불같은 정열이 솟구치는지, 결국 은심인 우리 심장에 떨어진 불꽃이였어...》

《똥보엄마》는 보기와는 달리 성격이 무르고 눈물이 헤웠다.

《난 은심이가 조금이라도 먹을걸 제대로 먹고 그 고운 얼굴에 화장이라도 한번 하는걸 봤으면 말도하지 않았네. 그런데도 늘 새물새물 웃으면서 앞장에서 노래를 부르구 손퐁금을 울리구... 참, 그 모습을 볼 때면 난 우리가 주인구실을 잘못해서 평양처녀가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정말 은심인 우리 농장의 보배지. 진짜 농장의 주인이라구 말할수 있어. 흐흐흐...》

《똥보엄마》는 짐짓 너스레를 떨며 말을 마쳤으나 눈에는 눈물이 그렁하였다. 봉길은 치마자락으로 눈굽을 찍는 그 아주머니를 보니 너무도 받아안은 충격이 커서 생각이 깊어졌다. 농장원들이 주인구실을 잘못하여 도시처녀가 고생을 한다는 자책에 잠긴 그들의 말은 가슴속에 살처럼 들이박혀 빠지질 않았다.

농장의 주인! 정말 은심은 농장의 주인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런데 평양처녀가 어떻게 그런 주인공으로 되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산골인 고향에서는 꿈을 꽃피울수 없다고 도시에 남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들을수도 받을수도 없는 값높은 칭호를 그는 농장원들로부터 아낌없이 받고 있었다. 봉길은 지금껏 가슴속에 간직해온 그 공지, 공장에서 다년간 선반을 다룬 고급기능공이고 대학졸업생이라고 자랑했던 그 공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것이였는가 하는 의혹이 들면서 특별한 받은 음달속의 눈더미처럼 서서히 꺼져내리는것을 느꼈다. 물론 그가 달성한 일자체는 동무들이 부러워할만도 하고 자랑할만도 한것이였으나 거기에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그토록 찬양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 아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녀이 없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지 않았다. 내가 너무 자신에게 뻥뻥한것이 아닌가고 반문도 해보았으나 그 생각은 지못게도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참, 내가 깜빡 잊었군. 은심이가 몇번이나 당부하던걸...》

《똥보엄마》는 부랴부랴 품속에서 편지를 한창 꺼내주었다. 봉길은 눈이 둥그래졌다.

《은심동무가 어디 갔습니까? 아까 담배분조에 올라가더라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은심인 군농기계작업소에 갔네.》

《예? 그럼 어제 온 그 먼 길을 다시 갔단 말입니까? 거긴 무슨 일로?...》

《글쎄 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말을 들어야지. 임자가 도면에 몇군데 표시한게 있더구만. 주동치차와 종동치차라구 했던가? 여기 설비로는 안될거라면서 저 <협조원>이 가겠다는데도 제가 가야 오늘 밤중으로 해온다면서...》

《?!...》

《갔던 길에 아마 빠다제조기도면도 가져오려는가 보네. 임잘 만난건 하늘이 준 행운이라면서 하나라도 더 방조를 받겠다구...》

감정이 격해진 《똥보엄마》는 달아오른 눈길을 창밖으로 돌렸다.

《오죽 안타까웠으면 은심이가 이 밤중에... 불이 달리면 참지 못하는 성미니 막을수도 없구해서 내 토지정리작업장으로 가는 차가 농장에 들렀길래 운전사에게 얘기해서 태워보내기는 했지만 그 일로 방목지를 돌아보고 내려온 세포비서아바이에게서 되게 비판을 받았네...》

농장원자식들도 대학에 많이 가는데 농장에는 왜 기계속내를 공부한 기술자가 적은지, 산골농장이여서 그렇겠지만 농장에 앞으로 발전소도 건설해야 한다가들 하던데 기술자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구서야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하겠나.》

《똥보엄마》의 노여움이 섞인 안타까움은 그대로 봉길의 얼굴에 불뚱이 되어 떨어졌다. 봉길은

그가 자기를 녀두에 두고 말을 하는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 눈길을 들고 마주 볼수가 없었다.

《참, 편지에 래일 아침 연구소로 올라가는 길에 또 좀 들려달라구 썼을거네. 빠다제조기도면 농기계작업소에 주었었는데 거기서 설계를 좀 더 완성해야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누만.》

정말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밤길을 함께 걸은것밖에는 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은 실로 무리한 요구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봉길은 무엇때문인지 그의 이 요구속에는 농장을 생각하는 불같은 열정이 스며 있어 조금도 비위에 거슬리지 않았다.

《노엽나?》

《똥보엄마》는 말이 없는 그의 행동을 오해하는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봉길의 마음을 넘겨짚기라도 한듯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은심일 좀 도와주라구. 고향에 휴가를 온 사람을 붙들고 려치가 없네만 어찌겠나. 임자같은 사람이 우리 농장에도 있었으면 은심이가 얼마나 기뻐하겠나.》

진정이 담긴 그 말은 봉길의 가슴을 다시금 쿡하고 드세게 울렸다. 그 울림은 긴 여운을 남기면서 그의 가슴을 오래도록 아프게 훑어내렸다.

《정말 이번에 올라가는 길에 잠깐이라도 좋으니 꼭 들려주십시오. 그건 은심동무만 아니라 우리 청년분조원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될겁니다. 제가 세포비서아바이에게서 은심동무 잘 도와주라는 분공을 받았지만 군대에서 갓 제대되다보니 마음뿐이지 어디 아는데 있어야지요. 앞으로 고향땅을 꽃피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열두번씩 굴뚝처럼 솟구치군 합니다. 전 꼭 해내립니다.》

결에서 듣고 있던 자기와 나이가 어슷비슷해보이는 《협조원》청년이 각듯이 례의를 차려가며 한 말은 봉길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며 많은 생각을 하게했다. 군대에서 단련된 청년이니 그는 꼭 자기의 결심을 실행하리라는 믿음이 가슴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협조원》청년이 리에 가서 공장에 은심이가 간다고 전화로 알려야겠다고 서두르며 일어나자 《똥보엄마》는 세포비서아바이가 갔으니 안가도 된다고 만류하고나서 봉길에게 아침에 꼭 들려달라고 다시한번 부탁했다. 그리고는 곁에 있는 보구레미를 내밀었다.

《은심이가 임자에게 주라고 담배분조에 가서 보내온 일담배일세. 연구소에 가져들랑 까막골에서 재배한 담배맛이 어떤가 연구사선생님들이랑 함께 맛보라구...》

봉길은 순간 눈곱이 콧 젖어들고 가슴속에서 뜨거웠것이 치받쳐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다. 그런줄도 모르고 손님을 앉혀놓고 제불장을 보는 모양이라고까지 생각하였으니 얼마나 경망스러운지 몰랐다. 군에 다녀올 결심을 한 그 바쁜 속에

서도 어떻게 그런데까지 마음을 쓸수 있었는지 놀라운 생각마저 들었다. 봉길은 굳어진듯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일줄 몰랐다.

3

봉길은 백석리로 가려고 골짜기를 벗어났으나 집으로 갈수가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 조수가 된 자기를 고향사람들과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반가와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서글퍼졌다. 그리고 자기가 오늘 아침에 기계조립하는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자 자기도 그래줬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미안하여 말을 못했었는데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어린애처럼 발을 구르며 기뻐하던 은심의 모습이며 기계연구소에 있다는 말을 듣자 대뜸

《아이, 연구사선생님이세요!》

하고 존경을 담아 부르던 목소리가 귀전에 울리는것 같았다. 그와 함께 눈에서부터 피어나 온 얼굴에 퍼져가던 그 마음씨 고와보이는 밝은 웃음이 눈앞에 꽃처럼 활짝 피어나 지워지지 않았다. 더우기 군으로 간 은심이 여울목을 건너서라도 오늘 밤중으로 꼭 돌아올거라던 《똥보엄마》의 말이 귀전을 땀돌며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무거운 치차들을 지고 처녀가 강을 건너오리라는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척하고 가버리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발길을 판곳으로 옮길수가 없었다. 그에게는 지금 정든 도시를 떠나 누구도 맘붙이기 힘들어하는 척박한 고장인 까막골로 찾아온 처녀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해야할지 어쨌든 그에게는 처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끝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어느새 둥근달이 형제봉마루로 은반같은 환한 얼굴을 내밀었다. 때 한점 묻지 않고 어느 한 가녀도 꿇지 않은 맑고 크고 싱싱한 8월의 보름달이었다. 어제 달을 보고 물속에서 떠오른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 동무들의 얼굴같다고 하던 은심의 말이 이 순간에 불쑥 떠오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에게는 그달이 꼭 은심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의 마음같이 생각되기도 하였다.

달빛이 쏟아지는 강변은 볼수록 아름다웠다. 그러나 멀리 험한 천마산줄기가 드센 기상을 하고 병풍처럼 둘러서서인지 벌스레 강물소리가 더 소연하게 들렸다. 장마로 불어난 물이 줄지 않아 여울목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큰 강처럼 물량이 많고 물살이 빨랐다. 정말 이런 곳으로 처녀가 건너올수 있을가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러나 은심은 이런 강쯤은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 처녀라고 생각하니 제 생각이 소심해보여 피식하고 웃고 말았다.

봉길은 마른 삭정이들을 그러모아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아직 물기가 남아있어 오래도록 연기만 말아 올렸으나 일단 불이 당기자 확하고 모닥

불이 타올랐다. 봉길은 만약의 경우를 예견하여 긴 장대끝에 주변에 덩구는 쇠조박을 집어 못처럼 박아 《지팽이》도 만들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시간은 벌써 자정을 가까이하고 있었다. 일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제는 은심이 돌아와야 했다. 봉길은 문득 은심이 정말 여울목으로 올라가는 의혹이 다시금 뇌리에 갈마들었다. 여기로 오리라고 믿는것은 너무도 무리한 추측이 아닐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때는 좀 늦어지더라도 어제처럼 큰길로 오는것이 도리어 드팀없고 빠를수도 있을것이였다.

이때 강건너편에서 문득

《거기…누가… 있어요?》

하는 녀자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봉길은 소스라치듯 놀라 귀를 기울였다. 토막토막 끊어지며 이어지는 목소리는 은심이 분명했다. 탐조등같이 센 전지불빛이 허공에서 여러번 원을 그렸다. 봉길은 너무도 반가와 자리에서 뛰쳐일어나며 얼른 불이 달린 나무가치를 집어들고 마주 수기신호를 보냈다. 그런 다음

《기다리오!-》

하고 손나팔을 불었다.

《아이, 연구사선생님이세요. 연구사선생님!-》

은심의 놀란 탄성이 강물위로 흐르릉 메아리쳐왔다. 그 목소리는 어인일인지 봉길의 마음속에 강한 여운을 남기며 여간 정답게 들리지 않았다. 은심이 어둠을 가르며 강물로 들어서는것이 알렸다.

《아니, 들어서지 마오. 위험하오.》

봉길은 당황하여 소리쳤으나 은심은 이미 강심을 향하여 주저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봉길은 불방망이를 한손에 들고 또 다른 한손에는 장대를 들고 허둥지둥 마주 강물에 뛰어들었다. 산골물이어서 며칠새에 쭉 찢겼이 알렸으나 아직 여울목인데도 무릎을 넘었다. 강심으로 들어서니 물은 더 깊어지고 물살이 썰다. 한걸음을 옮기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연구사선생님, 깊은 곳으로 오지 마세요. 전이 여울목을 자주 건너봐서 잘 알아요. 제 걱정은 마세요.-》

제 한몸의 위험은 아랑곳 않고 오히려 사나이를 걱정하는 처녀의 진정에 봉길은 진심으로 감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앗》하는 다급한 비명과 함께 그가 한쪽으로 넘어지는것을 보자 심장이 똑 멎는것만 같았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무거운 배낭이 한쪽으로 쏠린 모양이었다.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봉길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은심을 향해 몸을 날리며

《이걸 잡소.》

하고 장대를 던졌다. 다음 초인간적인 힘을 내어 엮어졌다 일어섰다하며 필사적으로 그에게로

헤엄쳐갔다. 다행히도 은심의 한쪽손이 봉길의 손에 와닿고 다른 손이 장대를 붙들었다. 봉길은 은심이가 다시는 넘어가지 않게 긴 팔로 그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은심이도 그에게 몸을 꼭 싼다는 것이 알렸다. 순간 봉길은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둘은 서로 부축하며 힘을 내어 강기슭으로 나왔다.

너무도 위험한 순간을 넘긴 뒤여서 그들은 한동안 아무말없이 덤덤히 마주 보기만 하였다. 퍼그나 동안이 지나서야 달빛에 드러난 물참봉이 된 서로의 모습을 알아보고 고개를 쳐들고 가슴 후련하게 웃었다. 봉길은 물이 흐르는 옷을 건승 짜입고 은심을 불앞으로 이끌었다.

《전 괜찮아요. 연구사선생님이 오늘 저때문에 큰일날번 했군요. 정말 연구사선생님이 아니었던 먼...》

은심의 목소리는 고마움으로 가늘게 떨리기까지 했다.

《무슨 그런 말을... 어서 배낭부터 벗소.》

《그런데 선생님은 왜 아직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처녀의 눈에 의혹이 가득 서린것을 보자 봉길은 계면쩍은 생각이 들었으나 대범하게 웃으며 솔직히 털어놓았다.

《동무를 돕고싶었소. 빗진 심정이여서 돌아갈 수가 없더군요만...》

《빗이라니요?》

영문을 몰라 등그래진 은심의 까만 눈동자에 모닥불이 비껴들며 반짝하고 불꽃을 튀겼다. 고마와하는 그의 심정이 그 눈동자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봉길은 더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은심은 그의 마음을 넘겨짚은듯 감동에 젖은 눈길을 돌리며 배낭안에서 치차며 베아령들을 꺼내놓았다.

첫눈에 그 부속품들을 해결하느라 여기저기 안타까이 뛰어다녔을 처녀의 수고가 가슴에 전류처럼 찌르르 마쳐왔다.

《수고했소. 난 이 밤중으로 이렇게 부속들을 해결해오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정말 큰일을 했구만...》

《기계공장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식사를 건느면서까지... 봄철에 우리 농장에 지원나왔던 사람들인데 고마운분들이예요.》

《그렇소?!》

은심은 말을 더 잊지 않았으나 봉길은 그의 말속에서 처녀의 진정에 감동되어 공장 로동계급이 도와나섰으리라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은심은 이번에는 배낭안에서 비닐로 겹겹이 감싼 종이를 펼쳤다. 《똥보엄마》가 말한 빠다제조기도면이었다. 은심은 그에게 새 기계도면까지 펼쳐든것이 미안하여 얼굴을 붉히면서도 어느 부문이 결

려 공장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봉길은 물이 흐르는 얼굴을 훑칠념도 않고 일박에 모르는 처녀의 가름한 옷은 얼굴을 흘린듯이 바라보았다. 봉길은 그가 기술자인 자기의 존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를 심장으로 느꼈다. 은심은 그의 조언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진심으로 애를 쓰고 있었다. 피곤으로 눈확이 꺼져들고 입술이 말라터졌으나 정채롭게 반짝이는 쌍까풀진 까만눈이며 오흑한 코며 고집스러워보이는 작은 입이며 불기운으로 발갛하니 달아오른 랑불이 아침이슬을 머금은 한떨기 장미꽃처럼 무척 아름다와보였다. 봉길은 이처럼 아름다운 처녀를 어디서도 한번본것 같지 않았다.

《왜 절 그렇게 보세요?》

《동무가 보통처녀같지 않아서 그러오...》

《선생님두 참...》

은심은 갑자기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당황해하며 급히 눈길을 떨구고 옷매무시를 비다듬었다. 봉길은 때묻지 않은 순박한 이 처녀의 어디에서 그런 지칠줄 모르는 힘과 열정이 흘러나오는지 알고싶었다. 봉길은 도면을 접어 곁에 놓고 은심을 불곁으로 더 바투 나앉게 했다.

《은심동문 어떻게 돼서 평양을 떠나 이 까막골로 올 결심을 했소?》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의 어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심은 심작해진 그의 표정이 리해되지 않는듯 살풋이 눈시울을 떨구었으나 인차 눈가에 밝은 미소를 띄웠다. 감실하니 탄 그의 두볼로 흥조가 피여올랐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가요.》

은심은 줌저리며 나무코짚이를 들고 한동안 불담을 이리저리 헤집었다.

《저의 아버지는 한생을 농업부문에서 일하시는 책임일군들중의 한사람이예요. 아버지는 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알곡증산성과로 기쁨을 드리겠다고 아글타글 노력했어요. 그래 자주 신문에도 나고 누구보다 훈장도 많이 땀어요. 전 이런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한가지 무거운 근심을 안고 살았어요.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고장을 찾아주셨을 때 땅이 척박한 이 고장 농장들을 추켜세워 알곡소출을 높이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는데 십여년이 지나도록 그 과업을 관철하지 못한것이였어요. 그래서 이 고장 농사를 책임진 일군의 한사람으로서 아버지는 늘 밤잠을 제대로 쉬지 못하곤 했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아버지의 죄책감은 더해졌어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리해하지 못하고 어느날 아버지에게 농사가 잘 안되는 책임이 왜 아버지에게만 있는가고, 농장마다 일군들이 있고 지금 몇해째 자연재해를 입고 있지 않는가고 투정질하듯 말을 해서 아버지

를 크게 노엽힌 일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려는 마음에서 철없이 한 말이었지만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피로워하시던지...》

은심은 아버지의 그 모습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꿈틀하고 구불이 휘어들던 색바랜 술진 눈섭이며 발고랑처럼 열기설기 얹혀들던 이마의 주름살들이며...

늘 정답게 딸을 바라보던 눈에는 노여움이 무겁게 실리었다. 그 노여움은 원망으로도 바뀌고 서운함으로도 바뀌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한순간에 몇십년 더 늙어보였다. 지금도 그 모습을 그려보는 은심의 긴 살눈섭끝에는 어느새 눈물방울이 축축히 내렸다.

《그날 아버지는 갈린 어조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달전 모내기철이었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 깜빡 잠이 들었던 아버지는 쭈루룩쭈루룩 하는 락수물소리에 놀라 깨어났어요. 창밖에서는 예상외로 많은 비가 내리더라고요. 아버지는 금방 낸 어린 모들이 걱정되어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또 얼마나 더 내리겠는지 기상예보를 알리는 해당 부문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도 오래도록 대답을 하지 않아 조금해져 무슨 일인지 사연을 물었대요. 그런데 글썄... 그 동무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장군님께서 간밤에... 모를 낸 논들이 걱정되며 한잠도 쉬지 못하시고... 한시간에 한번씩 전화를... 걸어오셨다는것이 아니겠어요. 어제 장군님께서 머나먼 전선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내각획의를 지도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였으니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아버지는 끝내 수화기를 든채 눈물을 쏟고야 말았어요. 나라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서 헤쳐가시는 장군님께서 오늘은 농사문제로 밤을 새우셨다고 생각하니 전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머리를 들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장군님께서 농사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또다시 머나먼 전선길에 오르시였답니다. ... 그 이야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호텔에서 일하면서도 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에서 손뽕금을 배우고 예술축전에 참가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예술계로 발전해볼까하는 꿈에 잠겨있던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 그 무렵, 저는 전선길을 이어 가시던 장군님께서 이른 새벽 백색강이 멀지 않은 어느 한 농장길을 지나시다가 땅이 메마르고 척박하여 곡식이 잘되지 않은 그 고장 농사작황을 보시고 차에서 내리시어 오래도록 포전을 바라보시면서 자리를 뜨지 못하셨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어요. 어제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그 고장의 농사일을 걱정하시며 비오는 포전길을 걸으셨는데 오늘은 장군님께서 그 고장 농사일로 걱정하셨다고 생각하니 전 온밤을 잠들수가 없었어요. 제 심정이

그러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전 그날 아버지가 왜 그토록 피로워하셨는지 비로소 똑똑히 깨달았어요.

그래 결심을 했어요. 농촌으로 가자,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 당의 품속에서 사랑만을 받으며 자란 우리 새 세대청년들이 설 자리는 바로 그 초소가 아니겠는가, 장군님께서 아버지를 나라의 농사일을 책임진 일군의 한사람으로 내세워주신 가정에서 자란 내가 이런 때 농촌에 가서 아버지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값높은 청춘의 꿈과 이상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길이 한생을 성실히 살아온 부모님들의 녀을 잇는 길이고 준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몸은 비록 평양에서 멀리 가도 그 길은 아버지장군님을 마음속에 더욱 가까이 모시는길이다, 장군님의 사회주의 농촌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하는 길에 혁명전사의 참된 삶의 보람도 행복도 있다하고 말이에요. 그날 아버지는 저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을 인민들의 식생활문제에 근심하시며 포전길을 걸으셨는데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또 농촌길을 걷고 계신다고, 우리 전사들이 아버지장군님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네가 참으로 장하다고, 그러나 농촌에 나가 일을 하느라하면 힘들 때가 많을게라고, 그때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그 고장 농사일을 걱정하시며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신 일을 생각하면 곤난을 이겨낼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었어요. 그러시면서 그럼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만나자고 저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아버지가 담당했던 농장들 가운데서 제일 뒤떨어진 농장들중의 하나인 이까막골로 오게 되었답니다.》

은심은 감회가 깊은듯 썩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전 아직 어느것 하나 일을 제대로 해놓은것이 없어요. 다른 농장들에서는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꾸려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는데 우리에겐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우린 젓가공실을 잘 꾸려서 치즈, 빠다뿐아니라 여러가지 젓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어 우리 농장 젓제품이 도적으로도 이름이 나게 하자고 해요.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을거예요. 그러자면 여러가지 기계들을 많이 차려놓아야겠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도 자체로 해낼 결심이에요. 저도 이제부터 기계공학공부를 하자고 해요. 이젠 앞으로 기계부자가 될 우리 농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거예요. 그래서 여기 까막골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쌀과 함께 고기와 젓제품도 풍족한 살기 좋은 무릉도원을, 사회주의선경을 펼치자는겁니다.

그날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고 아버지장군님을 우리 농장에 꼭 모시겠어요. 이젠 저뿐만아니라 우리 농장 청년분조원들, 아니 우리 농장원들모두의 간절한 소원이랍니다.》

시를 읊조리듯 하는 은심의 말은 봉길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었다.

얼마나 훌륭한 처녀인가! 아버지대원수님의 유혼을 받들어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오직 그 한생각으로 온몸을 불태우는 처녀! 오직 그 리상을 꽃피우기 위해서 자기가 꿈꾸던 극장무대도 버리고 이런 산골에 와서 모든 난관을 박차고 농장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꽃피워가는 이런 처녀야말로 이 세상 어디가서도 만나기 힘든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 봉길은 처녀의 아득히 높은 정신세계에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졌다. 공장에서 한다하는 기능공으로 떠받들리었고 오늘은 대학 졸업까지 했다고 우쭐대던 자기가 왜 고향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수 없었는지 봉길은 이 순간에야 통절히 깨달을수 있었다. 참으로 은심은 자기를 오늘까지 사랑의 한품에 안아 공부시켜주고 행복동으로 키워 내세워준 당의 은덕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앞에 지닌 인간의 의무이기전에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새 세대청년들의 량심이고 도리이기도 하였다. 더우기 그것은 풀뿌리를 씹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속에서 토지정리와 같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고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새로이 일신하면서 과학과 기술로 부강한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해가고 있는 오늘의 들끓는 시대가 우리 청년들에게 제기하는 요구이기도 하였다. 이 투쟁에서 농촌 청년들이 주인이 되고 선봉에 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본분이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가장 숭고한 미덕으로 간주되는 우리 사회에서 고향땅을 가꾸는데 자기를 바치는것처럼 아름다운 꿈이 또 어디 있겠는가. 봉길에게는 바로 그 정신, 당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길에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을줄 아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그 고결한 애국의 념이 없었다. 아버지가 도에 남겼다는 아들의 결심을 지지하지 않은것도 《똥보엄마》가 농촌에는 왜 기계기술을 배운 대학 졸업생들이 적은가고 그토록 안타까와 한것도 바로 그때문이었다.

봉길의 가슴속에서는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고향땅을 꾸리는데 아낌없이 바칠 새로운 꿈이 움텄다. 그 결심이 확고해질수록 봉길은 은심이가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랐다. 그러자 자기를 말없이 이 길로 이끌어준 그가 무척 고맙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고생을 웃음으로 이겨가

는 락천적인 처녀와 일생을 같이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라 하는 무지개같은 환상에 가슴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이런 처녀와 함께라면 이 세상 그 무슨 일도 두려울것이 없을것 같았다.

봉길은 어머니가 남몰래 짚적어두었을 처녀도 은심이와 같은 처녀였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게 되는 심정을 누를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심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흠칫 놀랐다.

봉길은 목덜미가 달아올라 공연히 마른기침을 하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새벽 4시가 넘었다. 어느덧 동녘하늘 한기가 희뽁히 들리고 있었다.

《부모님들이 기다리시겠는데… 저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만… 안됐어요. 이제라도 집으로 가보세요.》

은심의 말을 듣고보니 봉길은 아버지, 어머니와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보고싶은 감정이 굴뚝같이 치밀었다. 그러나 봉길은 은심이가 가져온 치차와 나사들로 염소젖분리기부터 조립하고 고향집에는 후에 기쁜 심정을 안고 들어서리라 마음먹었다.

《내 걱정은 마오. 난 아무래도 오늘 연구소로 올라가야 할것 같소.》

《아니 그럼 부모님들은?…》

봉길은 자기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니 온몸에 힘이 솟았다. 이 처녀야말로 자기가 일생을 함께 걸어야 할 귀중한 길동무라는 느낌이 다시금 심장속깊이 스며들었다.

《집에야 좀 후에 간들 뭐라오. 은심동무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지만 난 오늘까지 자기가 설 자리도 잘 모르고 살았소. 대학공부를 헛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구만. 농장원자식들도 대학에는 많이 가는데 농촌에 공부한 기술자가 적은것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때문이 아니겠소. 하지만 이제라도 새 출발을 하겠소. 난 이 빠다제조기도면을 완성한 다음 유유분리기도 한대 더 만들어가지고 내려올 결심이요. 그래서 동무처럼 농장원들의, 아니 고향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기술자가 되겠소. 이 백석강반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겠소.》

날 민소? 하고 묻는듯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봉길의 눈빛은 타는듯 했다. 동무와 손을 맞잡고 힘껏 일해보고싶소, 동무의 그 아름다운 리상을 고향땅에 활짝 꽃피웁시다 하는 말이 가슴속에서 울려나왔으나 봉길은 입을 열지 못하였다. 봉길의 말이 뜻밖인듯 은심은 놀라 얼굴을 붉히면서도 그의 말을 한마디라도 농칠세라 주의깊이 들었다. 생각에 잠긴 그 모습은 봉길의 마음에 꼭 들었다. 이윽고 은심의 아름다운 까만눈에 맑은 샘이 찰랑찰랑 넘쳐났다. 청춘남녀의 두 시선이 허공중에서 맞부딪치면서 번쩍하고 강렬하게 불꽃을 일으켰다.

문득 강변의 고요를 깨뜨리며 멀리 마을어구에 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그속에서 사내처럼 석심하면서도 청높은 《똥보엄마》의 유표한 웃음소리를 대뜸 가려들었다. 청년분조원들과 함께 은심을 마중나왔다가 둘이 있는것을 보고 돌아가는것이 분명했다. 은심은 뜻밖인듯 《어마나?》하고 가볍게 놀란 소리를 지르더니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홍시처럼 빨강게 물

들었다.

《고맙습니다. 전 연구사선생님의 그 결심을... 믿습니다.》

대답은 짧았으나 봉길은 거기서 처녀의 진정을 읽을수 있었다. 봉길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활짝 피여났다. 휘영청 밝은 달은 그들의 류다른 이 순간을 축복해주려는듯 빙글빙글 웃으며 더욱 더 밝은빛을 뿌렸다.

밝은 달아

김희중

벼가울 다그치는 벼바다우에
등등 북이라도 치는듯
한껏 둥글어
밝은 웃음 지으며 달이 날아오른다

반갑다
가을걷이 이 밤이 좋아
가을 기쁨 앞서
벌써 날가리가 쌓여지는 이 마을
너도 먼저 알고 찾아왔구나

이랑이랑 베여가는 금빛바다우에
너와 나 뜨거운 정 나누던
못밤의 익혀진 두렁길들이
앞서가며 일어서고 따라서며 펼쳐지누나

모내기철 농칠세라
내 마음 초조히 타오를 때
너는 그 눈부신 광채로
하늘의 구름재 넘고 넘으며
환히 논배미들을 비쳐주었다

물길을 지켜가는 밤이면
내 몇번이나 다시 쳐다보았던가
물고마다 밝게 비치며

물소리 높여주던 그 빛 하도 정다워
내가 가고 물이 가며...

추억도 아름다워라
내 어린 시절
시골길 외가에서 돌아오는 밤
내가 서면 너도 서고
내가 가면 너도 가며
차마 못떨어지던 어깨동무야

고요한 초소의 밤
총잡고 전호가에 서던 병사시절엔
너는 그리운 나의 고향생각
너는 따뜻한 어머니의 미소였지...

달아 밝은 달아
진군의 북소리 높이 울려라
너는 사시절 눈비속에서
땅에 진심을 묻어가는
나의 한평생의 길동무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너는 들에 함께 사는
내 사랑
우리 농민의 달이구나!

나의 안해에 대한 추억(1)

1. 결혼생활

지난날을 추억할줄 모르는 사람은 아름다운 태일을 가질수 없는 법이다.

비전향장기수 예술소품공연이 있을 때면 안해들의 여성중창에 앞서 소개자는 《30~40년동안 통일사업에 몸바쳐싸운 남편을 기다리며 자식을 키우다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된 우리 안해들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조용하던 관중석이 설레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노래보다 노래부르는 부인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으로 눈시울을 뜨겁게 적신다.

머리에 흰서리내린 70대, 80대 비전향장기수 남편들과 안해들을 사람들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본다.

그러나 70대, 80대 된 그들의 인생에서 부부생활기간은 길어야 몇년밖에 안되는 기간이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가고 물으면 아버지로서 대답할 말이 없다.

아이들의 생일날이나 학교입학, 졸업때 아버지로써, 학부형으로서 제구실을 못했기때문이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속에서 자식들이 성장하였으니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아버지의 의무에서 면제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손자, 손녀들의 공부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요구성이 높고 극성이다.

지난 4월 1일 입학식날에는 비전향장기수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의 손목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난날 자식들에게 다하지 못한 학부형의 의무를 뒤늦게나마 하려고 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긴 행복한 생활의 일면이다.

세상에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다. 나도 보통남자처럼 30대초에 결혼한 남자였다.

그런데 근 40년동안 가정에서 떨어져 살았으니 결혼한 남자의 의무를 실현 못한 남자이다.

내 나이 일흔인데 결혼생활을 1년 8개월밖에 못해보았으니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니 결혼생활을 한 흔적은 있지만 자식이 없었다면 결혼한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도 힘든 평생 독신자인셈이다.

지금 혼자 살고 있으면서 70대, 80대 로부부의 생활을 옆에서 보면서 아, 저런 생활이 부부생활이로구나 하고 감상할뿐이다.

예술소품공연을 할 때면 무대뒤에서 부인들이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남편의 넥타이를 바로 매주고 머리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어주며 앞에서 뒤에서 봐주느라고 부산을 피운다.

70, 80이 된 남편들은 유치원아이들처럼 안해들이 하라는대로 아무 대꾸없이 묵묵히 응하고 있다.

아! 이것이 부부간의 생활과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요술과 같은 힘인것 같다.

나 혼자 그들부부의 모습을 보며 지나온 감옥 생활을 되돌아보게 된다.

탈색된 푸른결레같은 면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장군님덕분으로 양복입은 《신사》가 되었다.

안해는 남편을 멋쟁이로 만드는 요술사이다.

며칠전 미술가동맹 맹원이 된 비전향장기수들이 황해남도 해주시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진행되는 비전향장기수 서화전시회와 상봉모임참가차로 출발하는 아침이었다.

그들의 가족과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그들을 환송하느라 마당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차떠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후에 그들은 석대의 차에 두사람씩 나누어 타고 떠나려고 하자 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고 있는것이 아닌가?

불과 며칠동안 떨어지는 《작별》인데-

옛날 내가 1년 8개월 결혼생활중에 수차의 출장으로 근 1년은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였다.

그것까지 계산하면 내 결혼생활은 8개월동안밖에 안되었다.

그때 내가 출장을 떠난다고 안해가 평양역까지 나와 배려주곤 하였지만 우는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 며칠밖에 집을 떠나지 않는 남편들을 바래운 안해들은 차가 떠나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결상에 앉아 그 늙은 부부의 심정을 헤아려보았다. 죽었다고 생각하였던 남편이 30~40년만에 살아돌아 온것이 아직도 꿈만 같고 행복감에 취하여 살고 있는 그들이여서 잠시의 작별이 그렇게 눈물나는것이리라. 잠시라도 떨어지는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비전향장기수의 안해가 아니면 리해 못할것이다.

그래서 안해들은 남편과 함께 있지 못한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충하고싶은 욕망과 한순간도 남편과 떨어지고싶지 않은 안타까움이 그리도 큰것이 아닐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 안해들의 해픈 눈물을 리해하고 그들을 위로해주었으면 하는것이 언제나

내가 바라는 마음이다.

옛날 평양역에서 열차를 탄 남편을 장난기 섞인 몸동작과 활짝 핀 웃음으로 환송하던 내 안해가 지금 살아 있다면 오늘날 그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내 안해도 지금의 이 부인들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나의 안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 않다.

영원히 옛날 평양역에서 출장가는 남편에게 보내주던 그 활짝 핀 웃음을 영원히 간직하고싶을 뿐이다.

2. 결혼 60 돌

얼마전 한 동지의 생일날 식사를 같이하자고 하여 그집을 찾았다.

그 동지는 금년나이 여든여섯살인데 아직도 정정하다.

포도주 한잔을 붓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내 생일날이 아니지만 부인과 결혼한지 60돌이 되는 날을 겸해 생일을 맞이한다고 하였다.

그 선생의 부인도 지금 건강하다.

결혼 60년, 그러면 부인과의 결혼생활기간은 얼마나 될까.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이 얼마 안되고 거의 대부분의 세월은 헤어져 살았는데 결혼 60돌이라니 참 생각도 많아진다.

세상사람들은 결혼 25돌은 은혼식이며 50돌은 금혼식이요 하며 부부인생사에서 큰 명절로 기념한다.

보통사람들이었다면 결혼 60돌이면 대단한 행복이다.

그런 결혼 60돌이라 해도 헤어져살았던 기간이 더 길었던 세월, 그래서 결혼 60돌을 축하해주었더니 부인은 갓 시집온 새색시처럼 그렇게도 기뻐하였다.

그렇다. 결혼 60돌날 남편과 함께 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랴. 남들의 결혼 60년동안의 행복과 기쁨을 조국의 품에 안긴 3년동안에 다 안아보고싶었으리.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과 기쁨이 지속된 시간은 짧았어도 그 감동의 깊이는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할것이다.

내 인생 70년동안에 결혼생활은 1년 8개월이지만 나도 결혼했던 몸이었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안해를 가졌던 사람이였다.

사람들은 조국을 떠나보아야 조국을 더 사랑한다고 말한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해보아야 고향의 풀한포기, 나무 한그루, 샘물가의 잔잔한 물소리의 정다움을 알게 되는것 같다.

결혼하고 둘이 함께 살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안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나는 34년의 옥중생활중에 뼈저리게 느꼈다.

나도 사람이였기에 옛날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안해에게 성을 냈던 사소한 문제가 왜 그렇게 미안했는지 감옥에서 깨달았다.

그런 면에서는 감옥생활은 안해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느끼게 해준 곳이라고 말할수도 있을것이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부부들은 조국의 품에 안긴 지금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부생활의 진하고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옛날 티각태각했던 일들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니 우리 부부들도 많이 변했는지 철이 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비전향장기수부부의 행복을 찾아준 사랑의 화신이시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그 누구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결혼의 의미를 알게 해준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3. 비오는 날

나는 감옥에 있을 때 비속을 걸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비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운동을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거리의 버스정류소에 버스가 서면 내리는 사람들속에서 활짝 웃음을 짓고 나의 안해 은옥이가 뛰어오지 않나하는 기대속에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핀다.

그러나 마지막사람이 내리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 허전한 마음으로 다음 버스에 오겠지 하면서 그 자리를 뜬다.

우리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일이다.

그날 직장에서 내가 일찌기 돌아와보니 아직은옥이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침출근할 때 은옥이가 우산을 가지고 왔는가 했는데 그대로 집에 있었다.

나는 우산을 가지고 서둘러 버스정류소로 마중나갔다.

한참 기다린후 세번째 버스가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린 은옥이가 나를 발견하고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왔다.

나는 가지고 온 우산을 은옥이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우산을 펴지 않고 내 우산밑으로 들어와 내 팔을 끼고 함께 가고싶어 했다.

우리는 그렇게 다정하게 비속을 걸기 시작했다. 내가 버스정류소까지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던차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부부사이에는 자그마한 일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모양이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비오는 날에는 그때 버스에서 내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치원아이들처럼 천진하게 뛰어오던 안해의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 웃기도 하였다.

이런 안해의 모습을 잊었다면 전향공작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을것이다.

나는 언제인가는 안해를 만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저버릴수 없었다.

남편에 대한 안해의 믿음을 저버린다는것은 아름다운 것을 저버리고 일생의 서약을 파피하는 윤리 도덕적파산자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아, 무서운 일이었다.

나에 대한 안해의 사랑은 전향을 거부하는 나에게 큰힘이 되었다.

안해의 깨끗한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는 인간의 량심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인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심은 행동의 거울이며 거짓과 진실을 판결하는 기준이다.》

그 량심, 아름다움과 사랑을 위해서도 나는 전향을 거부하였다.

그렇다. 오늘 비전향장기수가 된데는 량심의 인간으로 나를 떠밀어준 안해도 있었다는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도 이 세상에 없는 그를 사랑한다.

4. 대동강배놀이

나는 맑은 가을날에 대동강유보도를 걷다가 련광정에 올라 대동강에서 뽀트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속에 은옥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수 없었다.

우리가 결혼한 그해의 공화국창건기념일날은 맑은 날씨에 약간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대동강 유보도를 산보하기 좋은 날씨였다.

우리는 대동강에 함께 놀러갔다.

뽀트장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뽀트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표를 떼왔다.

내가 뽀트를 타자고 하니 자기가 노를 저을테니 앞에 앉으라고 했다.

아니 너자가 노를 젓고 남자가 앞에 앉으면 남들이 웃는다고 하였더니 그래도 자기가 노를 젓겠다고 하였다.

자기는 요트선수여서 웅당 제가 노를 저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는 학생시절의 요트선수였다.

체격이 작고 팔힘이 세지 못했지만 요트선수인것만큼 노젓는 솜씨는 일단 수준급이었다.

끝내 나는 뽀트앞좌석에 앉고 그가 노를 저었다.

지금 서해갑문이 건설되어 물흐름이 빠르지 않아 뽀트놀이하기는 좋다.

그러나 그때는 대동강 물흐름이 빨라 내려갈 때는 물흐름을 타고가니 노젓기는 쉬웠지만 물흐름을 거슬러 올라올 때에는 남자들도 노젓기가 힘들었다.

그러니 내려갈 때의 노젓기솜씨는 체법이여서 배는 미끄러지듯 흘러내려갔으나 반대로 대동강에서 련광정쪽으로 올라올 때에는 힘이 부치여 밭그레해진 그의 코등과 이마에는 땀이 배어나왔다.

《봐, 내가 노를 젓자》고 했더니 《아니, 당신이 노를 저으면 배가 넘어질수 있어요.》하면서 노대를 주지않았다.

힘들게 뽀트정착장 가까이까지 오자 나는 그에게 사정하다싶이 하면서 강북판에 뽀트를 세우고 그냥 더 있자고 했다.

그래서 뽀트정착장에서 멀리 떨어진 대동강북판에 다시 가서 배를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요트선수때 기수였기때문에 함께 배타는 선수들이 구령에 따라 동작을 했다고 했다.

자기가 기수로 탄 배는 언제나 1등을 하기때문에 서로 저마다 자기 요트기수로 데려가려고 해서 인기가 높았다고 자랑삼아 말했다.

나는 자그마한 체격에 인형처럼 생긴 그의 모습과 발랄하고 순진한 마음이 사람들의 호감을 갖게 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행운이라는것도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르는것이 아니겠는가.

강밀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맑은 대동강 북판에 뽀트를 세워놓고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웬 뽀트한척이 흐르는 물을 따라 돌진해오면서 우리 배를 받으려고 하였다.

위기일발의 순간 은옥이가 날썰게 우리 뽀트를 흐르는 물살방향으로 돌려 충돌을 간신히 피했다.

그 뽀트에 타고 있던 한 젊은이가 우리를 보며 크게 웃어댔다.

나는 《동무, 그러다 사고나면 어쩌자고 그래.》하면서 성을 냈더니 그는 더 크게 웃으면서 《남자가 노젓지 왜 너동무가 노젓게 하는가.》고 제편에서 오히려 혼시하려 드는것이 아닌가.

나는 그에 대답을 찾지 못하고 얼버무릴수밖에 없었다.

그때 은옥이가 그 남자에게 《나는 요트선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를 젓고 있습니다.》하면서 그 특유의 천진란만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가 《그렇게 작은 체격인데 요트선수요?》하자 은옥이는 요트기수였지만 남들만큼 노를 잘 젓는다고 말하였다.

그때에 그 젊은 남자와 함께 타고 있던 너동무가 《너무 지나친 장난에 미안합니다. 사실은 배놀이와서 강북판에서 사랑에 대한 비밀이야기를 하는줄 알고 질투심에서 한 장난이니 리해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잘 놀다가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내려가는 대동강물살따라 배를 저어갔다.

그들도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텐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가 하고 생각하며 그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렇다. 저 흐르는 대동강물처럼 세월은 흘러

갔지만 40여년전 추억은 금시 있었던 일처럼 현실로 느껴지곤 한다.

우리들은 시간이 되어 뽀트를 정착장에 세우고 내린 다음 대동강유보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당신때문에 오늘 남자망신 다했다.》고 하였더니 《아니 오늘 나때문에 힘들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나같은 여자만났으니 그런 행복도 가져보지요.

저 뽀트장을 보세요. 너자가 노젓고 배머리에 남자가 앉아있는 뽀트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만이 연출할수 있는 연기인데.》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웃음짓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우리들은 련광정에 올라와 절상에 앉아 흐르는 대동강 푸른 물을 내려다보면서 대동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련도밑에 우리가 저 대동강유보도를 건설하였으니 옛날사람들이 지금 련광정에 올라오면 오늘의 아름다운 평양을 무엇이라고 노래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한참 즐겁게 웃었다.

아 《제일강산》현판은 여전한데 그날의 내 님은 어디로 갔는가.

주체사상탑은 그 높이와 아름다운 조각미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고 있다.

높이 솟아오르는 분수와 거울처럼 깨끗한 강물, 청춘남녀들을 태우고 그 우를 오고가는 뽀트들, 세월은 흘러도 주체조국에 사는 청춘들의 사랑과 행복은 저 대동강물처럼 넘쳐흐르리라.

내 추억도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흐르고 있다.

5. 쉽게 지워지지 않는 20 대 안해의 모습

6.15북남공동선언발표후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으로 가게 된다고 남조선기자는 물론 외국기자들도 취재요청을 많이 해왔다.

《고향에 가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와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별별 질문들이 다 제기되었다.

《남조선사람들에게 남기고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감옥에서 선생님에게 탄압을 가한 사람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기자들의 질문도 소낙비처럼 퍼부어졌다.

그렇수밖에.

위대한 련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해 마련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밝혀진 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는 우리 7천만겨레에게는 물론이지만 온 세상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기때문이었다.

그러니 언론이란 언론은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한 보도와 함께 비전향장기수송

환에 대한 보도가 우선이었다.

감옥안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되고 외면당했던 비전향장기수들은 언론과 텔레비존의 초점에 선 가장 인기있는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기자들의 그 모든 물음은 남쪽사람은 물론 세상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이었다.

인류사에 남는 력사적순간의 그 중심에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이렇듯 큰 것이었다.

거리의 어디에 가나 비전향장기수들은 하루아침에 이렇듯 인기인물로 되어버렸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내가 비전향장기수라고 하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하고 위로의 말을 하면서 나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제 부인과 아이들을 만나면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라고 격려의 인사도 한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느닷없이 《선생님부인의 나이가 몇살입니까?》하고 질문하기에 이제 60이 되었다고 말하였더니 《그러면 제 나이구만요.》하는것이 아닌가.

그때 나는 그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아, 지금까지 나는 마지막으로 본 안해의 20대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저 부인처럼 내 안해도 늙어서 모습이 변했으리라는 생각에 미치자 내 가슴은 쓰렸다.

그렇다. 세월과 함께 내 안해도 늙었으리라.

그런데 헤어질 때 20대의 안해의 모습만 생각하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사람인가.

장군님명언에 꽃은 졌다가도 다시 피지만 한번 흘러간 청춘시절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명문구가 있다.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며 분명 지구는 돌고 있으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독감방에서의 34년이란 세월이 나의 모든 상상력을 완전히 정지시켰는지 모른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3번 변했는데 내 안해의 모습만 20대의 아름다운 녀인으로 있기를 바랐으니 나의 지나친 욕심인지...

세월과 함께 사람들은 늙고 떠날 때 한돌도 채 못되었던 아들은 지금 30대가 되었을것이다.

폐쇄된 0.75평 독감방은 자신의 나이와 자신의 늙은 모습을 믿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옥에서는 그가 10년 옥살이해도 감옥에 들어갈 때 나이를 그냥 갖고 출옥한다는 이야기가 통하는것이다.

그 부인과 헤어지며 나는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우선 공화국에 가 안해와 아이, 친척을 만나기 전에 내 생각과 상상을 바꾸는 준비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들었다.

부인들을 만나면 레의에 어긋나지만 《몇년생입니까.》 하고 질문하곤 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몇년생이라고 대답하곤 하였다.

나는 지금 대 안해의 모습이 저 정도이구나 하면서 근 40년동안 보지 못한 안해의 변한 모습을 그려보며 마음의 준비를 든든히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나는 안해의 20대시절의 한창 젊은 모습을 지워버리고 60대 할머니의 모습으로 바꾸어 상상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혹시 본의아니게 시각적차이에서 오는 경솔한 행동으로 처음 만날 때 안해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반대로 안해가 이 60대 로인을 어떻게 볼가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안해도 30대의 씩씩한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머리늙은이가 된 나를 보고 놀라지나 않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것 같다.

자기도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안해만 늙지 말고 20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고 있으니.

근 40년이란 긴 세월을 한가정이란 테두리안에서 살면서 세월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서로 보았다면 이런 상상으로 그려보는 모습은 없었을것이다.

그렇다고 흘러간 세월을 탓하고싶지는 않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 세상 보통사람들처럼 세월과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의미를 체득하지 못한것뿐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이런 구멍난데가 있는 모양이다.

친척과 친구들중에서 나에게 세상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내가 아는것이라면 소설책에 나오는 부모와 자식이란 가정생활에 나오는 이야기뿐 나에게서는 실지체험을 하지못한 모자라는 부분이 많을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안해와 자식에 대한 생각에서는 실제로는 락제생이다.

그래서 가정과 생활에 대해 나는 남들앞에서 이야기하는것을 주저한다.

안해와 함께 사랑싸움을 하면서 살아보아야 알수 있는 결혼생활의 진미를 느끼지도 못했고 배우지 못했다.

나에게는 다만 소설이나 영화, 텔레비존에서 나오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상식일뿐이다.

장군님의 품에 안기기전에 하루는 외국여기자가 찾아와서 우리는 서로 6.15북남공동선언과 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나에게 북에 가면 안해에게 제일 먼저 하고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고 질문해왔다.

나는 한참 뜸을 두고 《하고싶은 이야기가 문제 가 아니라 내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겠

다.》 고 말했다.

너기자는 호기심을 갖고 《실례가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준비란 무엇입니까.》 하였다.

내가 좀 난처해하자 너기자는 웃으며 《혹시 개인사생활에 대한 질문이라면 미안합니다.》 하면서도 나의 대답을 은근히 기다리는 모습이였다.

나는 속으로 《기자이기전에 당신도 녀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개인의 사생활이기전에 지나간 세월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완고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기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면 더 듣고싶습니다. 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기자가 아니라 녀성이란 립장에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기자에게 《실례의 말이지만 결혼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란 직업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나도 따라웃으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다면 제 이야기를 리해할수 있겠는지.》 하고 말하니 그는 《제가 결혼하면 인생에 도움이 되게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내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것은 제 안해의 모습을 모르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기자는 《안해의 얼굴을 모르다니.》 하고 의아해하였다.

《나는 근 40년동안 안해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비전향장기수여서 편지도 할수 없어 안해의 사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야 너기자는 심중해지면서 《그러니 근 40년만에 만나는 안해에게 하고싶은 말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나는 《그렇지요. 그러나 첫 상봉에 하고싶은 말보다 마음이 두려움고 무섭습니다.》 라고 하였다니 너기자는 《아니 두렵고 무섭다니?》 하고 또 성급하게 질문해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가 나를 아직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된 이상 내 이야기를 다하자고 결심했다.

나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더 했다.

나는 근 40년전에 집을 떠나 20대의 안해와 헤어져살았다.

그러다보니 지금 내 상상하는 안해의 모습은 20대의 젊은 시절의 모습뿐이다.

이제는 예순이 되였을 안해의 모습은 어떠할가 상상해보고 있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할 이야기보다 내 상상속에 있는 안해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20대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남들은 20대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고하고 있겠지만 나는 지금 20대의 젊은 추억을 지워버려

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예순이 되는 부인들의 모습을 보며 내 안해의 사진복사를 하고 있는데 잘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공화국에 가기전에 내가 꼭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오랜 세월과 함께 나도 늙고 안해도 늙어왔음을 시인하고 나는 예순살 안해의 모습을 새로 만들고 안해도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만들어 첫 상봉의 충격을 감소해야 한다.

늙은 내 안해의 모습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마음의 괴로움도 있다.

나와 결혼하였기때문에 1년 8개월동안만 남편

과 생활한 외에는 너자가 혼자 살아왔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가에 이르자 나는 안해에게 미안한 심정을 지워버릴수 없다.

조국의 통일이란 역사적현실을 인정한다해도 남편으로서 안해에게 해야 할 인생의 빛은 지고 살아야 할것이다.

그런 안해를 만나기 위해 현재의 안해의 모습을 내 머리속에 인식시켜야 하겠는데 그 상상이 잘되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후 외국신문에 나와 기자의 대화내용이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울리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구월산아

오필천

옥류동 옥구슬 밟고 오른듯

형제소 폭포수 타고 오른듯

이백굽이 수삼태령 마루에 서니

신비경이나 안개는 발아래서 오락가락

황홀경이나 아흔아홉굽이는 손끝에서 남실

순간 나 몰래 가슴에서 터치는 소리

-구월산아!

안타까워 작은 내 소리

더 크게 더 크게 불러부르니

하늘과 산이 맞붙은 곳에서

메아리쳐오는 소리

-서해명승 구월산아!

부르는 소리는 한마디였어도

비껴오는 소리는 그리도 뜨거워

머리들어 바라보니

오봉의 해바위에 쏘아새긴 빛나는 글발

《서해명승 구월산》

그 사랑의 친필에서 울려왔구나

오, 구월산

장군님세월에

인민의 명승으로 높이 솟았으니

그 자랑 우리 힘껏 웨쳐부르자

-서해명승 구월산아!